현대불교

제 777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2010년 3월 31일 수요일 (음력 2월 16일 · 불기 2554년 · 주간)





조계종 전국사찰

4대강 반대 서명운동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정부의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계종 공식기구인 환경위 성명서 발표로 조계종도 천주교에 이어 4대강 사업 반대가 공식의견이 됐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주경, 이하 환경위)는 3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4대강 사업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원장 주경 스님은 "4대강 저지 운동에 천주교계가 적극 대응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불교계에서도 지속적인 (4대강 반대)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봉은사 문제 등이 있지만 더 시급한 것은 4대강 저지 운동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성명서가 종회에서 채택됐어야 했지만 법정 스님의 갑작스런 입적 등으로 미뤄져 발표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환경위는 성명서에서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의 하나로 포장한 '4대강 살리기'로 국토 전체의 생태를 위협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대규모 토목공사를 강행해 살아있는 강을 도리어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합의, 적법한 절차와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진행하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며 "현 정부는 국토의 생명력을 끊고, 역사문화유산을 송두리째 훼손 · 파괴하는 대재앙을 부르게 된다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와 함께 4대강 반대를 위한 행동 계획도 발표됐다. 환경위는 4월 17일 조계사에서 열리는 환경대법회 '4대강 생명살림 수륙대재'를 직접 추진한다. 또 전국 사찰에서 4대강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고, 사업 절차 및 문제점을 정리한 안내책자와 환경포스터를 제작 · 배포할 예정이다.

환경위는 가야산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 추진 중단활동 등 종단 내 환경 현안에 대해서도 적응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구지방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다. 4월 초에는 골프장 설립예정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5월에는 자연공원 내 골프장 건설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한다.

한편, 천주교는 최근 서울 시내 성당 20여 곳에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인천 · 광주교구도 동참했다. 또 각 지역 교구에서는 서명운동, 만화 홍보책자 45만부 배포, 4대강 권역 사제와 신도들이 미사를 여는 등의 대규모 저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상언 기자

조계종 환경위 25일 4대강 저지 성명
4월 17일 조계사서 '4대강 수륙대재'



국내 유일 繡 괘불탱 한국불교미술사학회(회장 문명대)는 3월 20일 종로 창신동 지장암에서 '지장암 불교미술의 성격과 의의'의 주제로 지장암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지장암에서는 불교의식 및 야외법회를 할 때 절 마당에 걸어놓는 국내 유일의 수(繡) 괘불화(掛佛畵)인 수아미타삼존 괘불도가 공개됐다. 관련기사 7면
이나은 기자 · 사진제공=한국불교미술사학회

▶14 선지식-법흥 스님 ▶4 인터뷰-도신 스님 ▶9 현장-다문화법회

법정 스님 추모 열기 '활활'

절판 소식에 저서 가치 상승… 5재는 무각사서

3월 24일, 서울 길상사에는 이른 아침부터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법정 스님의 재가 있는 날에는 길상사를 찾는 택시가 특수를 누릴 정도다.

법정 스님의 책이 품귀현상을 빚는 등 추모 열기가 식지 않는 가운데 2재가 3월 24일 서울 길상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길상사를 찾은 조영수(60 · 상도동)씨는 "스님 같은 분이 한국에 한 분이라도 더 계신다면 정말 우리나라가 아름다워질 것 같다. 49재까지 꼭 동참해 스님 영가를 천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2재에는 길상사 前 주지 덕조 스님, 현 주지 덕현 스님 등 법정 스님의 상좌스님 등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법정 스님의 5재 장소가 길상사에서 광주 무각사로 변경됐다. 5재는 길상사 초대 주지 청학 스님이 주석하는 곳이다.

맑고향기롭게 김자경 기획실장은 "맑고향기롭게 초대 사무국장으로 법정 스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했다"며 "법정 스님을 오랜 시간 시봉해 온 청학 스님이 직접 재를 올리고 싶다고 요청해 장소를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정 스님의 추모 열기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맑고향기롭게는 법정 스님 추모 홈페이지(www.beopjeong.net)를 개설했다. 홈페이지에는 법정 스님의 사진, 어록 등을 누구나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스님 책이 절판된다는 소식에 3월 26일에는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에서 1993년 8월 발행된 <무소유> 증보판 중고도서가 110만5000원에 낙찰되는 등 스님의 저서의 가치는 날로 올라가고 있다.

김자경 기획실장은 스님의 저서 출판와 관련해 "맑고향기롭게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출판사와 협의 단계에 있다"며 "맑고향기롭게와 출판사 측은 스님의 유언을 따르는 것을 기본으로 의견 조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길상사는 법정 스님이 1992년부터 최근까지 수행했던 강원도 평창군 산골 오두막을 찾아오는 추모객의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길상사 관계자는 "무분별한 출입으로 원형이 흐트러지거나 유품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49재까지 출입을 막기로 했다"며 "산골 오두막은 49재가 끝나면 유골이 뿌려질 곳이고, 법정 스님의 유품을 정리하고 파악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청률조사기관 TNS에 따르면 3월 13일 불교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법정 스님 다비식은 1.630%(전국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해 동시간대 케이블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이상언 기자

국제불교문화교류센터 부지 제공

총지종,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에 밝혀



총지종 통리원장 지성 정사가 3월 22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국제불교문화교류센터' 건립에 역삼동 부지를 제공할 뜻을 밝혔다(사진).

총지종 통리원장 취임 인사차 진행된 이날 예방에서 지성 정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불교계 선거공약으로 건 '국제불교문화교류센터'(가칭) 건립에 총지종 총지사가 위치한 역삼동 900여 평 땅을 부지로 내놓고 싶다"며 "해외포교에 각 종단의 관심이 몰리고, 범불교적인 대규모 공연장과 회의장이 부족한 만큼 이를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승 스님은 "종단협에서도 부지 문제로 이 문제가 답보했던 것으로 안다. 종단협 부의장 스님들과 논의를 해보겠다. 종단협 이사회의 시 안건으로 제안해 달라"고 답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184차 임시종회 6월 개최

조계종 제184차 임시종회가 6월 중으로 개최된다.

제184차 임시종회에서는 승려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승려법 개정안과 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 신도품계과 관련한 신도법 개정안, 종단 교무금납부에 관한 법 개정안 등 지난 회기에서 이월된 종법 개정안이 대거 상정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불교방송 · 진흥원 화해 기류

불교방송 사장선출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왔던 대한불교진흥원과 불교방송 사이에 최근 화해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불교방송과 진흥원 관계자에 의하면, 최근 불교방송 간부회의에서 한 간부가 "진흥원에 대해 공격적 입장을 거두자"고 발언한 것을 비롯해 수년간 이어진 두 기관의 대립이 더 이상 양 측에 도움이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불교방송과 진흥원 관계자에 의하면, 최근 불교방송 간부회의에서 한 간부가 "진흥원에 대해 공격적 입장을 거두자"고 발언한 것을 비롯해 진흥원 신진욱 대변인은 "최근 불교방송의 분위기가 변화된 것 같다"면서 "하지만 아직 진정성이 드러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 공단등 · 오색공단등 · 영가등 · 종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 팔각봉축접등 · 종등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총무원 · 봉은사 타협여지 안보여

총무원, 직영전환 외압은 없었다
명진 스님, 법회 통해 총무원 압박
청정승가, 대중과 소통없이 직영 지정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의 건을 두고 무기명 비밀투표 중인 중앙종회의원 스님들. 사진= 박재완 기자

조계종의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에 정치권 외압이 쟁점화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총무원 측은 "봉은사 직영전환은 당연하며, 정치권 외압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봉은사는 "봉은사 직영전환은 정치권 외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교단체는 봉은사 직영전환 타당성 검토보다는 정치권 외압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총무원 측, 봉은사, 불교단체간 공통 교집합이 없어 불자들의 원만한 사태 해결 기대와는 달리 파국으로 치달을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에서는 여당 원내대표에 의한 종교계 외압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정치권 외압…진실공방 속 쟁점화

사태는 조계종 중앙종회가 3월 11일 임시종회에서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찬성 49표, 반대 21표로 통과시킨 것을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스님은 14일 봉은사 일요법회에서 "봉은사 신도들과 소통 없이 결정된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은 수용할 수 없다. 과거와 같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봉은사를 점령하고자 한다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명진 스님은 21일 봉은사 일요법회에서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에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밀통과 야합이 있다"는 외압설을 제기했다.

스님은 법회에서 "2009년 11월 13일 자승 스님과 안상수 원내대표가 만났을 때, 안 원내대표가 '강남 부자사찰에 좌파 스님을 주지로 그대로 나눠야 되겠냐'고 총무원장스님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명진 스님과 안상수 원내대표의 진실공방 속에 야권은 일제히 논평을 내고 "안상수 대표의 발언은 종교탄압"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은 22일 논평을 통해 이번 외압 의혹 사건을 1980년 대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10 · 27법난'에 이은 '제2의 법난'으로 규정하는 한편, 당 차원의 대책기구를 통한 자체 진상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안상수 원내대표가 명진 스님이 신도들이 전한 성금 1억 원을 '용산 참사' 유가족에게 위로금으로 전달한 것을 문제 삼았다"며 "헌법에 보장된 종교 자유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은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이다. 한나라당은 공식 회의석상에서 명진 스님 발언에 대해 일절 거론하지 않았으며 대변인 논평도 발표하지 않았다.

불교계…종단 자주성 훼손 우려

정치권과 별도로 불교계에서는 종단 자주성이 훼손된 것을 우려하는 입장이 발표됐다.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의장 진오, 이하 대중결사)는 22일 '종단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정치권력의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조계종 총무원은 봉은사와 관련한 일체를 해명하고, 부당한 정치권력에 굴복했다면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대중결사는 성명서에서 "총무원은 대중들과 아무런 소통 없이 수도권 포교 활성화란 명목으로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지정했다"면서 "수도권 포교, 나아가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원력을 세우고 임해야 할 총무원이 아직도 정치적 판단으로 이를 손쉽게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가 밝힌 만남의 목적 또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대중결사는 "안상수 원내대표 해명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3일의 부적절한 만남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져 불교관계 예산을 부탁받았다고 한다. 청정함으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할 불교계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국가예산을 논했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권력과 불교가 야합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이러한 의심이 곧 종단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교계에서는 정치권 외압에 무게를 실으며 봉은사 사태의 해법을 고민해 가는 모습이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재가연대,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등 12개 불교단체는 25일 연석회의를 열고 안상수 원내대표의 공직사퇴를 촉구하기로 결의하고, 26일 한나라당에 입장서를 전달했다. 25일 광주전남 재가불자 108인도 성명서를 통해 정치권력의 외압을 규탄했다.

직영 찬반 두고 세력간 대결 그쳐야

불교단체의 정치권 외압 지적과는 다르게 총무원 집행부과 원로회의와 중앙종회는 "봉은사 직영전환은 적법 · 정당하다" "외압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무원은 대변인 원담 스님(기획실장)을 통해 수차례 이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로회의 의장단은 24일 청주 보살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봉은사 직영전환 당연하다"는 입장 발표했다. 이어 25일 중앙종회도 "외압 논란은 중앙종회의 자주성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봉은사 직영 전환은 외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중앙종회는 "(명진 스님이) 외압 논란을 그치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명진 스님의 징계회부 의사도 내비쳤다.

이에 더해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도 29일 부산 범어사에서 회의를 열고 봉은사 등 최근 사태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총무원 측의 봉은사 명진 스님 압박이 계속되자 봉은사 신도회는 25일 직영전환 철회,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도회는 40여 년 전 총무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봉은사 삼보정재가 유실됐음을 지적하는 한편, 주지 명진 스님에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앞선 24일, 정휴 · 수경 · 도법 · 지홍 스님 등이 명진 스님을 만나 중재를 시도했다. 이 자리에서 명진 스님은 △봉은사 직영 전환 즉각 철회 △봉은사 사부대중 합의에 의한 주지 추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공개참회를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명진 스님은 봉은사 직영 전환이 철회될 때까지 매주 일요법회를 통해 새로운 이슈를 던지며 조계종 총무원 측을 압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원과 봉은사 양 측의 대립을 해소할 열쇠가 종단 자주성 수호에 달려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동섭 · 노덕현 기자

승가고시 '쓰고 말하기' 큰 호응

객관식 사지선다형에서 논술 · 면접 추가

교육원, 확대 시행

객관식 사지선다형 문제가 전부였던 승가고시에 논술 · 면접이 추가돼 큰 호응을 얻었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3월 22일 브리핑을 통해 19일 중앙승가대에서 치러진 4급 승가고시 결과 등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는 '시대와 역사에 부응하는 승가교육'을 주창한 교육원장 현응 스님 체제에서 첫 실시된 것으로 고시 대상자를 비롯해 종단 안팎의 관심이 컸다.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4급승가고시에서 기존 객관식 문항 외에 논술과 면접을 평가항목에 넣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면서 "논술 등을 5급 승가고시 등 승가고시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논술에서는 단순 지식이 아닌 교리 핵심을 이해해 현대사회에 응용하는 문제가 출제됐다"면서 "기본교육기관(강원 · 승가대학 등)에서 4년간 꾸준히 공부해야 답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교리 이해에 사고력 · 창의력을 더한 문제를 출제했다"고 말했다.

논술 출제 예제는 △8정도 중 정념에 대해 설명하시오 △대승불교의 타력신앙과 개신교 등 서구신앙의 타력신앙의 차이를 말하시오 △선이 현대인에게 도움되려면 선의 어떤 점이 강조돼야 하는지 서술하시오 등이다. 면접도 개인적인 수행과 불교의 대사회적 이해와 활동을 묻는 질문으로 진행됐다.

이번 고시에는 287명(사미 166명, 사미니 121명)이 응시해 280명(사미 156명, 사미니 121명)이 합격했다.

조동섭 기자

"대중의견 지속 수렴하겠다"

조계종 사유재산 출연 토론회



토론회에 참석한 스님들이 총무부장 영담 스님의 발제문을 진지한 표정으로 살피고 있다.

승려사유재산의 종단출연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이 3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후복지책 선결의 목소리와 다양한 경우에 따른 대비책 마련 등 시기적 문제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발제자로 토론회를 주최한 총무부장 영담 스님은 부처님오신날 전 토론회를 다시 열고 교구별 홍보 및 선원 · 강원 등을 찾아 설명회 등을 펼치기로 했다.

총무부장 영담 스님은 발제에서 "스님들이 형성한 재산을 미처 사찰과 재적본사 등에 등록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입적 등으로 일어나는 재산 상속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출가정신을 되살리고 승려노후복지 및 승가교육의 재원으로 활용코자 함도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계종 자문 김형남 변호사(법무법인 신아)는 법률적 검토를 밝히는 제2발제에서 "유언장 및 사인계약서는 법률적으로 강제성이 없다"며 "급작스런 입적 후 승려 신분으로 간직한 삼보정재가 속가보다 불교계로 머물게 하는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웃종교의 사례를 주제로 발제한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원불교와 천주교, 천태종과 진각종의 경우 이미 승려노후복지와 연관해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 등을 기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선원 · 강원 · 비구니회 대표 토론자들은 시행 취지에 공감하며 강제성과 시행시기에 이견을 제시했다.

영담 스님은 "사유재산 종단 출연 홍보를 위해 토론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봉행 중국 육조사 한국 본찰 용화사 금강계단 수계법회

금번 중국 광동 육조사 한국 본 찰 용화사(한국 육조선원)와 세계 선불교 육조선 교류연맹에서는, 지난 2009년 9월 17일 중국 육조사를 방문 8명이 수계 수법 제자가 되었으며, 2010년 1월 19일 26명, 3월 20일 13명 등 3회에 걸쳐 총 47명이 육조혜능 대사의 법맥을 육조사 대원 방장님으로부터 수법하였으며 한국 본찰 용화사에 부처님 진신 사리 2과와 함께 육조성상을 모시고 금강계단을 설치. 삼화상 칠증사가 임명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에 명실상부한 중국 선종의 법맥을 잇는 국내유일의 전무후무한 단일 계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원 방장님께서 한국 용화사 연화 방장님과 함께 한국에 혜능국제불교대학을 설립키로합의하고 오는 5월 30일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육조선원과 세계 선불교 육조선 교류연맹은 한국 불교 역사상 가장 정통성 있는 중국 조계 혜능 대사의 법맥을 이어 받아 혜능 대사의 돈오사상과 서민 불교 정신으로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불국토를 이루기 위해 정진할 것입니다. 저희는 뼈를 깍는 아픔과 자성.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깨끗하고 바른 불교로 한국 불교 정화 개혁에 앞장 설 것입니다.
저희와 뜻을 함께 하실 종단. 종파를 초월한 대덕 큰스님 도반 스님, 여러분의 가르침과 동참을 바랍니다.

⊙ 1차 (비구.비구니 수계 법회)
■ 일 시 : 불기 2554년(2010년) 5월 25일~28일 (3박 4일)
■ 장 소 : 중국 광동 육조사
■ 참가요령 : 이력서 (행장) 주민등록등본 1통, 승려증, 주민증사본, 사진 4매
■ 참가자격 : 비구. 비구니로 본회 회원 2인 이상 추천을 받은 승려로써 본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필한자

⊙ 2차 (비구. 비구니 입실 건당 및 사미. 사미니계. 보살계. 거사계)
■ 일 시 : 불기 2554년(2010년) 7월 20일
■ 장 소 : 서울 올림픽 공원 (체조경기장)
■ 참가요령 :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이력서, 주민등본, 주민증사본, 사진 4매) 보살계, 거사계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증사본 1통)
■ 참가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불교도, 불자는 누구나

중국 육조사 한국 본찰 용화사 금강계단
삼화상 교수아사리 보산당 법광 대화상
설계아사리 법산당 정암 대화상
갈마아사리 남산당 청암 대화상
전계화상 덕산당 연화 대화상
존증사 혜봉 대선사
청산 대선사
법붕 대선사
금봉 대선사

세계 선불교 육조사 교류연맹. 이사장
중국 광동 육조사 한국 본찰 용화사 방장
혜능 국제 불교대학 설립 위원회 공동위원장 석 연화
중국 육조사 방장 석 대원

세계 선불교 육조선 교류연맹 임원명단
방 장 : 석 연화
자문위원 : 향운. 금봉. 혜산. 정진
부 원 장 : 청산. 혜봉(김일석). 혜봉(이민택)
사무국장 : 선호 / 사서실장 : 자은 / 총무부장 : 무영
사무처장 : 자운 / 호법부장 : 선담 / 기획실장 : 청운
문화원장 : 원도 / 복지원장 : 해문 / 호법원장 : 일웅
수선원장 : 효진 / 교육원장 : 종섭 / 지도위원장 : 법붕
예술원장 : 영사 / 감찰국장 : 도관 / 사업국장 : 지원
홍보국장 : 해양 / 호법부장 : 선담 / 감찰차장 : 오성
홍보차장 : 혜천 / 복지부장 : 자문 / 문화부장 : 법성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용암 2리 246번지 . 중국 육조사 한국 육조사 본찰 육조선원 용화사 ■ 전화 033) 761-2556 / 033) 761-7008 / 02) 720-6363 / 011-285-6800

귀농은 새 삶에 대한 대안인가, 낭만인가

실상사귀농학교 각광… 12년 간 800여 졸업생 가운데 15% 귀농

농촌으로 가는 사람이 늘고 있다.

사람들은 더 좋고, 더 편하고, 더 빠르게 변하는 도시를 떠나고 있다. 사람들이 농촌에 거는 기대는 무엇일까? 최근에는 '시골 가서 농사나 짓자'라며 귀농에 대한 로망을 갖고 떠났다가 귀농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실패담도 오가지만 귀농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귀농, 귀촌 가구는 전국적으로 4080가구가 유입돼 전년의 1862가구에 비해 84%나 늘었다. 1990년 이후 귀농가구는 3만 4379 가구에 이르렀다. 최근 가족단위 귀농이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귀농인구 또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돼 이에 대한 불교계의 대응이 요구된다.

#귀농은 사회적 이민

채상헌 천안연암대 귀농지원센터장은 "귀농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가는 단순한 거주 공간의 이동, 직업 전환이 아닌 '사회적 이민'이다"라고 말했다. 귀농인구는 경기와 밀접하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경제위기가 닥치면 도시인들이 귀농(歸農:농사를 지으려고 농촌으로 돌아가는 현상), 귀촌(歸村: 시골에 살기 위해 농촌으로 가는 것), 귀향(歸鄕) 등 다양한 형태로 농촌으로 돌아간다.

1997년 이전 한 해 평균 1000가구 미만이던 귀농인구는 1998년 외환위기 여파로 6409가구, 1999년 4118가구로 증가했다. 이후 주춤했던 귀농인구는 2001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7년 2384가구, 2008년 2218가구로 늘었다. 2009년에는 2008년 최악의 세계경제위기 이후 귀농 가구는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령대별 귀농 가구는 60대 이상 847가구, 50대 1114가구, 40대 1000여, 30대 499가구, 20대 71가구로 40~50대 귀농가구가 가장 많다.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꿈꾸거나 60~70년대 도시로 떠났던 이들이 다시 고향을 찾고 있다. IMF 이후 생계형 귀농에서 최근에는 30~40대의 고학력자나 전문직 종사자, 대기업 출신 귀농자들이 획일적이고 경쟁적인 도시의 삶을 떠나 새로운 대안의 삶으로 선택하는 이도 늘고 있다.

인드라망 이향민 연구소장은 "귀농운동은 우리 사회가 시스템을 조금 고쳐서 살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됐고, 우리 삶의 근간인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기르고 가꾸는 토대 자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는 전제 위에서 탄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귀농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가인구 비율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다. 이는 귀농을 위해 농촌을 찾은 사람들이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농촌을 떠나기 때문이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3월 22일 귀농의 삶의 참뜻과 마음자세 등을 강의했다(왼쪽).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불교귀농학교에 등록하는 사람들도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다. 도법 스님의 첫 강연을 듣고 있는 수강생들.

귀농 관련 담당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가 '귀농을 너무 쉽게 보는 풍토'를 문제점으로 지적할 만큼 전원생활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귀농을 선택하는 이들도 많다.

대체로 귀농인들은 "육체적 노동과 많지 않은 수입, 뜻하지 않은 재해, 농업에 대한 무지가 도시생활에 익숙한 이들에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렵게 찾은 농촌은 가정경제, 자녀교육, 문화생활 등 다른 문제점을 낳으며 이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귀농 장려 및 정착지원 정책과 더불어 관련 교육기관 단체 등에서 시간을 두고 철저한 준비를 하고 떠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귀농 지원 학교 및 프로그램

귀농 열풍(?)에는 정부도 한 몫 했다. 정부가 경제위기의 탈출구로 농촌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 5월부터 일자리 창출과 함께 농촌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귀농 · 귀촌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다. 현장에서 필요한 실용 교육과 농산업 인턴제도 확대, 주택문제 해결, 농촌정착을 위한 멘토링 지원 등의 실시도 귀농인구 증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1998년 개설된 불교계 귀농교육의 산실인 실상사귀농학교(교장 성전)는 특성화된 귀농학교로 각광받고 있다. 실상사귀농학교에서는 단순하게 생업을 '농업'으로의 전환하는 수준이 아닌 몸과 마음, 기술 모두를 겸비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실상사귀농학교는 12년간 800여 졸업생 가운데 15%가 실제 귀농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상사귀농학교의 특징은 농사짓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 동료와의 협동, 마을 주민과의 공동체 만들기에 집중한다. 또, 입소 학생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귀농교육을 진행하고 귀농 목표를 선정함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 있다.

실상사귀농학교는 도법 스님이 실상사 주지로 있을 때 절 땅 3만평을 귀농한 사람들에게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개교 이후 해를 거듭하면서, 제2의 승가공동체로 발돋움한 실상사귀농학교는 불교를 쉽고 바르게 전하는 포교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상사는 대안적 삶을 제시하는 사찰로 공동체 속에서 불교적인 삶을 사는 미래 사회의 한 모델로도 제시되고 있다. 특히 대중 활동의 장으로 시작된 불교귀농학교와 실상사귀농학교, 현장귀농학교, 실상사 토지를 활용한 실상사 농장 등을 모태로 지역 활동과 생명살림운동, 공동체 운동을 실천하는 불교 생협, 청소년들의 대안학교인 실상사 작은 학교, 복지공동체인 한생명 등 기관기구 들도 생겨나면서 불교계가 사회에 제시하는 공동체적 대안의 한 전형으로 자리잡고 있다.

#"귀농은 생명평화의 삶"

"귀농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 제26기 불교귀농학교 첫 강의날인 3월 22일 도법 스님의 첫 질문이었다.

'생명평화의 삶, 귀농'를 주제로 진행된 강의에서 스님은 "귀농해서 보람을 느끼고 성공 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인생 설계를 면밀히 하고 정리하면서 바꾸는 것이 시작"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도시생활이 마땅치 않아서, 말년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살겠다는 생각이라면 귀농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귀농 이전에 자신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얼마나 바람직하지 않았는지부터 명확히 정리하라"고 당부했다.

도법 스님은 요즘 사회를 '생명 · 평화위기가 일상화된 사회' 라고 규정지었다. 스님은 "지금과 같은 사고와 삶의 방식으로 성공적인 삶을 계속 꿈꾼다면 모두가 죽는다. 도시문명사회가 반사회적, 비인간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명확하게 인식하라"고 강조했다.

도시인들에게 귀농의 관건은 '돈'이다. 농촌에서 잘 벌어 잘 쓰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귀농 생활은 어려워진다. 도법 스님은 "생명을 살리는 좋은 농사, 훌륭한 농사를 통해서는 돈을 벌기 힘들다. 돈을 벌려면 생명을 짓밟고 파괴하는 농사를 지어야 한다"며 "주체, 자유, 창조적 삶을 위한 귀농은 생명을 가꾸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실상사 귀농학교에서 중요시 하는 것 중 하나는 공동체 생활이다. 인드라망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 깨닫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자연의 삶이 바로 인드라망이기 때문이다.

귀농은 공동체의 삶을 기본으로 한다.

귀농 지원을 동체대비를 실천하는 방편으로 삼아, 사회 문제 해소에 불교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상언 기자



동국대의 이상한(?) 계산법

연봉 3000만원의 근로자가 있다. 세제 전 월 250만원씩 받던 근로자는 어느 날 받던 금액의 70%인 월 175만원씩만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받아야 할 나머지 금액 900만원은 1~2년 후에 '하는 거 봐서' 준다고 했다.

동국대(총장 오영교)는 최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계약조건(급여 등) 안내'에서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비정규직 연구전담 교원을 대상으로 3월 1일자 신규 · 재임용자부터 적용한다는 공문에는 월급만 미루는 '채찍'으로도 모자라 효도수당, 식대 , 복지카드의 혜택도 함께 없앴다. 그러고는 한편으로는 미안(?)했는지 '당근'도 적었다.

공문에서 재임용 조건 초과분에 대해 논문게재장려금을 지급하고, 재임용 조건의 2배 초과시 전년급여의 10%의 범위 내에서 급여인상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동국대의 한 연구자는 "월급에서 수 십 만원이 줄면 어떻게 생활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안타까운 사실은 불면 날라가는 비정규직 신분인 그는 부당한 제도에도 학교에 하소연조차 할 수 없다.

오영교 총장은 2009년 12월 10일 총장경영리포트에서 학교평가가 부진한 원인이 교육여건 및 교수연구 분야 실적 저조에 있다고 진단하고 획기적인 연구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정규 교원은 강의시간에 상한선을 두고 연구에 매진케 했다. 저명 학술지 논문 게재 장려금 등도 대폭 늘리는 등 다양한 지원책이 준비 · 시행 중이다.

동국대 교직원 노조는 임금동결 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교수 · 직원에게만 평가의 잣대를 들이대면 학교가 바로 설 것이라는 편협된 사고가 존재하는 한 동국대의 내일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교수 · 직원에게는 차마 시도하지 못하는 이상한 셈법을 비정규직 연구자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내비게이션 사찰 표기가 무덤?

모젠, 종평위에 공식 사과하고 아이콘 수정

차량용 내비게이션에 사찰을 무덤 아이콘으로 표시해 물의를 일으켰던 모젠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공동대표 혜경 · 손안식, 이하 종평위)에 공식 사과하고 문제의 아이콘을 수정조치했다.

현대기아 기획총괄본부 산하 CL사업부 박인서 모젠사업팀장, LG전자 최수헌 car 품질보증실장은 3월 19일 조계종 사회부를 방문 사과했다.

혜경 스님은 "불교를 폄훼하려는 의도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4월 중순에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무성의한 반응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모젠 측은 "기기 특성상 매년 4차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이뤄지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 우선적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젠 측은 "사찰이 무덤으로 표시된 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 과정상의 실수다. 원인을 분석해 프로그램 수정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날 모젠은 단말기 문제에 대한 즉각 수정을 촉구하는 종평위 공문에 대한 회신 공문도 전달했다.

회신 공문에는"사찰 표기 문제가 있는 내비게이션은 2009년 7월 생산 및 9월 정기업데이트 이후 생산된 2개의 모델"이라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3월 19일 이전에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이상언 기자

불교온라인쇼핑몰
HyunbulShop


즉욕기 145,000
☎ 02)2004-8216



일주문



보살계 수계법회 법문

한국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장 현성 스님은 3월 23일 출가재일을 맞아 현성정사 보살계 수계법회에서 법문했다.



월정사 대하스님 추모다례재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4월 2일 월정사 적광전에서 대하 스님 추모다례재를 봉행한다. (033)332-6915



고운사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

의성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4월 3일부터 고운사 선체험관에서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을 봉행한다. (054)833-2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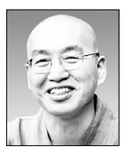
이주여성 운전면허 취득반

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진오 스님은 4월 18일까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운전면허 취득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054)439-8279



능인선원 동자승 모집

능인선원 선원장 지광 스님은 3월 31일까지 능인선원 봉축대법회 동자승을 모집한다. (02)577-5800



정토회 순회공연 봉행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4월 3일 인천시청 강연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지역 순회 강연을 봉행한다. (02)587-8994



지율 스님 낙동강 사진전 개최

지율 스님은 3월 29~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갤러리에서 '낙동강 숨결느끼기 사진전'을 개최했다. (02)720-1915



한국불교꽃예술회 기념 전시회

한국불교꽃예술회 회장 선오 스님은 4월 20~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전시회를 개최한다. (041)356-1384



태허 스님 추모재 봉행

민성진 운암 김성숙 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은 4월 12일 태허 스님 41주기를 맞아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추모재를 봉행한다. (02)391-9100



생활의료봉사단 출범식

배관성 불교생활의례문화원 이사장은 4월 2일 전법회관 선운당에서 생활의례봉사단 출범식을 봉행한다. (02)720-1079

법장 스님 기념관 건립이 목표

추모 콘서트 여는 도신 스님

"법장 스님의 유업을 잇고, 스님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을 짓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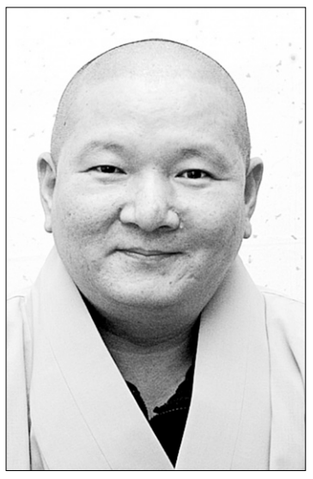
노래하는 스님, 도신 스님(사진)이 자신의 은사인 법장 스님을 기리는 추모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생명나눔과 자비불교 실천을 강조했던 법장 스님의 정신을 계승코자 마련됐다.

"스님이 열반하신 후, 바로 스님을 기리는 기념관 건립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스님이 남기신 불사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라 정신없이 세월을 보내다 보니, 벌써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스님에 대한 기념관 건립은 제가 꼭 이루고 싶은 목표입니다."

도신 스님은 법장 스님 기념관을 건립해, 앞으로 청소년 및 많은 학생들에게 생명나눔정신을 알리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법장 스님은 자비실천의 세계화, 불우청소년을 위한 장학 불사, 생명 나눔 장기기증 운동, 심장병 환자 돕기,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등을 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스님의 정신을 잇기 위해서는 기념관 건립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념관은 법장 스님이 살아생전에 지녔던 개인용품 전시실과 생명나눔 실천 운동 자료를 담은 자료실, 생명나눔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교육실로 꾸며질 예정이다. 단순한 기념관을 넘어 교육과 체험공간으로 구성하겠다는 것이 도신 스님의 계획이다.

"스님이 심장병으로 돌아가셔서 그런지, 저는 스님이 해 오신 일들 중에서 심장병 환자를 돕는 사업에 가장 애착이 갑니다. 현재도 심장병 환자를 후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여유가 생긴다면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싶습니다."

법장 스님의 추모콘서트는 효민 스님의 사회와 마음소리 승가합창단의 공연으로 문을 연다.

또, 도신 스님과 공연단 색즉시공이 만들어 내는 신나는 음성공양과 더불어 가수 장윤정, 박현빈, 엄인호, 한영애가 특별출연해 행사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행사에는 법장 스님의 추모영상도 함께 공개된다.

부대행사로는 생명나눔 실천본부에서 마련한 장기기증 서약 및 헌혈행사도 함께 진행돼 자비실천의 마음을 모은다.

도신 스님은 "법장 스님이 법구를 기증함으로서 불자들의 마음속에 다시 탄생 하셨듯이 자비실천의 길을 걷는 것이 앞으로 불교가 나아갈 길이며, 혼란스러운 사회를 정화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비의 장이 될 도신 스님의 '2010 생명사랑 자비콘서트'는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5월1~2일 오후7시 공연된다. (070)8261-1815, (041)664-2001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나라경제를 위한 방생법회 봉행



대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청해 스님이 3월 18일 열린 방생법회에서 법문하고 있다.

대불교조계종(총무원장 청해)은 3월 18일 경북 울진 일출암 야외법당에서 창종 기념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창종 법회에는 각 종단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해 울진사암연합회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청해 스님은 인사말에서 "종단 정통성을 위해 모든 종도들이 각자 뼈를 깎는 수행을 하자"고 당부했다. (041)551-5537

노덕현 기자

대한국불교조계종 창종법회



대한불교 조계종은 이날 창립을 기해 도제양성에 적극 나선다.

대한국불교조계종(총무원장 덕산)은 3월 21일 서울 서대문문화회관에서 창종법회를 봉행했다.

창종법회에는 대한국불교조계종 종정 석혜광 스님, 총무원장 덕산 응천 스님, 원로의원 도우 스님, 부산 태종사 조실 영공 스님, 삼보신문사 회장 영통 스님, 비구니원장 동성 스님, 한화갑 전 민주당 의원, 불자가수 등 6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법신 스님은 창종선포문에서 "'대한국불교조계종'의 공식 명칭하에 정법수행과 포교활동으로 불교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선포했다.

총무원장 덕산 스님은 봉행사에서 "도제양성, 노후복지에 힘쓰겠다"며 "교육사업, 복지시설, 의료사업 등도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부처님 · 대중 시봉 잘하겠다"

조계사 주지에 토진 스님 임명



조계사 새 주지(재산관리인)에 토진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토진 스님(조계사 부주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자승 스님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前 주지 세민 스님이 열심히 사셨다. 세민 스님이 건강상 주지직 사의를 여러 번 표명해 그 때마다 계속 맡아달라고 요청했다"면서 "토진 스님도 前 주지스님 못지않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승 스님은 "신임 주지 토진 스님이 신도회와 합심하고 사찰운영위원회법에 의거해 조계사 운영을 잘해주기 바란다. 강북불교의 중심 역할을 제대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

토진 스님은 "신도회와 화합해 부처님과 총무원 대중 시봉을 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총무부장 영담 스님, 기획실장 원담 스님, 재무부장 상운 스님 등 총무원 집행부 스님을 비롯해 이대각심 신도회장, 구자선 신도회 고문 등 조계사 신도 1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조동섭 기자

세계평화 위해 마음 모으자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불교도대법회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회장 의륜 서주범 스님 · 근본불교조계종 창종주)는 3월 23일 옥천 명가컨벤션센터에서 부처님 출가재일을 기념하고 민족 화합과 평화를 기원하는 불교도대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총재 인왕 스님을 비롯해 부총재 현광, 청원, 신풍 스님, 회장 의륜 스님 등 회원 종단 지도자들과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대회장 대천 스님(한국불교지장조계종 종정)은 대회사에서 "하루속히 남북이 원만하게 합의해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진실하고 성실한 교류를 이루기를 염원한다. 남북교류를 통해 민족과 국가의 완전한 통일과 세계평화의 새로운 미래를 염원하자"고 말했다.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6대 회장 의륜 스님은 법어에서 "6000만 민족이 크게 화합하니 평화통일이 온 민족의 원이라, 조국이 원하는 것은 분단의 통일이요 민족이 원하는 것도 통일을 이룸이다(六千萬民 大和合, 平和統一 全民願, 祖國念願 分斷統, 民族念願 統一成)"라고 말했다.

행사에는 자비실천운동본부 회장 해광 스님의 주창으로 "민족화합과 인류평화 건설에 앞장서고, 자유, 평등, 자비정신 실천과 함께 불국토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감정을 배격하고 6월 총선이 공명정대하게 치루자"는 결의문도 채택됐다.

혜철 충청지사장

생명윤리 권위자들 20일 동화사 찾아

3월 18~19일 대구에서 세계이목을 집중시킨 2010 생명의학연구윤리 국제학술대회가 열린가운데 20일 관련 석학들이 동화사를 찾아 한국불교를 체험했다.

이날 동화사를 찾은 이들은 스테판 로젠펠트 미국 의학연구윤리심의기관 회장, 데이비드 포스트 부회장, 멜로디 린 미국보건성 임상연구안전국 부회장 등 10여명으로 대구 팔공산을 중심으로 뿌리내린 한방과 관련된 약사신앙을 견문했다.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은 "불교는 평화의 가치, 자비 사상, 생명의 정신을 품고있다. 특히 약사신앙이 발원한 팔공산이 가진 치유의 힘을 통해 대구가 의약분야의 세계적 중심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천년 지혜 대장경에서 미래를

2011 축전보고대회… 대구시 별도 행사



대장경축전 조직위가 2011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개최를 1년여 앞둔 3월 25일 합천 해인사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고려대장경 간행 '1000년'을 기념하는 2011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개최를 1년여 앞두고 해인사와 경상남도, 합천군으로 구성된 대장경축전 조직위원회는 3월 25일 참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보고대회에는 김태호 경남도지사, 해인사 선각 스님, 심의조 합천군수 등 주최 대표와 함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최병국 국회정각회장, 주호영 특임장관 등이 참석했다.

또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 종회의장 보선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혜총 스님, BBS불교방송 이사장 영담 스님 등이 함께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회에 앞서 박재완 청와대 국정수석이 대독한 축전에서 "대장경은 나라가 위난에 처했을 때, 한마음으로 모으는 평화와 화합의 원력이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자랑스런 문화유산을 온 세계에 알려 국격을 높이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직위원장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대장경 천년을 맞아 이제는 잘 관리하고 보관하는 것보다 국민 속에 널리 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천년의 운명, 미래의 지혜'라는 대회 캐치프라이즈처럼 한국불교의 정신과 고려의 기술, 끈기의 한국인의 민족성이 잘 드러난 대장경을 알리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축사를 통해 "한국불교의 정신과 선조들의 마음을 담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갈등을 해결하자"고 말했다.

대장경 축전은 2011년 9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45일간 합천 해인사와 합천군 가야면 행사장, 창원 컨벤션센터 등지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남도와 함께 대구시도 부인사 대장경(초조대장경) 조성 1천년을 맞아 대구육상대회 기간인 20011년 7월 1일~9월 4일까지 초조대장경 축전을 연다.

부인사 대장경은 해인사 팔만대장경에 앞선 최초의 대장경으로, 1011년에 제작돼 2011년이면 정확히 조성 1천년이 된다.

대구시는 축전기간 중 △2011명의 스님이 3일간 대장경을 윤독하는 '초조대장경 전장(轉藏)대회' △실크로드를 통한 천년 대장경의 재연 △국가 축제인 팔관회를 새롭게 해석한 '밀레니엄 팔관회' △1000명의 대구시민이 참가하는 '초조대장경 이운'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나눔으로 희망 만들어요"

국제구호 '나누우리' 창립… 사잔법인 추진

국제구호활동을 통한 자비나눔 실천도량 '나누우리'가 3월 24일 한국불교전통문화 전승관에서 창립법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행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스님을 비롯해 나누우리 이사장 월운 스님 등 2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이사장 월운 스님은 개회사에서 "세계의 원조를 받던 한국이 원조를 하는 나라로 거듭났다"며 "나누우리가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나누우리 고문으로 추대된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나누우리가 인류의 공동행복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종단의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를 약속했다.

나누우리 봉사단장 송진여심 보살은 발원문 봉독을 통해 "우리가 이웃 아픔을 몰랐음을 부처님 전에 참회한다"며 "이제 세상의 빛과 행복을 위해 내 것을 나누어 희망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자비나눔 실천도량 '나누우리'가 3월 24일 한국불교전통문화 전승관에서 창립법회를 열었다.

법회에서는 '나누우리' 봉사단장 진여심 보살, 부단장 무량성, 성심월 보살, 충남지부장 지엄스님, 전북북부지부장 진성 스님, 경북지부장 법도 스님, 경남남부지부장 진화전 법사, 제주지부장 탄해 스님, 경기북부지부장 보원 스님, 대전지부장 월조 스님, 경남동부지부장 만우 스님, 전남지부장 일진 스님 등 나누우리 봉사단장과 부단장, 각 지부장 등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도 진행됐다.

나누우리는 2010년 △국내외 절대빈곤층 및 소외계층 구호 △낙후지역 개발지원 △재난지역 긴급구호 및 지원 △ 나누우리 봉사단 결성 △자료집 발간 등 사업을 전개하고, 연말까지 사단법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동섭 기자

원효 · 일연 · 설총을 기리며…

경산에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

경북 경산에 원효 스님(617~686)과 일연 스님(1206~1289), 설총(660~?) 등 삼성현을 기리는 역사문화공원이 조성된다.

경산시(시장 최병국)는 3월 19일 경산시 남산면 공원부지에서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前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지역 정관계 인사, 주민 등 1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은 경산시 남산면 인흥리 26만2774㎡(8만여 평) 부지에 예산 463억원을 투입해 2012년 6월 준공할 계획이다.

공원에는 원효 · 일연 · 설총 등 삼성현 관련 자료를 모아둔 역사문화관을 비롯해 원효각, 일연각, 설총사, 삼성현 기념탑, 성현의 길, 삼성현 단소 등 관련 시설물이 들어선다. 또 다목적운동시설을 갖춰 지역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前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격려사에서 "원효 스님과 설총, 일연 선사는 경산에서 출생한 우리 민족의 큰 스승"이라며 "역사문화공원 조성은 삼성현의 사상과 정신을 계승하는 역사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병국 경산시장은 인사말에서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조계종,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기관의 협조 속에 국가적 사업으로 승화돼야 한다"며 "정신문화 교육의 장이 될 삼성현 공원이 경산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는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을 경주의 불교문화권, 안동의 유교문화권, 고령의 가야문화권과 대등한 정신문화 유적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조동섭 기자

금강대 교육역량강화 사업 3회 연속 선정 동국대는 탈락

금강대(총장 성낙승)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교육역량강화사업에 2008~2010년 3회 연속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금강대가 이 사업에 선정돼 지원받는 지원금은 7억2300만원으로, 2008년 1억4700만원, 2009년 6억5500만원에 이어 증가된 금액이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고등교육과정 내실화와 교육인프라 확충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올해 전국 200여 대학 중 85개 대학이 선정됐고, 충남 대전권 대학 중에서는 금강대 등 10개 대학만이 선정됐다.

한편, 동국대는 이번 사업에 탈락했다. 동국대 관계자는 "서울 · 경주캠퍼스와 합쳐서 평가를 해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100자 뉴스

한국종교지도자협 '자살예방 선도' 성명발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와 보건복지가족부는 3월 24일 프레스센터에서 '자살없는 건강사회 구현! 종교지도자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자살예방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에는 불교, 기독교, 가톨릭,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 등이 동참했다.

마주협 이주민 쉼터 지원사업 결과 발표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회장 지관)는 3월 25일 '2010년 이주민 쉼터 및 센터 지원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선정된 단체는 구미 꿈을이루는사람들(자조모임 공간개설, 400만원, 광주 해뜨는다문화가족복지센터(센터 시설 보강, 500만원), 안양 안흥사(이주민가족지원센터 개소, 400만원), 광주 아시아밝음공동체(모국동화번역, 200만원), 오산 행복한이주민센터(우리가쉐프, 200만원), 광주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사회적응프로그램, 100만원), 여주이주민지원센터(다살림공동체, 200만원) 등이다.

경기도 · 봉녕사 시민문화공원 조성 MOU 체결

경기도(도지사 김문수)와 수원 봉녕사(주지 묘엄)는 3월 23일 봉녕사에서 시민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는 7월부터 광교산 녹지축인 봉녕사 일대 12만8000㎡(공원부지 5만㎡, 봉녕사부지 7만8000㎡)에 총 265억원을 투입해 주민 휴식공간과 진입로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봉녕사는 사찰부지에 불교사찰음식연구소와 어린이집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관음종 묘각사서 제38차 연수교육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3월 22~24일 총본산 낙산 묘각사에서 제38차 연수교육을 봉행했다. 연수교육에서 관음종 52명의 스님이 수료증을 수여 받았다. 홍파 스님은 "관음종이 과거보다 앞으로 사회에서 해야 할 책무가 막중하다"며 회향을 강조했다.

군종교구 백담사서 군승안거, 141명 참가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자광)는 3월 23~25일 인제 백담사에서 141명의 군승 및 민간법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승안거를 봉행했다. 이번 안거기간에는 독신 조항 도입 이후 종단 소속 일원으로서 애종심을 고취하기 위해 포살 및 정진 수행, 분한신고와 관련된 초청특강 등이 개최됐다.

조계종 문화재사찰 입장료 전자발권시스템

문화재사찰 입장료 수납이 통합전자발권시스템으로 변모한다. 조계종 총무원과 (주)아이모인은 3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문화재보유사찰 문화재구역입장료 통합전자발권시스템 도입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다문화센터 어린이 합창대회 5월 17일까지 접수

한국다문화센터(공동대표 보선 · 김의정)는 5월 30일 오후 2시 남산 국악당(한옥마을)에서 전국다문화 어린이 합창대회를 개최한다.

이에 3월 17일~5월 17일 대회에 참가할 합창단(중창 8개, 합창 8개 팀)을 모집한다. 참가자격은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자유롭게 구성하되 팀의 50% 이상이 다문화 어린이로 구성돼야 한다. 인원은 지휘 · 반주자를 포함해 한 팀에 중창단 10여명 합창단 20~30명으로 지정됐다. 예선은 단원들의 노래를 담은 CD, 동영상, 음원 중 한가지로 제출해 평가한다.

최종 대회참가자 발표는 5월 20일로 예정돼있다.





대각교단 승가대학원 승정(종사)학부

제2기 풍광교육 학인 (법계: 대종사, 종사, 등)모집

1. 입학자격 : 각 종단 종정 및 총무원장, 원장급. 품계 승정(종사)급이상
2. 구비서류 : 본원 소정의 승정교육신청서 1통, 사진1매.
3. 수강기간 : 3개월이내 5회 교육 (당일 4시간)
4. 개강일시 : 불기2554년 4월 9일(금) 오후 1시
5. 수강장소 : 대구시 북구 읍내동1122번지 대승사 대각교단 승가대학원
6. 총 무 처 : 053)325-5288. 교학처 053)325-0400

대각교단 승가대학원 원장 원당대종사
승정학부 교무처장 석묘각. 총무처장 석능인.

장기이식 제도 조속처리 촉구

장기이식법 시행 10년… 정착은 멀어

국내 장기이식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국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는 모두 59만3679명으로 10년 전 4만6938명보다 무려 12.6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중 사후 관리를 받은 사람은 43.5%에 불과 했으며, 이중 실제로 장기기증을 한 사람은 6.5%에 그쳤다. 이와 관련 장기이식 관련법을 강화해 장기기증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장기기증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요구 또한 높다.

이런 가운데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와 학회에서 장기이식법에 관한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대한이식학회(이사장 조원현)는 3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09년 2월 이애주 국회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 전면개정안'(이하 장기이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에는 불교(생명나눔실천본부), 가톨릭(한마음한몸본부) 등 종교계 장기이식 기관과,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의 대표자들이 참여해 장기이식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다.

이애주 국회의원이 건의한 이 법안은 △뇌사 추정자 신고제 도입 △뇌사판정위원회 폐지 △장기구득기관 설립 등을 명시하고 있다.



3월 23일 열린 장기이식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생명나눔실천본부 정복자 사무총장, 대한병원협회 지훈상 회장,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 김용태 신부, 대한이식학회 조원현 이사장이 국회에 장기이식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다.

이애주 의원은 "뇌사추정자 신고제는 뇌사로 추정되는 환자를 담당 의료인 등이 바로 신고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 법 · 행정 전문인으로 구성된 現 뇌사판정위원회를 폐지하고 뇌사판정전문 의료인을 두자"며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애주 국회의원 등이 2009년에 발의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장기기증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조항 등을 담고 있다는 게 대한이식학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대한병원협회 지훈상 회장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간절히 바라지만 법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훈상 회장은 "뇌사자의 판정기준과 범위와 관련한 문제로 이른바 존엄사법안에 포함된 존엄사와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고도의 생명 윤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사회적 논란이 첨예한 부분이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충분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뇌사판정기구를 없앨 경우 뇌사 판단 기준 등이 자칫 허술해 질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이애주 의원은 "뇌사판정기구를 없애자고 법안을 내놓았지만, 간소화 시키는 방안도 고려 해 보겠다"고 말했다.

대한이식학회는 "장기이식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많은 환자들은 장기 기증자를 기다리며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장기 기증자를 관리해야 하는 각 의료인과 기관들 또한 기존 체제와 개정안의 새로운 체제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어 "장기기증을 받는 것이 환자의 수명을 연장하고 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뇌사자 장기기증을 장려해야한다"고 말했다.

뇌사는 뇌질환이나 사고 등으로 뇌 기능이 손상돼 회복이 절대 불가능한 상태로 정의한다. 뇌사자는 연명치료 장치로 일시적으로 심장박동을 유지 할 수 있지만 2주 안에 심장박동이 정지돼야 하는 상태이다.

한마음한몸 관계자는 "뇌사자 장기기증이 활성화되면 지금보다 4~5배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하지만 정확히 뇌사로 판정되지 않은 사람에게서 장기를 적출하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또 다른 생명의 존엄성을 거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기증의 본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한이식학회 김순일 위원장은 "장기 수혜자가 장기이식의 후 5년간 생존율이 미국은67.2%~80.5%이고, 우리나라는 92.3%이다. 장기이식은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며 장기이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태아 살리기 범국민대회

낙태 근절 5대 정책과제 제안

낙태 시술과 관련 산부인과 의사 · 국가 · 국민에게 낙태 근절을 호소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낙태 근절 운동을 벌이고 있는 프로라이프 의사회(회장 차희제)가 3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태아 살리기 범국민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범국민 대회에는 불교인권위원회 진관 스님, 경기 구담사 주지 지율 스님(불교), 가톨릭, 개신교 단체 대표들과 의사, 일반 시민 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낙태 근절을 위한 5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100만인 서명운동의 시작을 선포했다.

이날 발표된 5대 정책 과제는 △출산 장려금 · 장애인 보조금 증액 △다자녀 가정에 주택분양 · 교육 등에 우선순위를 둘 것 △미혼모 ·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초 · 중 · 고 성교육 시간 확대 △성교육 전담 교사 배치하는 것 등이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100만 명의 서명을 모아 낙태 근절을 위한 5대 과제를 정부에 제출해 시행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차희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간 34만 여 건, 하루에 4000여 건의 낙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낙태는 사회 윤리를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의 생명 의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3월 24일 열린 '태아 살리기 범국민대회'에서 낙태에 반대하는 의사들과 천주교, 불교, 기독교 단체 대표, 일반 시민들이 낙태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한국은 법으로 낙태를 금지 하고 있다. 형법 269조에 벌금 · 징역으로 임산부의 낙태를 금지 법령이 있으며, 낙태 시술을 한 의사에 대해서도 2년 이하의 징역(형법 270조)을 규정 하고 있다.

또, 모자보건법 14조에는 낙태 허용한계가 명시돼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정신장애나 신체 ·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등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간 임신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해할 경우 등이다.

하지만 고려대학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수립 대책'(2005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29.8%의 여성이 낙태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95.6%가 불법 수술이다. 이들의 낙태 수술의 주된 이유는 사회 · 경제적 어려움(산하제한 제도, 양육 부담)에서 였다.

이날 발표된 대국민 호소문에는 "지금 우리는 자식을 죽이는 행위를 자신의 권리하고 말한다. 이는 정부 · 의사 · 국민 모두의 책임 인만큼 반성하고 생명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자"고 명시돼있다.

이어 호소문에는 "의사는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본분인 사람들이다"며 "의사들이 생명을 죽이는 일에 동조하고 곤란한 처지에 있는 여성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챙겨 온 것을 반성하자. 이제 무감각하고 죄의식 없이 생명을 죽이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박성철 한일병원 산부인과 과장은 낙태 후유증을 소개하며 "낙태는 태아 · 여성의 건강과 행복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선주 기자

노인요양보호사 교육원 개원

조계종 교구본사 최초로 마곡사(주지 원혜)가 노인요양보호사 교육원을 개원했다. 노인요양보호사 교육원은 3월 15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개관식을 거행하고 17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교육원은 수강생들에게 △노인복지 이론 △요양보호사의 역할 △노인요양보호사로서 숙지해야 할 간호법 등을 3주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가르친다. (041)841-6221

박선주 기자

은행 · 학교 불교복지사업에 관심

은행과 학교 등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불교계 사회복지사업에 관심을 쏟고 있다.

KB국민은행 산본지점(지점장 김재영)은 3월 19일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다래)을 방문해 장애인들을 위한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인 다래 스님은 "KB국민은행 산본지점은 사회협력지원부가 신설된 지난 2006년부터 장애인들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며 "후원금은 지역사회 장애인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과 우리은행 종로영업본부가 3월 19일 자매 결연을 맺고 같은 날 한성대와 협약을 체결했다.

우리은행 종로영업본부는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가는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사회복지시설이기에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을 '우리 사랑 나눔 터'로 선정했다. 향후 지역 영업본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기부활동과 임직원과 가족들이 정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이번 한성대와의 협약은 노인복지정책 등에 관한 이론개발과 상호 자원을 위한 협력과 개방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 취지로 이루어졌다.

박선주 기자

해외 WORLD

구글, 이타주의 경제 선도하나?

중국서 철수 결정

중국 상하이에서 발행하는 영자지 차이나비즈니스(3월 19일자)는 "구글(google)의 중국 철수가 4월 10일로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재정적 이익보다 인권이 우선이라는 구글 경영진의 신중한 판단에 의해서 내려진 결정이다. 더욱이 지난 1월 구글의 지메일(gmail)이 해킹 사건의 범인이 중국인으로 밝혀지면서 이번 철수 결정은 급물결을 탔다.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 시장에 합류하려는 움직임에 거스르는 이번 구글의 결정은, 언론의 자유와 보호에 대해 되짚어 보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2006년 구글은 중국정부의 일부 검열에 동의한다는 조건으로 google.cn(구글닷차이나)를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티베트와 티베트 내부의 갈등은 물론 1989년 북경대학살, 파룬궁 탄압에 관련한 검색과 정보 제공을 전면 차단했다. 뿐만 아니라 앞의 사실 제공이 중국민의 자유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역설, 구글로 인해 중국의 이미지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중국은 구글로 인해 훼손된 이미지 회복을 위해 티베트 망명정부의 달라이 라마 대변인을 중국에 초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회담 결과는 진전이 없었다.

13억 중국 인구를 대상으로 한 검색엔진 시장에서 구글은 31% 이상의 시장을 확보해 오고 있다. 야후는 10% 미만이다. 4월 10일, 구글이 중국에서 짐을 싸게 된다면 이후 전 세계 온라인 시장의 순위 변동은 필연이다. 과연 구글의 경영 지도자가 이번 결정을 고수할지도 주목된다. 중국정부가 고심하는 부드러운 이미지의 중국화 전략에 구글의 행보는 적지 않은 골치 덩이가 아닐 수 없다.

인도 다람살라 = 가연숙 객원기자 omflower@gmail.com



구글이 중국에서 철수키로 함에 따라 '부드러운 중국' 이미지가 훼손됐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의 대통합 선포



이 땅의 모든 종교신앙인들이여!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종교의 벽을 헐자.
반만년 민족신앙을 오늘 다시 숭앙하자. 한겨레 한터에서 한 이치로 함께하자.

이 땅의 존귀하신 종교 신앙인 들이여!

국조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수많은 종교가 탄생하여 3생을 오가며 절대적 존재로 때로는 미혹한 모습으로 성현, 도사, 도인, 신주, 만신, 신딸 등으로 불리며 8부중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력화된 기성종교에 밀려서 미신이란 이름으로 폄하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와 더불어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한축을 이끌어 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이신 석연 대종사께서 전법에 진력하시며 이 땅의 전통(민속)종교인 및 철학인들의 권익과 보장책을 숙고하던 중, 이 세상에 절대적 유일신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을 접목하여 대도를 구성하고 홍익인간 이화세계사상으로 극락정토를 구현하는 새로운 회상을 열고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을 창종하여 선포하니 우리모두 이 결사에 동참하여 교화의 대열에서 함께하고 역량과 사명을 다해 새로운 세상을 엽시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과 함께하실 신앙인 여러분을 열린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종교의 성직자, 신도, 교도, 법사, 전도사, 교화사, 포교사, 철학인, 도사, 도인, 작명가, 신딸, 만신님들 차별없이 환영합니다.

▣ 입종 및 입회원서 접수 :
본종 총본산 수련도량 불탑사 외 종단에서 지정한 교구청 및 특설사무처

▣ 동참 특전 (소정의 서류제출 완비하고 등록한 분에게는)
- 본 종단 의식교전 및 종헌 종법 제공
- 관할관청에 등록하여 재산관리 세무회계를 주선
- 체계화된 교육으로 종교지도자로 양성함
- 사찰, 사암, 포교당등록증, 법위증, 사증 등을 교부
- 종단의 각종 회의에 참석 특전, 중요임원 출마권과 선출권 부여함
- 행정, 교육, 운영 관리에 뜻 있는 분 특별우대함

총본산 수련도장 설악산 불탑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산 100-1번지 / 전화 033)671-7751 / 핸드폰 019-248-7751

개창주(開創主) 석연 대종사 창종위원 : 지선, 무생, 무풍, 천풍

지장암, 조선후기 불교미술 산증인

한국불교미술사학회, 지장암서 '지장암의 불교미술' 학술대회

지장암은 서울 종로구 창신동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한 작은 암자이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지장암은 보물 제1621호 목비로자나불좌상을 비롯해 조선 후반기를 대표하는 희귀하고 귀중한 불상 · 불화 · 불구 100여 점 이상 소장하고 있다.

한국불교미술사학회(회장 문명대)는 3월 20일 지장암에서 '지장암 불교미술의 성격과 의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기조발표 '지장암의 불상과 광해군 발원, 목(木)비로자나불상의 의의'를 통해 "이 작은 사찰에는 44점의 불상과 우리나라 유일의 수(繡) 괘불화와 더불어 38점의 불화 등 많은 불교문화유산이 비장돼 있다"며 "조선시대 후반기 불교미술사의 산증인이자 역사가 한자리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는 지장암을 조선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충격에서 벗어나 전국적으로 불교사원 건립과 불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던 1655년 전후 창건된 사찰로 보고 있다.

지장암은 원래 현 위치에서 동쪽으로 400여 미터 떨어진 서울 홍수동(현 창신동)에 소재했던 것을 1924년 옮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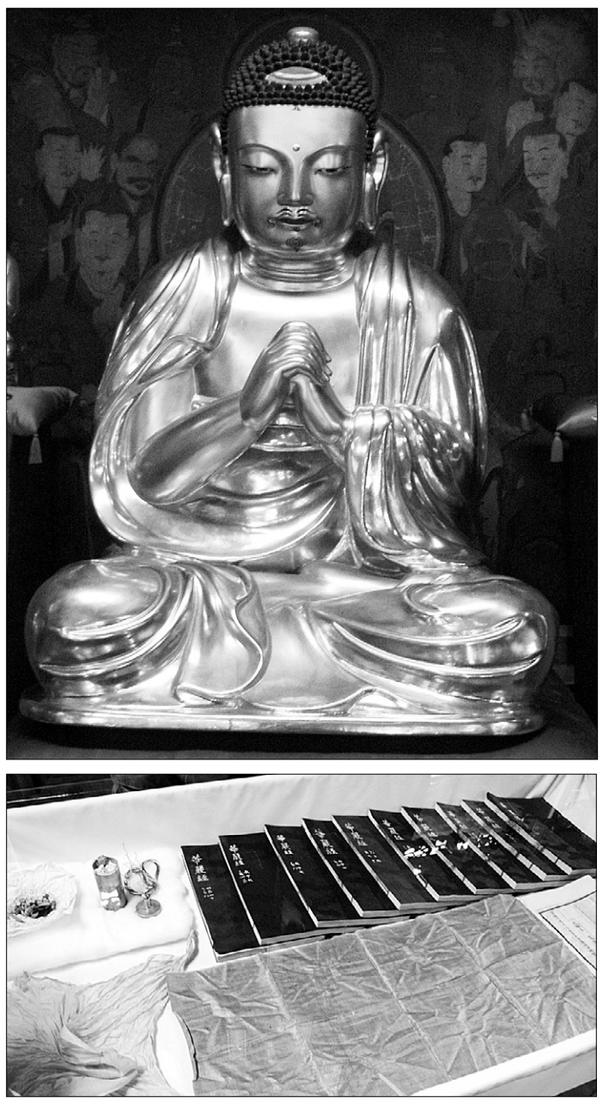
지장암에는 14종 49구나 되는 많은 불상이 봉안돼 있다.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작품이 대부분인 이 불상들은 지장암에서 조성된 경우도 있지만,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기도 · 서울 · 황해도 등 전국에서 조성된 것이다.

대표적인 불상이 1622년 제작된 '지장암 대웅전 현진작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이다.

대웅전 중앙에 놓인 이 불상은 높이가 117.5㎝달하는 중형의 목조불상으로 조선중기 승병장이었던 벽암 각성(碧巖 覺性 · 1575~1660) 스님의 감수 아래 현진(玄眞), 응원(應元) 등 10여 명의 조각승들이 조성했다. 1924년 강재희(姜在喜) 거사가 지장암을 중창하면서 이곳으로 옮겼다.

문 명예교수는 "조선시대 17세기의 조각승 또는 유파들은 하나의 집단 내에서 일정한 지역을 근거로 불상을 조성했다. 이 때 합동작업에 참여한 조각승들은 당대의 명장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조성한 불상들은 시대를 대표할 만한 매우 중요한 작품들이었고,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이 대표적이다"고 설명했다.



보물 제1621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위), 비로자나불좌상 밑바닥에서 발견된 경전들과 복장품 및 후령통.

이어 문명대 명예교수는 "이 불상은 광해군(1575~1641)의 정비인 장열왕후가 직접 발원해 조성한 왕실 발원 불사라는 역사적인 가치와 17세기 전국에 걸쳐 활약한 대표적인 조각승들이 참여해 공동작업으로 이룩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윤미 한국미술사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지장암의 불화와 수(繡) 지장보살도'에서 "지장암에 전해지는 고불화 20종 50점은 대부분 19세기말~20세기 초에 제작된 것들"이라며 "이 중에서도 '대웅전 수 지장보살도'와 '수 괘불도'는 양적으로 빈약한 수(繡) 불화의 연구를 위한 매우 귀중한 작품이다"고 말했다.

이날 지장암 마당에서 공개된 수 아미타삼존 괘불도(1924년)는 수불화로서는 세로561.5㎝의 초대형 크기이다. 제작 기간만 무려 2년 6개월에 675명의 인력이 참여했다.

448×286㎝ 크기의 화면에 꽉 차게 수놓은 이 괘불도는 왕실 수사(繡師)의 작품답게 격조 높은 수기법으로 아미타 삼존불이 아름답게 표현돼 있다.

문명대 명예교수는 "괘불도 중에서는 유일하게 자수(刺繡) 기법으로 조성된 아미타삼존 괘불도는 일반 괘불화와는 달리 온화하면서도 입체적인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당대 최고의 화사가 바탕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역대 수불화 중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명예교수는 연구자료를 통해 "명단에는 3 · 1운동 33인의 한 분인 용성 스님의 이름도 있다. 용성 스님은 이 대작불사를 통해 나라와 백성들의 부흥을 간절히 염원했을 것"이라며 "또한 지장암 불사의 주요 인물인 왕실의 고관이었던 강재희 거사가 675명이나 되는 시주자를 모집하고 스스로 거금을 시주한 것은 일제 강점기라는 고난의 시대에 간절한 염원이 없고서는 이룰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동대문 밖 삼대 암자인 청룡사, 안양암, 지장암 뿐 아니라 도선사, 수국사, 불암사, 흥국사 등 많은 사찰은 구한말 고종 때 고위관료를 지냈던 강재희(1860~1931)거사의 불사가 큰 역할을 했다.

지장암 주지 정철 스님은 "강재희 거사는 조선말의 궁내부 고관으로 재직 중에는 고종황제의 칙령으로 불사에 진력했고 퇴임 후에는 손수 지장암을 중창하고 많은 불사를 주도한 위대한 불교인"이라며 "근대 불교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고 새롭게 조명해야할 진정한 불자"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불교미술사학회는 비로자나불의 복장품(腹藏品)을 공개했다.

이 불상 밑바닥에는 복장공이 있는데 이 안에는 <다라니> <화엄경> <법화경> 등의 경전이 있었다. 또한 안쪽에는 노란 보자기에 싼 불상, 불화를 조성할 때 함께 넣는 오곡(五穀) · 오향(五香) · 오약(五藥) 등의 복장품을 담는 은제 후령통(候鈴筒) 등이 들어 있었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개인 신행 정도와 기부액 '비례'"

감정기 교수 · 서찬영 법사 '정토학연구'서 주장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던 사회적 기부가 확산되면서 종교단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의 아이티 모금액이 12억 원을 돌파한 것을 비롯해, 태고종이 최근 국제구호단체 '나누우리'를 창립한 것이 그 예이다.

이런 가운데 "개인의 신앙생활 정도가 기부액과 비례한다"는 발표가 있어 눈길을 끈다.

감정기 교수(경남대)와 서찬영 법사(군수사령부)는 한국정토학회(회장 태원)가 최근 펴낸 <정토학연구>(사진) 제12집에 기고논문 '불교신자의 신앙생활특성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감정기 교수는 불자의 기부행위를 시간적 기부(봉사활동)와 물질적 기부(기부금)로 나누고 그것이 신앙의 정도 및 신앙생활상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설문 조사했다.

불자 22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사찰과 관련한 종교적 봉사에는 평균 1년간 2.03회, 봉사시간 2.63시간을, 종교 외적 봉사는 0.56회, 봉사시간 0.97시간으로 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들은 종교적 기부(사찰 시주)와 종교 외적(지역사회) 기부별로 각각 연 평균 8.87회 63만 6000원과 2.25회 20만 4000원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찰 내에서 봉사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는 물질적 기부도 함께 한 사람이 87.1%로 다수를 차지했다. 종교 관련 물질적 기부 및 봉사 유경험자들은 상대적으로 종교외적 기부나 봉사에도 더 적극적이었다.

감 교수는 "이러한 현상은 기부나 봉사에 대해 학습 · 확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응답자의 신앙생활을 살펴본 결과 평균 신앙생활 기간은 15.9년, 정기법회 등에 참여하는 횟수는 월 평균 4.9회였다.

감정기 교수는 "신행생활을 오래하고 수행을 적극적으로 하는 신도일수록 기부액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민간부문 사회복지의 일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종교계 기부행위가 개인의 신앙의 깊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감 교수는 "내적 이기심과 욕망을 관리할 줄 알게 될 때, 기부에도 더욱 긍정적이거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며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신자의 수행수준을 높이고 내재적 신앙의 역점을 둔 신앙생활 지도를 통해 개개인의 물질 · 시간적 기부의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감정기 교수는 "특히 우리나라 종교인구 가운데 불자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들의 기부 참여 수준의 변화가 전체 사회의 기부 수준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따라서 불자들이 수행과 신심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사찰은 물론 범종단적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감 교수는 불교계 기부문화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감 교수는 "교구본사와 지역사회 중심 사찰들이 연합해 신도들의 자원봉사활동 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볼 필요가 있다"며 "사찰은 교리강좌 · 정기법회 등을 통해 이타적 측면에서의 기부의 가치와 수행자의 사회적 책임을 가르쳐 기부와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기존 오류 잡은 '능가경' 해석서 나와

박건주 외래교수 7권본 '능가경 역주' 펴내

<능가경>은 선종의 초조인 달마대사의 뜻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전이다.

초기 선종의 소의경전이며 그 뿌리가 되는 <능가경>이 후대에는 거의 도외시되고 점점 잊혀져 가게 되면서 초기 선종의 선법도 올바로 전승되지 못한 채 왜곡되고 곡해돼왔다.

한국불교는 회통, 융합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한국불교는 선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건주 전남대 외래교수는 최근 7권 본 <능가경 역주>(운주사 刊)을 펴내고 초기 선종의 가르침을 집대성했다.

현재 능가경은 4 · 7 · 10권본의 세 역본이 전해지는데 7권 본이 나중에 나온 것으로 나머지 두 본의 오류를 바로잡아 주역한 것이다.

박건주 외래교수는 "한국선은 '중국화된 선'의 범주에 속한다 해도 무방하고 그 중에서도 임제선 · 간화선의 법맥을 잇고 있다"며 "그러나 달마로부터 시작된 선은 6조 혜능을 거치면서 큰 변화를 겪고 이후 각각 특징을 갖는 분파들이 형성되면서 중국선 초조인 달마의 가르침과 초기 선종의 정신은 사라져 버렸다"고 말했다.

달마 대사는 2조 혜가에게 <능가경>을 건네며 "이 <능가경> 4권을 너에게 부촉한다. 이 경은 여래심지(如來心地)의 요문(要門)이며, 모든 중생을 개시오입(開示悟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록에 의하면 혜가의 제자 10인이 <능가경> 주석서를 저술고, 달마대사도 제자의 청에 의해 <능가요의>를 저술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박 외래교수는 "이처럼 초기 선종에서 <능가경>은 절대적 중요성을 가졌고, 달마 이래의 선종을 '능가종(선)'이라고 칭했다"며 "원효 대사도 <능가경>에 대해 5종의 주석서를 저술했다고 하니 능가경이 얼마나 중요한 전적인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외래교수는 "<능가경>의 역주본을 통해 잊혀진 초기 선종의 가르침과 행법의 전모가 올바르게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새만금 사업 성공을 위한 기원대재

- 무사고 1만 점등 기원 -

귀의삼보하옵고

새만금 사업의 성공 및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기원하며 새만금 사업에 희생된 바다 생명들의 넋을 위령하는 '새만금 사업 성공을 위한 기원대재'에 초대합니다.



◆일 시 : 2010년 4월 4일 일요일
오후 1시 (음) 2월 20일

◆장 소 : 새만금 가력 배수갑문 광장

◆주 최 : 한국불교 태고종
전북특별교구 종무원

◆주 관 : 한국불교 태고종 전국 신도회

◆문 의 : 063) 246-1666

제12회 진각논문대상 공모

대한불교진각종은 진각종 교학 확립과 불교 및 밀교연구 발전을 위해
***'제 12회 진각논문대상'**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분 야	공모편수	주 제		비 고
		지정주제	자유주제	
진각종 교학	2편	계율의 성립과 변천문제	제한 없음	지정 주제 내용 지정 주제 공모 취지 www.jingak.or.kr 진각논문대상 공모 광고에서 다운로드
불 교 일 반	3편			
밀 교 일 반	3편			

▶공모분야 별 지정주제 응모자에게 우선 선정권을 부여합니다.

▶**응모자격** : 제한 없음.

▶**전형방법** : 논문계획서 1부 및 인적사항 1부(소정 양식 : 진각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공모일정** : **접수 마감 – 2010년 5월 14일(금요일)**
당선작 발표 – 2010년 6월 18일(금요일) 예정
당선 논문발표회 – 2010년 11월 12일(금요일) 예정

▶**당선작 상금** : 최우수 1편(500만원), 선정 7편 (편당 250만원)

※ 본 논문대상 당선작에 한해 타 논문 공모제에 당선되었거나 기타 연구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당선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접 수 처** : 136-865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 종학연구실
인터넷홈페이지 : www.jingak.or.kr / e-mail : jingakrcsr@hanmail.net
전화 (02)913-0133, 0134 / 핸드폰 010-9005-0751

대 한 불 교 진 각 종 교 육 원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대학에서 만난 친구가 절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곳은 절이 아닌 점집이었습니다. 점집 보살에게 속아 많은 빚을 지게 돼 학교도 다니지 못하게 됐죠. 그러다가 스님을 만나 불법을 배웠습니다.

남은 빚을 갚기 위해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일하며 불교관련 서적을 보고 스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내 마음이 법당이다"라고 생각하며 불심을 키웠습니다. 점쟁이의 사기로 받았던 상처도 아물고 용서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외국인 남자를 만났고, 지금은 한국을 떠나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답답함은 커져만 갑니다. 양보도 용서도 하지 않는 제가 세속에 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과 마음을 잡을 수가 없고 스스로를 제어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경전이며 염주에도 이젠 손이 안갑니다.

양보도 용서도 않은 채 늘 후회만 가득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내 안의 해법에 귀 기울이세요

A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인연을 만나게 되지요. 부처님의 정법을 만나기 위해 조금 돌아가기는 했지만 좋은 인연으로 정법을 만났으니 큰 복을 받으신 겁니다. 스님의 바른 인도로 열심히 신행 생활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잘 안되고 있군요.

문제를 풀 열쇠는 자신에게 있습니다. 순리에 따라 접근하면 해결 방법이 의외로 담담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체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적인 것에 몰두하기보다는 자신의 문제부터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본질부터 생각해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것인지 보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했던 책임감 있는 행동들이나 열심히 신행 생활을 했던 저력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가? 행복해지는 길은 무엇인가? 지금 나의 행동이나 선택이 정법에 따르는 것인가?"를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행복으로 가는 길이 보이실 겁니다.

Q 입양한 자녀를 키우며 힘들게 한평생을 보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이가 전혀 가족 안에 녹아들지 않습니다. 본인도 친척들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쩌면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미혼모나 범죄자가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이에게 기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생지옥 같은 생활을 하며 여기까지 온 길이 너무 멀고 힘들었는데 앞으로 이 아이에게 과연 희망이나 미래가 있을까요?

A 입양한 딸을 키우며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군요. 물론 자식을 키우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느끼는 것이지만, 그래도 기대를 아주 하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요.

자식은 집착도, 아상도 버릴 수 있게 하는 큰스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께서는 자식을 키우면서 남과 다른 상황이 하나 더 있어서 마음고생을 더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혼모나 범죄자가 되지 않음에 고마워하신다니 정말 훌륭한 엄마십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좋은 에너지가 자녀에게 알게 모르게 전해질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어릴 때 입양했다고 해도 아이의 무의식에 자리잡고 있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한 불안이 분노와 뻔뻔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요. 자녀는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입양 자녀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서로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엄마로서 최선을 다한 뒤에는 어떤 미련도, 걱정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힘들게 키우셨지만 이제 거의 성인이 다 된 자녀의 인생은 자신의 몫이라고 봐야겠지요.

하지만 포기나 방임이 아닌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하고 진심으로 대한다는 전제를 필요로 합니다. 엄마의 정성과 공덕이 전해져서 자녀가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24시간 자비의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성상담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의전화)

골드 미스터, 살림도 내 손 안에!!

행복법당 탐방
과천종합사회복지관


남성요리교실 '골드 미스터가 간다' 수강생들이 요리강사의 시범을 보며 메모를 하고 있다.

싱글남 위한 요리강좌 '골드 미스터가 간다' 인기
아버지 역할 강화 사업 · 건강가정 만들기 운영

복지관마다 어린이 · 여성 · 노인 등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은 많다. 그러나 남성을 위한 복지시설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 남성이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에 치중해 많은 시간을 직업 활동과 사회생활에 소비하느라 복지혜택을 누릴 기회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지 않다.

이런 가운데 과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추교선)이 시대의 변화에 맞게 남성들을 위한 특화프로그램들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남성요리교실 '골드미스터가 간다'가 열리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이면 건장한 남성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모인다. 3월 17일 강의에는 눈이 와서 그런지 20명 정원을 꽉 채우던 평소와는 달리 5명이 결석했다.

"당근은 왜 미리 데쳐 놓는 거죠?"

"왜 돼지고기 대신 소고기를 넣는 건가요?"

이날 배우기로 한 메뉴는 어묵조림과 된장찌개. 수강생들은 강사의 요리시범을 보며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복지관에서 나눠준 레시피에 꼼꼼히 메모도 한다.

강사의 요리시범이 끝나자, 수강생들은 조로 나누어 역할분담을 한 뒤 된장을 풀고, 야채를 썰어 볶는다. 모양새가 불안(?)하지만 곧잘 해낸다. 드디어 완성!

수강생들은 조별로 나눠 앉아 요리하기 전에 지어 놓은 밥과 완성된 음식으로 저녁식사를 한다. 오늘은 간이 좀 맞지 않아도 맛있다. 부엌에도 잘 들어가지 않던 내가 이제는 혼자서도 요리를 할 수 있게 됐으니 말이다.

김남대성(34 · 과천시)씨는 "예전에는 요리를 한 번도 안 해 봤는데, 이 프로그램을 듣고 웬만한 요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와이프가 출산을 해서 아이를 보느라 음식 할 시간이 없는데 내가 대신 음식을 해주면 매우 좋아한다"고 말했다.

박유식(47 · 과천시)씨는 "부엌에도 들어가지 않던 내가 요리를 배우기 시작하니 '이건 남녀 구분지을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지난 번 배운 아구찜을 가족들에게 선보였더니 가족들이 매우 좋아한다. 지금은 주위 친구들에게 우스갯소리로 나이 들어서 부인한테 내쳐지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싱글남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프로그램은 기러기아빠, 미혼남성, 주말부부로 아내와 떨어져 지내는 남성들을 위해 준비됐다.

참여자들은 20명으로 과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20대 후반~70대의 남성들로 구성됐다. 2009년 한 해 동안 4회에 걸쳐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그 회가 늘어날수록 참가 인원도 늘어나고 있다.

민경숙 요리강사는 "수업에 참여하는 남성분들은 굉장히 열성적이다. '남자들도 밥 짓고 반찬 만드는 일 정도는 스스로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아버지들도 많다. 그러다보니 재료 다듬기, 씻기, 썰기 등 기본동작부터 가르치며 요리 품목도 실생활에서 쉽게 해 먹을 수 있는 미역국, 꽈리고추멸치볶음 등 소박한 음식들로 준비한다"고 말했다.

복지관은 이밖에도 '아버지 역할 강화 사업'이라는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에는 아버지 10여 명이 참여해 성격유형검사(MBTI), 자녀와의 대화법, 부부대화법 등 집단 상담 관련 도움을 받고 있다.

조승국 사회복지사는 "사회생활에 치중한 아버지들은 가정에서의 입지가 좁아지고 결국에는 가정으로부터 내몰리게 되면서 '아버지 부재' 현상이 생기게 된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의 이해와 양육 및 원활한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프로그램을 통해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와의 소통 방법을 배워 만족스러워하는 아버지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복지관은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중이다.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이상 자녀가 있는 3인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의 의미 찾기 △농장 · 갯벌 체험 △전통문화 체험을 진행한다. 주5일 근무제와 '놀토' 등으로 늘어난 여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려는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맞춰 반영된 것이다.

조승국 사회복지사는 "모든 복지관들이 평생교육기관을 겸하고 있으나, 여성에 초점이 맞춰져 운영된 것이 사실이다. 남성들도 복지서비스 욕구가 있는데 이들을 충족할만한 프로그램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남성들의 복지 증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많은 복지관들이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02)507-6319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창업을 위한 전문자격증 교육생 및 지부모집
제7기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 육 과 목	교 육 기 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표정관리 및 웃음치료, 최면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건강식품업소탐방,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월요일 반

수시교육 / 매월 상시 모집 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i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02)393-5111

지부교육원
영남본부교육원 055-543-3155 / 부산해운대지부 051-757-9990 /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대구교육원 053-566-1116 / 호남본부교육원 063-254-5500 /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부산교육원 051-636-2972 / 광주교육원 062-672-5432 / 울산교육원 052-260-1037

-지부모집-
현재 9개 운영 중 아래 9개 지부를 상시 모집합니다.
강원남부 / 강원북부 경기남부 / 경기북부 충청남부 / 충청북부 대전 / 인천 / 수원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海月 金文華의 魂이 담긴 스피커의 힘, 힘 있고 우렁찬 소리는 스님의 건강과 절 전체에 氣를 불어넣어 줍니다.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 스테레오 엠프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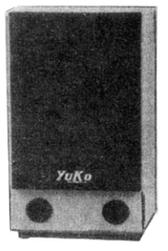
高音質 무선마이크

◇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텐드 마이크
◇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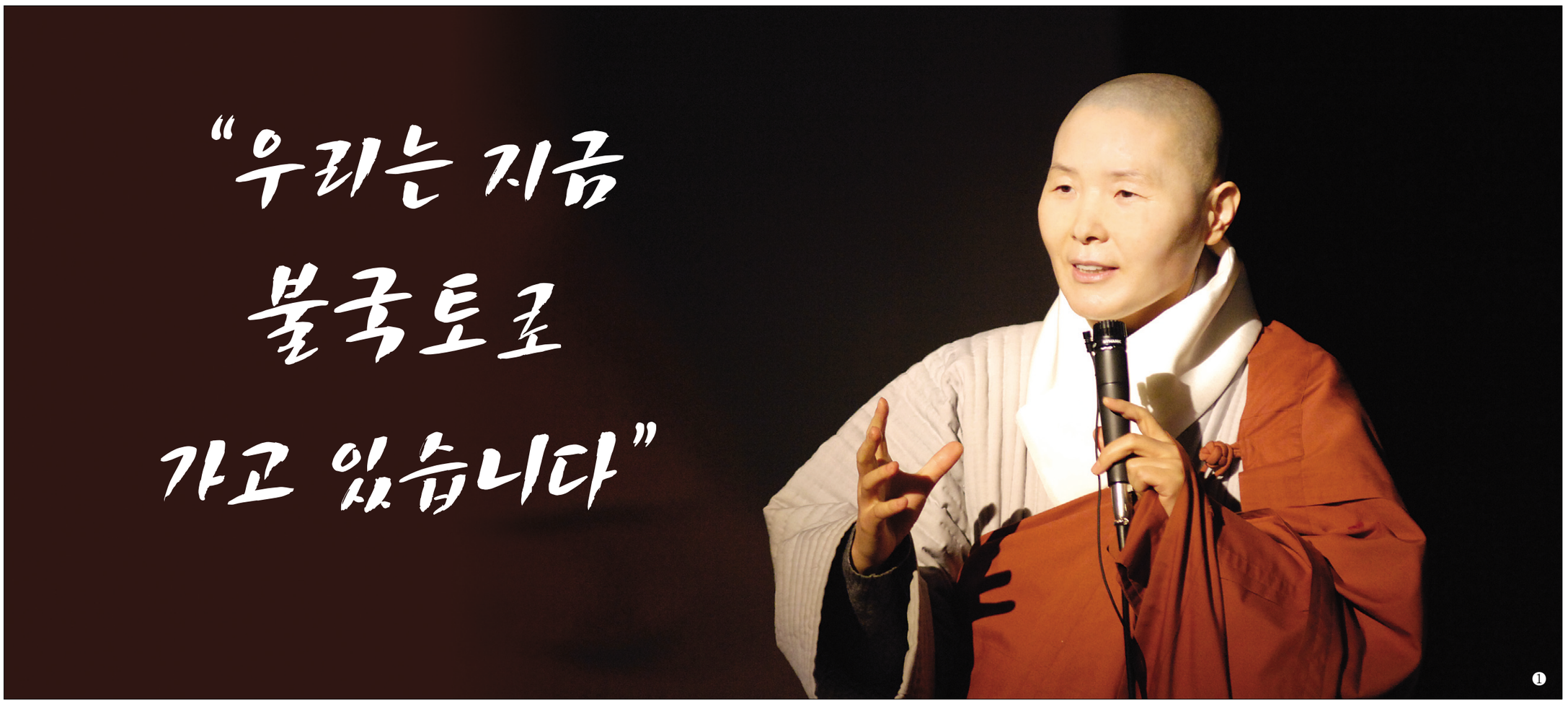
법당전용스피커

◇ 가격 : 500,000원(설치비 포함)
◆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일반 마이크 V-606LC

◇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 마이크
◇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다문화가정 기념법회

광주불교계 '정토에 피는 무지개나무' 대중강좌

입장권 수익금 · 강연비는 다문화 단체에 지원

법복을 입은 사람들이 합장하며 부지런히 찻잔을 나르고 있다. 이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차와 떡을 제공했다. 부드러운 미소는 서비스. 어른, 아이를 비롯해 한국인과 외국인으로도 구분되는 사람들은 차와 떡을 받아 쥐고 가던 걸음을 멈췄다.

다과가 열리는 한편에서는 강연하는 음성이 들려온다.

"개인이 각자의 자아상과 정체성을 가질 때 종교나 국가가 존재합니다. 부처님 세계에는 세대와 인종 · 국가가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남녀노소 · 국경을 벗어나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자유국가이며 우리는 지금 통합된 불국토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광주지역불교계단체와 불자들이 광주지역의 다문화가정에 희망을 전하기 위한 강좌를 처음 마련했다.

광주지역 불교외국인단체인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아시아밝음공동체(대표 도제 · 길상사 주지), 해뜨는다문화가족복지센터(대표 정선 · 대광사 주지)와 공동으로 3월 25~26일 '정토에 피는 무지개나무'를 주제로 대중강좌를 개최했다.

강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과 불교방송 '마음으로 듣는 음악' 진행자 정목 스님이 강사로 참여했다.

정목 스님은 25일 강연에서 "최근 지구와 인류는 천재지변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고통은 항상 있었으나,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가 가장 어렵고 힘든 시대라고 말한다"며 "기왕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숙명이라면 생각을 바꿔, 고통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자"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내가 뿌려 놓은 씨앗에 대한 결과는 내 스스로 걷어야 한다. 업의 결과는 3~10년 후에라도 반드시 나타난다. 이 생에 받지 않았다면 다음 생에 바뀐 몸을 통해 겪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다시 과보를 겪어야 한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돌고 돌아 내 업을 뒤로 미루겠는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넘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면 오히려 업의 힘은 약해진다"며 불교적 실천을 강조했다.

정목 스님은 "지금 이 시대는 가족 · 민족 · 국가를 넘어 글로벌 시대로 가고 있다. 광주지역사찰들은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부처님 세계에는 남녀노소 · 인종 · 국가의 경계가 없다. 우리는 지금 불국토로 나아가고 있다. 광주지역 불자 모두 다문화가정을 돕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주에는 많은 생명체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생명체 중 지구의 작은 국가인 한국 광주에서 다문화를 돕는 것은 부처님 법을 오롯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3월 26일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도 법문을 통해 다문화 가정 지원은 불자로서 당연한 실천임을 강조했다.

혜총 스님은 "부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불이법(不二法)이다. 외국에서 온 많은 이들도 우리와 한 몸, 한뜻으로 같이 살아갈 운명"이라며 "만남의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다문화가정과 만나는 것은 대단한 불연이고 너와 나, 우리들은 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광주 KT정보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성오 스님(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상운 스님(흥룡사 주지), 정목 스님, 도제 스님, 정선 스님, 명신 스님(연화사 주지), 광주광역시 교육감 등 600여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성오 스님은 축사를 통해 "한국은 다문화사회라는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를 맞게 됐다"며 "이주노동자, 여성을 한국사회와 불교계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광주지역 불교계가 다문화가정의 적응을 돕기 위해 기부법회 형식으로 개최해 더 큰 의미가 있다.

행사의 입장권 판매 수익금은 6월에 열리는 다문화가족 국내결혼식과 결혼이주여성부모 한국방문에 지원되고, 정목 스님의 강연비 등은 다문화단체 재원 마련에 쓰일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❷


❸


❹


❺

❶ 불교방송 '마음으로 듣는 음악' 진행자 정목 스님이 법문을 하고 있다.
❷ 정목 스님이 법회를 마치고 해뜨는다문화가족복지센터 정선 스님(오른쪽)의 안내를 받으며 나가고 있다.
❸ 불자가 아니라는 청년이 정목 스님의 법문에 감격해 불교를 믿고 싶다고 정목 스님에게 말하고 있다.
❹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이 3월 26일 '다문화가족과의 인연'을 주제로 법문을 하고 있다.
❺ 법회를 마치고 광주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등 관계자 단체 사진.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3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생명운동 협약체결

BBS부산불교방송(사장 박순곤 · 사진 오른쪽)과 부경대(총장 박맹언)가 생명 존중과 자연 사랑의 사상이 뿌리내리는 데 힘을 모으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BBS부산불교방송과 부경대학교는 3월 24일 본관 3층 소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생명 · 생태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두 기관은 협약내용인 △생태학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실천적 생명교육 협력 △해중 녹화를 통한 바다 숲 조성 및 수생 생물의 생명 가꾸기 실천운동 등을 추

부산불교방송 · 부경대 실무위 협의기구 설치

진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협의기구로 설치해 공동 운영하게 된다.

박맹언 총장은 "생명을 존중하고 살생하지 말라는 불교의 가르침이 본 대학이 나아갈 방향과 일치한다"며 "환경의 보전은 곧 생명에 대한 경외심임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순곤 사장은 "이번 협약은 생명경시가 만연한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에코버시티를 비롯해 생태와 환경에 남다른 관심을 가진 대학인만큼 앞으로 많은 노하우를 통해 부산불교방송과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경대는 2008년 녹색입국 '에코버시티(Ecoversity)'를 선언하고,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바탕으로 생태적 철학을 실천하고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의 가치를 높이는 학문에의 정진에 힘써왔다. **박지원 기자**

출가열반절 정진 "우리도 부처님 같이"

팔상성도 법좌 · 일만배 기도 · 정진법회 등 다채

부처님이 수행의 길에 나선 출가절과 깨달음을 완성한 열반절 기간을 맞아 부산 · 경남 지역 각 사찰에서는 다양한 법회와 정진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는 출가열반절인 3월 23~30일(음력 2월8~15일) 매일 오전 10시 경내 설법전에서 팔상성도에 담긴 의미를 일깨우는 특별한 법회를 마련했다.

첫날인 23일에는 강주 현진 스님이 법석에 올라 '팔상성도' 중 '도솔래의상'에 얽힌 부처님 전생과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에 관해 설했다.

현진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처음 발심해 보살도를 닦아 성불하기까지 오로지 한마음으로 무수한 생을 거쳐 수행했다"며 "이번 법회를 계기로 이곳 설법전을 나의 마음 속 궁전으로 명명하고, 여러 보살도와 자비심을 이 안에 가득 채워 불성의 성전으로 만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율원장 덕문 스님의 '비람강생상' △율원강사 진목 스님의 '사문유관상' △광우 스님의 '유성출가상' △율주 혜남 스님의 '설산수도상' △강주 스님의 '수하항마상' △정안 스님의 '녹원전법상' △정우 스님의 '쌍림열반상' 등 법문이 차례로 마련돼, 하루 평균 5000여 신도가 법회에 참석했다.


홍법사 일만배 정진 기도 모습.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출가열반절을 맞아 '제5회 일만배 정진기도'를 봉행했다.

출가열반절 기간 동안 신도들은 오후 7시부터 대웅보전에서 1250배씩 총 8일에 걸쳐 1만배를 했다.

홍법사는 "참가한 200여 신도들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대웅보전을 정진의 열기로 뜨겁게 달궜다"고 설명했다.

심산 스님은 입재법회에서 "이번 기도를 통해 저마다의 발원과 함께 대웅보전 옥상 대불 불사 또한 원만회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 성주사(주지 원정)는 출가열반절 기간 동안 매일 2시간에 걸친 '제13회 니르바나 정진 대법회'를 봉행했다.

성주사 신도들은 첫날인 23일 흥교 스님(범어사 금강계단 전계사)을 시작으로 정여 스님(범어사 주지), 도영 스님(조계종 前 포교원장), 덕민 스님(불국사 승가대학장), 법산 스님(동국대학교 선학과 교수), 무비 스님(조계종 前 교육원장), 혜남 스님(통도사 율주, 전계사), 법타 스님(동국대학교 정각원장) 등 총 8명의 대덕스님을 모시고 감로법문을 청했다.

원정 스님은 "이번 대법회를 통해 불자들이 출가와 열반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며, 더불어 참다운 삶의 행복을 구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스님과 인연지어 불심 키워가길…"

혜원정사 원허 스님, 첫 유발상좌 39명 수계

"스님, 호궤합장이 뭐예요?"

난생 처음 수계를 받게 된 박희양(11) 어린이는 호궤합장이 무엇인지 알 턱이 없다. 희양이와 같은 또래 어린이 39명은 수계식의 한 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해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원허 스님이 생후 1개월된 아기에게 수계식을 하고 있다.

부산 연산동 혜원정사(주지 원허) 대웅전에서 3월 23일 주지스님의 첫 번째 유발상좌 수계식이 봉행됐다.

유발상좌는 삭발 출가하지 않고 재가자의 삶을 살면서 스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어린 자녀가 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발원하며 스님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는 거룩한 의식이다.

이날 수계식은 유발상좌에 관한 주지스님 법문과 <부모은중경> 합송, 수계의식, 촛불명상 '참나를 찾아서' 등 순으로 2시간 여 동안 여법하게 진행됐다.

수계식에서는 생후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아기부터 영 · 유아 3명, 초등학생 17명, 중학생 5명, 고등학생 7명, 대학생 5명 등 39명이 원허 스님의 유발상좌가 됐다.

최연소 유발상좌가 된 박주아(생후 1개월)양의 어머니는 "아기의 이름을 주지스님이 지어주셨다. 주아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찍 만나 바르고 착하게 자랐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허 스님은 "갈수록 젊은 불자들이 절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 부모들은 절에 열심히 다니지만 자녀의 종교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경향이 안타깝다"며 "어릴 때 스님과 인연을 맺어주면 나름의 종교관이 형성되고, 천천히 불교를 알아가고 스님과의 친밀감이 생긴다. 이러한 불심을 심어주기 위해 유발상좌 수계법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앞으로 유발상좌 간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매년 수련회 등의 프로그램을 개최해, 그간 부모님들이 하지 못했던 포교를 스님과 절이 대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부산파라미타 첫 선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가 2010년부터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협회장 백명숙 · 이하 협회)를 통해 국내에서 첫 시범을 보인다.

협회는 3월 20일 부산 안국불교대학에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만 14~25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신체단련, 자기개발, 봉사 및 탐험 활동을 통해 잠재력을 개발하는 국제적 자기 성장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활동 계획과 성취 목표를 세우고 각 활동을 통한 성취 단계별로 국제기관에서 공인을 받을 수 있다.

파라미타협회는 "최근 입학사정관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국제적 라이센스 취득을 통한 개인별 포트폴리오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051)513-4306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경주 자운사 주지 · 향적원 대표 혜연 스님

사찰음식 속 불심 전하고파

경주 마동의 한 사찰음식전문점에서는 모든 음식을 스님이 직접 요리한다.

스님이 차린 상을 받기가 황송해 손님들은 엉거주춤한 자세로 일어나 그릇을 받으려고 한다. 스님은 이를 말리며 오늘 먹게 될 음식과 반찬에 대해 자세한 설명까지 곁들인다.

향적원 대표이자 경주 자운사 주지 혜연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사찰음식으로 맛있는 포교를 실천하고 있다.


혜연 스님(왼쪽)과 상좌인 영명 스님. 어릴 적 자폐증을 앓았던 영명 스님은 끊임없는 염불수행으로 현재 완치된 상태로, 염불을 통한 포교의 발원을 세우고 있다.

혜연 스님은 한국 불교문화의 중심이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석굴암과 불국사가 있는 바로 아랫동네에서 안일하게 자운사만 지키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에 스님은 가장 잘 할 수 있고 불교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사찰음식을 대중들에 선보이기를 발원하고 2008년 3월 향적원을 열었다.

하지만 1년 6개월이 넘도록 적자를 보며 경영난에 허덕이자, 스님은 변화를 시도했다.

손님들에게 '사찰음식은 나물반찬에 장아찌 정도가 전부'라는 편견을 깰 수 있게 하는 기본에 충실한 사찰음식의 정석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화학조미료는 물론 오신채를 쓰지 않은 진실한 밥상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모든 식재료는 산지에서 농사짓는 단계부터 눈으로 확인하고 가져옵니다. 음식을 만지는 사람이 화가 났거나 짜증이 났을 때에는 주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화가 났을 때 만든 음식은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향적원만의 대표 요리인 '찹쌀콩고기'를 만들기 위해 다지는 칼질 횟수만 1700번이다. 이때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며 다져 정성을 더 한다.

콩고기말이에 쓰이는 묶음나물은 울릉도에서만 나는 명이나물을 쓰고, 연잎밥의 연잎은 전라도 무안에서 직접 공수해온다. 김치는 스님이 손끝에서 젓갈 대신 버섯과 다시마육수로 감칠맛을 낸다.

처음에 손님들은 화학조미료에 길들여져 싱거운 간과 쌉쌀한 채소본연의 맛에 당황해했다. 스님은 "양파즙이라도 써서 대중에게 익숙한 맛을 내라"는 비평도 받았다. "스님이 무슨 식당장사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편견어린 시선도 묵묵히 감수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연 스님은 사찰음식을 계속 요리해야 하는 간절한 발원이 있다.

"15년 넘게 동고동락하는 10여 명의 학생과 노스님, 홀로어르신이 계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신도들의 후원금으로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도소 · 양로원 · 장애시설 등에 법회를 나가 후원하기도 합니다."

혜연 스님은 "사찰음식에 깃든 수행정신과 불교문화를 전하고, 그 속에서 인재불사를 실천하는데 남은 생을 회향하고 싶다"고 말한다. 혜연 스님의 맑고 청정한 수행밥상이 만드는 불국토를 기대해 본다.

(054)775-0014, www.cityfood.co.kr/h1/hyanggiuk **박지원 기자**

화제의 불화

■ 후손까지 번영하게 축원불공 마쳐
■ 재난과 액운을 쫓고 소원성취 영험



「세존이시여 무슨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 보살에게 이르시길」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설사 큰 불속에 있어도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 헤매도 물이 얕은곳으로 인도하고, 폭풍을 만나도 그들이 탄배는 침몰하지 않으며, 도적과 강도가 들어도 해하지 못하고, 여인이 자녀를 낳기를 원하면 원하는 아들 딸을 낳을 것이고, 부귀영화와 명예를 얻을것이며, 죽을병에 있어도 나찰귀의 액란에서 벗어나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어리석은 마음을 여의게 된다.

수월관음도

불자가정에 꼭 있어야할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

여의주를든 수월관음도는?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자재한 신력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노닌다. 그대는 잘 들어라 관세음보살의 행은 시방 어느곳에나 잘 응할수 있다.」〈관세음보문품경에서〉

수월관음도는 바다물속에 비친 달속 여의주를 든 관세음보살의 밝은 모습으로 중생들의 근심, 걱정 고통과, 액란을 소멸하고 세상사는 동안 원하는 소원을 성취시키고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워지는 신비의 구슬로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영험을 지닌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안녕과 번영을 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약속으로 여의주를 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불화다.

우리나라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에 왕실과 귀족 가문에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모셨으며 조선시대에는 명문 불자 가문에서 관세음 부처님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는 수월관음도를 그려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하고 가문의 수호신으로 집안에 모시기 시작했다.

■ 만가지 부적이 필요없는 영험!

조선시대 불화를 한국불화의 佛母金成浩화백께서 불력으로 재현한 영험의 명작으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를 보는 순간 누구나 영험을 느끼게 된다. 수백년을 이어갈 가문의 소장품으로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방, 또는 거실, 사업장에 걸면 대단히 품위가 있다. 3단 최고급 액자와 100% 천연 전통 한지에 판화 인쇄된 수월관음도는 특별 제작한 불화로 액자 뒷면에는 불광사 보증서와 대대로 물려주게 소장인란이 있다. 전화로 신청 하시면 특급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린다.

규격 : 가로 67Cm×세로 85Cm 가격195,000원
문의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신용카드분할가)

2010년 드는 삼재시작 용띠, 쥐띠, 원숭이띠, 조심

삼재소멸과 닥처올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묵는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쥐띠,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뱀띠,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는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드리며 지갑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금액 45,000원
문의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입금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 공급가격 별도 상담요)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마쳐!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 신차출고시 사고예방의 필수품!
■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 호신불을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45,000원. 신청전화 :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30%할인)

새만금 사업 성공 및 무사고 안전 기원재 태고종 전북특별교구

태고종 전북특별교구 종무원(원장 일허)은 4월 4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 가력방조제에서 '새만금 사업 성공 및 무사고 안전 기원재'를 봉행한다.

태고종 전북특별교구가 주최하고 태고종 전국신도회에서 주관하는 '새만금 사업 무사고 안전 기원재'는 태고종 소속 300여 사찰에서 7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다. 기원재는 새만금 사업의 성공과 나라의 안녕, 국민의 안전을 기원하고 새만금 사업 추진과정에서 희생된 뭇생명들의 넋을 위로하는 천도의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교무부장 단정 스님은 "부처님 가피로 새만금간척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지역과 국가경제 발전은 물론 조국의 평화와 안정, 가정의 화평을 이루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두 전직 대통령 기념공원 세운다

3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범시민대회 개최

김대중 · 노무현 前 대통령 추모공간이 광주 무등산 문빈정사 앞에 들어선다.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원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지선 前 백양사 주지, 이하 준비위)는 3월 2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선 스님은 "두 전직 대통령을 추모하는 만남공원, 상징조형물, 작은도서관, 시민사랑방, 교육관 등을 갖춘 기념공원을 조성할 것"이라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주요인사와 시민사회단체 원로,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3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범시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선 스님은 "한해 1000만명이 찾는 무등산 문빈정사 주변은 과거 민주 인사들이 자주 모이는데 기여한 종교, 학술, 법조, 여성, 시민단체, 행정, 경 · 제계 등 다양한 인사들을 모시고 범시민대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 노무현 前 대통령추모공원 준비위원회 위원장 지선 스님이 3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념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문빈정사 주지 법선 스님은 "민주주의 · 광주의 자산인 두 대통령의 뜻을 살려 종교와 시민의 소통공간이 마련되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라며 "광주 무등산에 '민주주의 올레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두 전직 대통령 기념공원은 2009년 5월 故 노무현 前 대통령 안장식 이후 영호남 인사들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이어 9월 김대중 대통령 서거 이후 김대중평화센터와 노무현재단의 추모사업과 병행해 기념공원을 조성키로 하고, 준비위가 결성됐다.

문빈정사는 인근 땅 600m²을 던 공간으로 상징성과 접근성을 두루 갖춘 곳"이라며 "참세상을 준비위에 무상으로 기증했다. 기념공원은 1200m²에 조성될 예정이다.

준비위에는 청화 스님(조계종 前 교육원장, 정릉 청암사 주지), 함세웅 신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상근 목사(6 · 15남측위원회 공동대표)를 비롯해 권노갑 前 민주당 고문, 한화갑 前 민주당 대표 등 구 민주계인사와 이해찬 前 국무총리, 한명숙 민주당 상임고문 등이 참여했다. 현재 준비위는 광주시에 추모공원에 관한 기본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한편, 준비위는 향후 두 前 대통령의 서거일 전후에 맞춰 5월 17일~8월 24일 100일간 추모기간을 마련해 온라인 백일장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국토를 찾아서

전북도청 연우회 윤여영 총무

성스러운 곳에서 근무하는 자체가 축복

생업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종교를 드러내지 않고 생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국민의 세금을 집행해야 하는 공직사회에서는 자신의 종교색을 드러내지 않으며 업무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이런 고충을 잘 알고 있는 윤여영 거사(법명 총지)는 4년 전부터 전북도청공무원 불자 모임인 연우회에서 총무 소임을 맡아 공무원 불자들의 친목과 신행활동을 돕고 있다.

전북지역은 타종교인이 상대적으로 많아 불자들이 위축되기 쉽지만 연우회 회원들은 윤거사의 도움으로 불심을 키워가고 있다.



전북도청공무원 불자 모임 연우회 총무 윤여영 거사.

전북도청 불자직원들의 모임인 연우회는 10년째 활동 중인 윤여영 거사와 회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공무원불자들이 꾸준히 늘어 현재 회원이 70여 명에 이른다. 연우회 회원들은 개인 신행활동을 넘어 지역 내 시설들을 찾아 봉사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윤여영 거사는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했다.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할아버지를 비롯한 선대 어르신들의 영향이 컸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염불소리에 잠을 깨곤 했습니다. 할아버님께서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이면 <천수경> 독경을 하셨습니다."

윤 거사는 전주 전북불교대학 법사과를 졸업하고 포교사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현재 전북불교대학 기획처장으로 봉사 중인 그는 지역포교에 여념이 없다.

특히 향토사단 김제 대대와 진안 대대 법당에서 군 장병들을 위한 법회를 여는 등 군 포교활동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다. 정년퇴임을 5년 앞둔 윤 거사는 "퇴임 후에는 군포교 활동에 더욱 전념할 계획"이라며 "청년 불자 포교에 한국불교의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윤 거사를 보고 자란 두 아들도 포교사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학군장교(ROTC)로 임관한 두 아들도 군법당을 찾아 불자 사병들과 함께 법회를 이끌고 있다"는 윤여영 거사의 얼굴에는 뿌듯한 표정이 역력했다.

윤 거사는 3년 전부터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 주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윤여영 거사는 "2009년 미륵사지 석탑에서 사리장엄이 출토됐을 때의 환희심과 감동을 잊지 못한다"며 "한달여 간 진행된 사리장엄 친견법회 때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불자들을 안내하고, 친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 것이 보람"이라고 말했다.

1400여 년 전의 부처님 사리가 모셔진 성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신이 누구보다 자랑스럽고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늘 행복했기 때문이란다.

윤여영 거사는 "두 달 동안 쉬는 날 없이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느라 피곤했지만, 불자라는 것에 행복감과 자긍심이 그만큼 들었을 때도 드물었다"며 "지역 불자들이 부처님 진신사리가 있는 성스러운 성지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갖는 당당한 불자였으면 좋겠다. 웅장하고 장엄했던 익산 미륵사지의 찬란한 역사가 하루빨리 재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진정한 잘사는 길이란…

군산 동국사 암도 스님 초청법회 봉행



前 조계종 포교원장 암도 스님은 3월 21일 군산 동국사 일요가족법회에서 '잘사는 길'을 주제로 초청법회를 했다.

군산 동국사(주지 종명)는 3월 21일 前 조계종 포교원장 암도 스님 초청 일요가족법회를 봉행했다.

동국사 신도회와 감로회, 불심회, 칠성회, 합창단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법회에는 200여 불자가 동참해 큰 스님의 법문을 경청했다.

암도 스님은 '잘 사는 길'을 주제로 한 법문에서 "육바라밀 실천을 통한 삶이 바로 진정한 잘사는 길이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지혜로운 불자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동국사 총무 종걸 스님은 "가족법회에 선지식을 초청해 법문을 듣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다" 며 "스님의 법문을 통해 많은 불자들이 진정한 잘사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되짚어 보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 동국사는 국내유일의 일본식 사찰로 대웅전이 등록문화재 64호, 석가삼존불은 전북 지방문화재 213호로 지정돼 있다. 최근 석가삼존불에서 발견된 복장유물은 국가문화재 지정을 위해 문화재청이 심사 중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유재산 출연 결의 금산사 교구종회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 스님)는 사유재산 출연의 종단방침에 따라 '입적 후 사유재산을 종단 내 출연할 것'을 결의했다.

금산사는 3월 20일 전북불교회관에서 45명의 교구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교구종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원행 스님은 교구종회에서 "청정비구승단의 구성원으로서 입적 후에 사유재산을 종단에 출연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비록 홍보가 미흡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지만, 입법취지가 좋은 많은 만큼 종단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적 후 사유재산 출연을 결의한 교구본사는 쌍계사, 백양사, 수덕사에 이어 4개본사로 늘어났다. 한편 이날 교구종회에서는 불기 2553년 결산 보고서를 승인하는 한편 원행 스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불기 2554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산사에서 운영하는 서원노인복지관에 대한 교구 사찰의 관심과 지원을 결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눈높이 맞춘 서비스 실천할 터

원행 스님 서원복지관 5대 관장 취임



전주 서원노인복지관 신임 관장 서원 스님 취임법회가 3월 21일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금산사 복지원이 전주시로부터 위탁 운영 중인 서원노인복지관 제5대 관장에 원행 스님(금산사 주지)이 취임했다.

3월 21일 서원노인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전북지역 스님들과 김완주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주시장,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등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500여 어르신이 참석해 원행 스님의 관장 취임을 축하했다.

원행 스님은 취임사에서 "그동안 쌓아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천하겠다" 며 "서원복지관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해, 희망의 새바람이 일어나는 복지관으로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김완주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각급 기관장들도 축사 등을 통해 원행 스님의 취임을 계기로 한 단계 성숙된 지역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탑의 나라, 황금의 땅 미얀마

미얀마 성지순례

초특가!! 단 4회

신청마감 4월 23일

출발일 : 5월 24일, 28일 (2회) / 6월 4일, 15일 (2회)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양곤 - 6일 - 135만원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6일 - 140만원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몽유와 / 헤호 - 7일 - 145만원

특전
1. 국제선 및 국내선 왕복항공료 포함. 2. 전일정 특급호텔 및 식사포함. 3. 1억원 여행자 보험 포함
4. 각종 항공세 포함 (국제선 및 현지항공세 $10, 관광진흥개발기금, 인천공항세, 유료할증료) 5. 일정표상에 명시된 파고다 입장료 포함.
6. 미얀마 비자비용 (25,000원)
7. 불포함 외에는 추가비용 없습니다. (불포함 : 개인적인 제반사항 및 생수비용, 가이드+기사팁)

- 구화산 / 상해 / 보타산 6일 5/23일, 6/6일

- 북경 / 백두산 6일 - 베트남 하롱베이 / 캄보디아 씨엠립 6일 - 캄보디아 씨엠립 5일 - 방콕 / 파타야 5일 - 대만 4일

2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최고로 모십니다. 불교성지전문 마하연투어 대표전화 ☎ 02)365-7747



동백은 다시 피는데 미당은 오지를 않네

미당의 고향
❼ 고창 선운사(禪雲寺)



미당 서정주(1915~2000)는 어릴 적 할머니를 따라 선운사에 가곤 했다. 훗날 시인이 된 그는 그 때 봤던 선운사 동백을 그리며 시를 한 편 쓴다. 지금도 선운사엔 동백이 핀다. 하지만 이제 그는 가고 없다.

선운사로 오르는 길엔 개울이 함께 따라왔다. 봄이 긴 했지만 개울물은 아직 차갑게 흘렀다. 전북 고창의 도솔산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선운사는 세워진 시기가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고 있다. 신라 진흥왕이 세웠다는 설과 백제 위덕왕 24년(577)에 검단 스님이 세웠다는 설이 있다.

대웅전과 영산전 뒤로 동백숲이 보였다. 미당이 보러 왔다 못보고 간 동백이 작년 것부터 뜨문뜨문 피어 있고, 지난 것들은 벌써 쉰 목에서 나오는 육자백이처럼 제 가지를 끊어내고 있었다. 마당엔 산수유가 노랗게 피어 있고, 대웅전 벽의 기둥들은 숲 속에서 봄을 맞는 듯했다.

미당의 고향 질마재는 그의 시 세계에서 중요한 지리적 공간이다. 선운사는 그 공간 안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지리적 공간이자 정신적 공간이 된다. 유년기를 고향에서 보낸 미당은 고향을 떠났다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청년기 시절을 질마재와 선운사에서 다시 보내게 된다. 1929년 11월 광주학생사건에 참가했던 미당은 재학 중이던 중앙고등보통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고향으로 내려와 고창고등보통학교에 편입학하지만 광주학생사건과 관련되어 다시 학교를 그만 두게 된다.

가난을 안고 고향을 떠났던 미당은 가난 속의 고향 질마재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다. 미당의 유년과 청년시절은 시절 자체가 가난과 혼란의 시대였다. 당시의 많은 젊은이들이 마르크스와 레닌에 기대있었고 미당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미당이 고향 질마재로 다시 돌아왔을 땐 마르크스와 레닌의 웅변이 왠지 미당에게 큰 위로가 되지 못했다.

그 때 미당을 만져준 것은 어릴 적 할머니와 함께 다녔던 절집의 향수와 그 곳에 머물고 있었던 석전(박한영 · 1879~1948) 스님이었다. 한시에 능했던 문인이자 독립운동의 맨 앞줄에 서있던 석전 스님은 날개가 부러져 날지 못하는 청년에게 따뜻한 둥지가 되어준다. 훗날 미당은 "내 고통과 방황의 시기에 내 피와 살을 데워준 분은 석전 스님이었다"라고 회고한다. 미당은 그 따뜻한 둥지 안에서 불교와 가까워졌고, 다친 날개를 다시 펼 수 있었다.

동백이 피고 지는 대웅전과 영산전 사이에 미당이 머물던 방이 있었다고 한다. 미당이 선운사에 머무는 동안 그의 언어엔 부처님의 말씀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이를 바탕으로 훗날 불교적인 시를 많이 쓰게 된다. 1947년 미당은 '국화 옆에서'를 발표한다. 우주적인 연기와 인연설을 기초로 한 이 시는 미당의 천 편이 넘는 시 중 그를 대표하는 시가 된다.

들꽃 사이에서 찾아낸 작은 돌로 쌓아올린 길가의 적석탑처럼, 가슴 속에서 찾아낸 언어들로 쌓아올린 그의 시는 손으로 덥석 만져볼 수 있는 거대한 석탑이 아니라, 눈으로만 보아야 하는, 마음으로만 읽어야 하는,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오솔길의 적석탑 같다.

돌담 너머에 작은 동백나무 하나가 꽃잎을 틔우고 있었다. 산새 한 마리가 요란하게 울어대며 돌담에 날아와 앉았다. 동백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두가 선운사에 가면 동백을 보고 온다. 그렇다 선운사를 찾는다면 동백을 보고 와야 한다. 하지만 피지 않은 동백은 어찌 해야 할까.

선운사 입구에는 미당의 시비가 있다. 시비에는 그의 시 '선운사 동구'가 새겨져있다.

선운사 골짜기로 /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 / 동백은 아직 일러 피지 않았고 / 막걸리집 여자의 육자백이 가락에 / 작년 것만 상기도 남았습니다 / 그것도 목이 쉬어 남았습니다

돌담 위에 내려와 앉았던 산새는 동백을 다 보았을까. 혹시 작년 것만 피어 있다고 목이 쉬게 울고 간 것은 아닐까.

글 · 사진 =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선운사 동구'가 새겨져 있는 미당의 시비가 이제는 볼 수 없는 시인의 모습을 대신하고 있다.

선운사 가는 길

서해안고속도로 선운사 IC를 나와서 선운사 이정표를 따라가면 된다. 대중교통은 고창에서 출발하는 직행버스(8회)와 군내버스(24회), 흥덕에서 출발하는 직행(4회)버스와 군내버스(50분 간격), 정읍에서 출발하는 직행버스(4회), 광주에서 출발하는 직행(8회)를 이용하면 된다.

2010년 봄
햇차 선금주문 할인행사

· 청와대 사랑채 납품
· 김포공항 국내선 4층 입점
· 제다실습(전남 무안군 초의선사)
· 초의신다 최고금상 수상

문의:(061)285-0301,2

단 한번의 기회. 노동부에서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햇차를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품질은 대한민국 특허청과 세계가 인증(최고금상)한 "다성 초의차"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만 선착순 선금 주문을 받으니,
착오 없이 기간 내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만통(1통 100g) 주문 받습니다.

※ 햇차 선금 주문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우 전(첫물)	세 작 (두물)	중 작 (세물)
선금 주문 가격	35,000원	20,000원	10,000원
판매 가격	70,000원	50,000원	30,000원
선금 주문 기간	3월01일~4월10일	3월01일~4월20일	3월01일~4월30일
차 만드는 시기	4월10일~4월20일	4월21일~4월30일	5월01일~5월15일
차 발송 예정 기간	4월27일~4월30일	5월01일~5월15일	5월15일~5월30일

※ 우전은 4월10일, 세작은 4월20일, 중작은 4월30일까지만 선입금과 함께 주문을 받으며, 그 이후에는 정상 판매가격으로 판매됩니다.

(사)초의학술문화원 · 일지암영농조합법인 공동주최 입금 : 농협 635070-51-049724 일지암영농조합법인 국민은행 796201-01-376888 (사)초의학술문화원 전화 : 061-285-0301,2 팩스 : 061-285-0304 choyeetea.co.kr/choyee.or.kr


▲초의선사 동상 ▲초의선사 생가 ▲초의선원 ▲조선차역사박물관 ▲청와대사랑채 무료시음 ▲제다체험 ▲한국차문화특강 ▲청와대사랑채 다도체험 ▲특허증 ▲최고금상 상패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9>

화두를 던져버려라

한 스님이 물었다.
"1구(一句)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만일 1구를 지키고만 있으면 너는 어느 새 늙어 버릴 거야."

問 如何是一句 師云 若守著一句老卻你

1구란 부처님이나 선사들이 던지는 핵심적인 한 마디를 말한다.

불법이나 도를 드러내는 1구는 화두일 수도 있고 도에 대한 함축적인 비유나 간단한 문구일 수도 있다.

선가에서 골똘히 생각하며 '뜰 앞의 잣나무' '조주무자(趙州無字)' '판치생모(板齒生毛)' '부모미생전(父母未生前)' '덕산탁발화(德山托鉢話)' 등의 화두를 드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뜻을 알아보려고 하루 종일 혹은 꿈속에서도 화두를 생각하고 탐구한다.

한동안 1구를 지키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인생에 있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화두는 글자 안에 답이 있지 않고 화두 밖에 답이 있다. 화두의 의미를 안 사람들은 모두 그 바깥을 본 사람들이다. 그들은 모두 나중에 화두를 집어던져버렸다. 그러므로 진정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빨리 화두를 타파하고 부처의 행으로 돌입해야 한다.

부처가 부처의 행을 하지 않고 화두라는 글자 1구에 갇혀버린 채 늙어버렸다면 그것만큼 허망한 인생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임제 스님은 부처가 되기 위한 수행자들을 향해 '자기 머리를 두고 또 머리를 찾는 짓'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마음이 부처'라는 말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그대는 이미 부처라는 말이다. 이것을 알면 그만인데 또 다시 부처가 되려고 세월을 보내지 말라. 그것만큼 쓸데없는 짓은 없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만일 너희들이 일생동안 총림을 떠나지 않고 5년, 10년 동안 말을 하지 않을 때 너희들을 벙어리라고 하는 자가 없다면 이후 부처라도 너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너희가 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노승의 머리를 잘라가라."

師又云 若一生不離叢林 不語十年五載 無人喚你作啞漢 已後佛也不奈何 你若不信 截取老僧頭去

5년 · 10년간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망상이 줄어든다는 말이고, 남과 말할 시간도 허락하지 않고 수행에 전념했다는 말이다. 원래 벙어리가 아니고 다만 수행하기 위해 말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대중이 이구동성으로 말 할 정도라면 그만큼 수행에 몰두했다는 말이다.

그렇게 시간을 쪼개고 망상을 피우지 않고 5~10년간 화두 하나에 목숨을 건다면 누구든지 부처 이상의 경지에 오를 것이라고 조주 스님은 말하고 있다. 이 법문은 조주 스님이 처음 남전 스님에게 출가한지 5~10년 만에 도를 깨달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단서이다.

사실 5~10년은 조주 스님이 넉넉하게 말한 것이다. 적어도 목숨을 걸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보다 좀 더 시간을 준 것이다.

옛날에는 단 한 번의 말 한 마디에 그 깊은 도리를 깨달은 사람이 많이 있다. 중국의 혜가 · 승찬 · 도신 · 홍인 · 혜능 · 임제 · 대혜 스님 등이 그러했고, 덕산 스님은 촛불이 꺼지는 순간 문득 깨달았다.

또, 옛 선사는 7일간 정성을 다해 수행해도 깨닫지 못하면 목을 베어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깨달음을 위해 평생 시간을 보낼 일이 아니다. 마음이 정성스럽고 간절하다면 한 글자, 한마디에도 즉시 깨닫고 만다. 그대는 이미 부처이기 때문이다. 혹 늦더라도 5년, 10년이면 충분하다. 그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것은 선의 정법을 뒤로 하고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마음이 부처'라는 말은 만고불변의 진리
사람은 원래 깨끗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
진정한 선사는 칭호에 집착하지 않는다

조주 스님이 상당해 설법했다.
"형제들이여, 자네들은 틀림없이 삼생의 업보 속에 있다. 이르기를 '다만 과거의 행위만 고치고 과거의 사람은 고치지 말라'했다. 너희들과 함께 출가해 무사히 잘 지내고 있는데, 재삼 선(禪)을 묻고 도(道)를 묻기 위해 20~30명씩 몰려와서 묻는다. 마치 선도(禪道)에 흠이라도 있기라도 하듯이. 설사 자네들이 나를 선지식이라고 부른다면 나는 자네들과 함께 벌을 받아야할 사람에 불과하다. 이 노승은 원래 즐겨 떠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저 옛사람에게 누가 될까봐 동(東)이야, 서(西)야 하고 설법하고 있을 뿐이다."

師上堂云 兄弟你正在三冤裡 所以道 但改舊時行履處 莫改舊時人 共各自家出家以來無事 更問禪問道 三十二十人聚頭來問 恰似欠伊禪道 相似你喚作善知識 我是同受拷 老僧不是戲好 恐帶累他古人 所以東道西說

사람이 업보 속에서 고통 받는 것은 자기 자신이 위대한 부처인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고타마 싯다르타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고타마 싯다르타는 도를 깨달아 부처가 됐다. 깨닫는 순간 육신에 물리적인 변형이 일어나 부처라 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다.

깨달은 자를 부처라고 한다. 깨달음을 통해 과거의 행위만 고치는 것이다. 사람이 바뀌어 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누구나 깨달으면 바로 부처다. 더 이상 무엇이 될 것은 없다.

조주 선사는 "수행자는 다만 과거의 행위만 고칠 뿐이지, 더 이상 선지식이라고 부르면서 누구를 찾아가서 선과 도를 묻는 행위 따위는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한 행동들은 마치 선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따지러 다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조주 선사가 이렇게 말한 뜻은 '중생은 원래 부처'라는 사상이 깊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원래부터 부처이기 때문에 깨닫는 즉시 완성이다. 수행자는 다만 오래 묵은 중생의 습성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더 이상 선도를 묻거나 선지식을 찾는 일 따위는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납자들이 찾아와서 자신을 선지식이라고 부르는 행위는 양자(兩者)가 죄를 짓는 행위라고 설법하고 있다. 사람은 원래 완벽하다. 완벽한 자가 무엇 때문에 다시 선지식을 찾아야 하겠는가. 완벽한 자가 완벽한 자를 만날 때는 대등하게 차나 마시면 된다. 평범한 산중 사람에게 '선지식'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은 오히려 깨끗한 곳에 티를 묻히는 결과 밖에 되지 않는다.

선사가 자기를 두고 선지식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진정한 선사가 아니면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다. 요즘은 누구나 선생이 되고 싶어 하고 윗사람이 되려 하지 않는가.

진정한 선사는 선지식이라는 칭호에 집착하지 않는다. 선사는 다만 옛 사람들이 미몽에서 눈을 뜨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해준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동도서설(東道西說)을 늘어놓는 것이다.

사람은 이미 완벽한 부처이다. 사람은 원래 깨끗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 본성은 어떠한 환경을 만나고 경험해도 전혀 물들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은 본래 부처라고 말한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자기 자신이 본래부터 부처임을 즉시 깨달으라.

■ 무불선원 선원장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관심론 14

오분 법신을 향에 비유하다

향을 피운다는 것도 세상에 있는 향이 아니라 무위(생멸 변화를 넘은 상주절대의 진실) 정법(正法: 올바른 진리)의 향이니라. 온갖 더러운 냄새를 물리치고 무명과 악업을 끊어 모두 없어지게 하는 것이니라. 그 정법의 향은 다섯 가지가 있느니라. 첫째는 계향인데, 말하자면 모든 악을 끊고 모든 선을 닦는 것이니라. 둘째는 정향인데, 대기(大機: 禪의 깊은 경지에 이끌어 들어가게 하는 커다란 움직임)를 깊이 믿어 마음이 물러남이 없는 것을 말하느니라. 셋째는 혜향인데, 항상 몸과 마음을 안팎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하며, 넷째는 해탈향인데, 온갖 무명의 결박을 끊는 것을 말하고, 다섯째는 해탈지견향인데, 느끼고 살피는 것이 항상 분명하여 걸림없이 통달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이 다섯 가지 향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향이라 견줄 것이 없느니라. 부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제자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값진 향을 사루어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라 하셨는데 요즈음의 중생들은 어리석고 둔하여 여래의 진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밖의 불로 세간의 침단이나 훈륙등 형체가 있는 향을 사르며 복을 바라니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동성 스님 作

[원문]

燒香者亦非世間有相之香 乃至無爲正法之香 薰諸臭穢 斷無明惡業 悉令消滅 其正法香有五種 一者戒香 所謂能斷諸惡 能修諸善 二者定香 所謂深信大乘 心無退轉 三者慧香 所謂常於身心 內外觀察 四者解脫香 所謂能斷一切無明結縛 五者解脫知見香 所謂覺察常明 通達無碍 如是五香 名最上香 世間無比 佛在世日 令諸弟子 以知慧火 燒如是無價寶香 供養十方一切諸佛 今時衆生 愚癡鈍根 不解如來 眞實之義 唯將外火 燒於世間沈檀薰陸質碍之香 希望福報 云何可得 又散花者.

[해설]

달마 스님이 말한 향을 피운다는 것은 물질로 이루어진 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괴로움은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생깁니다.

반야의 도리에서 본다면 물질이 아니라 마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것 네 것이 없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으로 본다면 걸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 할 뿐이지 우리의 몸도 어제와 오늘 분명 변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육신은 1초 전 · 후가 다릅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모든 물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닙니다. 달마 스님이 말하는 향이라는 개념은 우주를 하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욕심 낼 일도 없고 진심을 일으킬 일도 없습니다. 우주를 그대로 하나의 마음으로 본다면 경계가 다 끊어지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향을 올리는 의미라는 말입니다.

계향 · 정향 · 혜향 · 해탈향 · 해탈지견향을 오분향이라고 합니다.

계향은 계율을 말합니다. 우주를 하나로 보고 대상이 다 끊어지면 계를 지킬 부분도 없고 살생할 대상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 악은 저절로 끊어집니다.

계를 지킨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반야 법에서는 지켜야 되는 대상을 생각하게 돼 이분법 사고가 됩니다. 그런 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를 하나의 마음으로 보는 마음이라면 그 마음은 아주 향기로운 마음입니다.

정이라는 것은 고요함을 말하는데 우주를 하나로 보고 내 본래 마음이 부처라 믿고 끊임없이 정진하는 것입니다. 절을 할 때도 나의 참 부처자리를 생각하고 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을 하고 내 마음이 부처라는 확신을 가지고 정진하게 될 때 이것이 정향입니다.

혜는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과 몸은 하나입니다. '일체가 하나의 마음'이라고 항상 관하며 정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탈이란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우주를 하나로 쓸 수 있는 이(理)와 사(事)에 걸림이 없는 무애행을 말합니다. 무명이란 어리석고 밝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육안의 눈으로 살게 되면 좋다 나쁘다 나눠지고 분별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본다면 너도 나도 생사도 없는 마음을 갖게 돼 어느 곳에 묶이게 되는 일도 없습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착하면 집착하는 만큼 아픔이 생깁니다. 우리가 무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향입니다.

집착을 끊기 위해서는 오직 정진의 힘 밖에 없습니다. 정진을 통해 이와 사에 걸림이 없이 행할 때 향기로운 회향이 됩니다.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꿈 속에서 꿈 꾸다 깬 것처럼 허망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꿈 속에서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것에 집착하며 살다가 죽게 되면 꿈을 꾸다 깬 것과 똑 같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세계나 마음으로 느끼는 세계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을 안다면 해탈지견향이 됩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비누독을 연화시키는 삼베훼이셜타올



■ 삼베훼이셜타올 – 각 6,000원

삼베 타월의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 타올은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 삼베훼이셜타올 세안법

① 삼베훼이셜타올를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②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③ 삼베샤워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 3~4일이 경과 하면 맑아진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 피지, 각질연화효과가 있어 혈색이 좋아짐에 화장이 잘 받습니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특허출허제품임

· 품 명 – 예고은 삼베 샤워 타올
· 재 질 – 햄프사, 죽사
· 용 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 격 – 세안용 (30cm x 28cm)
· 제조원 – 초록살림원 (한국산)

삼베수세미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수세미는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식기세척시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뽀드득한 느낌과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용하시는 분들은 소박 하고 겸손한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 삼베수세미의 효과

* 다이옥신 피해와 수질오염(땅속에서 자연소멸)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 사용 후에는 세탁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건조합니다

· 품명 – 예고은 삼베 수세미
· 재질 – 햄프사, 죽사
· 용도 – 식기세척, 과일세척, 욕실청소 등
· 규격 – 30cm x 30cm(소) / 30cm x 50cm(대)

위생 · 항균 · 항독 삼베 수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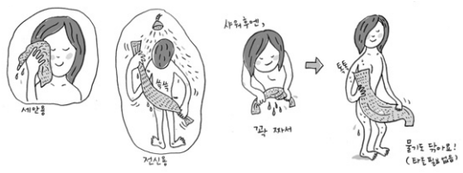
■ 삼베수세미올 – 각 4,000원

건포마사지용 삼베샤워타올



■ 삼베샤워타올 – 각 15,000원

· 품명 – 예고은 삼베 샤워 타올
· 재질 – 햄프사, 죽사
· 용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격 – 전신용 (30cm x 130cm)



'건포 · 습포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올바른 마사지법

· 여름에는 냉수마찰, 겨울에는 건포,습포 마찰을 권합니다.
· 냉한 체질은 건포, 습포마찰이 좋고 열이 많은 사람은 냉수마찰이 좋습니다. 단, 열이 많은 사람은 건포마사지를 무리하게 하지 말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냉수마찰을 피합니다.
· 예민한 피부는 문지르는 것에 자극을 받아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합니다.
· 상처나 피부질환시 문지르지 말아야합니다.



■ 건포 마사지의 효과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거칠어질 의심은 버리세요. 비누독이 안 쌓이니 피부가 좋아집니다.
* 죽은 세포나 피지가 매일 제거가 되어 때가 안 낍니다.
* 몸의 때는 비누 때로 인해 생깁니다. 비누 때가 없어지므로 때가 안 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현불샵 특별 할인 세트 30,000원
(세트 구매시 배송비 무료 + 추가 할인)

■ 구성 : 삼베훼이셜타올 + 삼베수세미 + 삼베샤워타올 + 삼베항균비누 3개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돌잔치, 환갑, 칠순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청정심이 곧 부처’ 맑은 마음 갖는 공부하세요

조계종 원로의원 · 송광사 조실 **법흥 스님**

처음에는 멋모르고 했던 것이 두 번, 세 번 하려면 두려울 때가 있다. 반복되는 경험 속에 얻어지는 익숙함과는 다른 무엇. 그것마저 극복했을 때가 자신을 향상시키고 진일보 하게 되는 때이다. 또, 겹겹이 쌓여가던 속박에서 벗어난 작은 해탈이리라.

순천 송광사를 찾아가는 길도 그랬다. 법정 스님의 다비식이 있던 3월 13일, 나그네는 밤길을 달려 송광사에 갔다. 그로부터 10여 일이 지난 어느 날, 같은 시각에 다시 송광사를 찾았다.

스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보기 위해 도량을 가득 메웠던 대중은 간 곳 없이 절집은 고요했다. 밋밋하던 도량 한 켠의 매화나무 가지에는 매화 봉오리가 잔뜩 물올라 있었다. 매화꽃 또한 10여 일전 송광사를 장엄했던 대중 같은 봄 손님이다. 계곡의 ‘물소리 바람소리’는 변함 없었다.

송광사 방우산방(放牛山房)에서 법흥 스님을 만났다.

방우산방은 법흥 스님의 은사 조지훈 선생이 말년을 보냈던 오대산 토굴 ‘방우산장’에서 따온 말이다. 조지훈 선생은 방우산장에서 지내며 오대산 스님들에게 외전을 강의했다.

탁월한 기억력으로 경전 줄줄… 이 시대의 아난

사찰 재산 첫 등록 때 촛대까지 손으로 기재

법흥 스님의 기억력은 탁월하다. 경전을 비롯해 조계종 스님들의 이력, 송광사 역사 등을 줄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이들 모두 스님을 ‘이 시대의 아난’이라고 칭송한다. ‘아난’을 모르는 이도 “스님은 컴퓨터세요, 녹음기가 따로 없네요”라며 탄복하는 분이 법흥 스님이다.

법정 스님 입적으로 효봉 스님의 상좌 중에는 법흥 스님만이 남았다. 맏상좌로 조계총림 방장을 지낸 구산 스님(1909~1983)을 비롯해 환속한 고은 시인, 김완일 법사 등이 효봉 스님 상좌였다.

근현대 선지식의 한 분인 효봉 스님(1888~1966)은 ‘절구통 수좌’라 불렸다. 법관 출신 출가자로 유명했던 스님은 와세다대 법대를 졸업하고 판사생활을 하다 첫 사형선고를 내린 후 생사를 고뇌하다가 38세에 늦깎이로 출가했다. 출가 후 치열한 구도의 노력 끝에 깨달음을 얻은 효봉 스님은 1937년 송광사 선방 삼일암에서 조실로 10년을, 1946년부터 5년간은 해인사 가야총림 방장, 1962년 통합종단 출범 후 초대종정 등을 역임했다.

법정 · 법흥 스님은 사형사제간이다. 법흥 스님은 3월 13일 사형의 다비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송광사 선덕 현호 스님,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중앙종회 의장 보선 스님, 원로의원 월탄 스님, 선원대표 혜국 스님 등과 거화봉을 들었다. 이후 17일 법정 스님의 초재에서 법흥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뜨거운 형제애를 보여줬다.

“법정 사형님, 서울삼성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생전에 찾아뵈려 했으나 생전에는 못 뵙고 추모사를 하게 돼 송구스럽습니다. 1960년 팔공산 동화사에서 효봉 스님이 ‘법정, 법흥 들어와라’ 하시며 ‘화두를 어떻게 드느냐’고 했을 때 몸 둘 바를 모르고 떨었던 때가 기억납니다. 1975년 정부기관서 사형님의 전화를 도청하고 편지를 뜯어봐 법정 사형님은 송광사로 내려오셨습니다. 원고료 몇 푼으로 불일암 중창불사를 하던 사형을 도우며 가까이 모셨던 것이 생생합니다. 사형님이 산문집 <버리고 떠나기>를 통해 송광사 행사에는 일체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강원도 산골로 떠난 후로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법정 사형님은 불의에 굴복하지 않았으며 교육포교의 대전략가이자 자타가 공인하는 수필가입니다. 세상은 제행무상, 생자필멸, 회자정리하는 것이지만, 존안을 뵐 길이 없는 이 중생의 슬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법흥 스님의 기억력은 놀라웠다. 스님은 1주일 전 길상사에서 법정 스님 영전에 올렸던 추모사를 송광사에서 나그네에게 그대로 전했다.

“법정 스님이 1932년생이어서 나보다 속가 나이는 한 살 어렸어. 하지만 5년 먼저 출가했으니 내 사형이지. 나는 1958년에 고려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스물아홉이던 1959년 대구 동화사에서 출가했어. 해인사에서 글 쓰던 법정 스님이 1960년 정월 보름에 동화사 금당에 왔을 때 만났어.”

법흥 스님이 회상하는 법정 스님은 자기 하고 싶은 공부만 했던, 얄밉도록 실속 있게 살았던 ‘사형’이었다.

“법정 스님과 1961년 해인사 선방에서 같이 지냈어. 그때 법정 스님이 서산 대사의 <선가귀감> 번역본을 냈고. 해인사에서 보니 스님은 <신동아> <사상계> 같은 잡지를 보고 있었어. 스님은 주지 · 삼직(총무 · 교무 · 재무 등 소임)을 단 한 번도 산 적이 없었지. 내가 동화사에서 교무 소임 볼 때 법정 스님에게 ”같이 지내자“고 하니, 스님이 나보고 ‘스님 공부나 하지 뭐하려고 교무보고 있소’라고 묻더군. 하하하.”

법흥 스님이 동화사 교무 소임을 살 때는 사찰 재산이 처음 등록되던 때였다. 스님은 동화사 70여 말사의 촛대, 향로 하나까지도 일일이 만년필로 옮기며 동화사 말사의 재산을 기재한 장본인이다. 손이 부르트게 펜을 잡고 일했던 자신과 달리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형이 야속하기도 했을 법한데 두 스님의 사형사제지간은 돈독했다. 군사정권 때 비판 글을 잡지에 게재했던 법정 스님은 중앙정보부 감찰이 도를 넘자 송광사로 내려왔다. 원고료 80만원을 들고 불일암 불사를 시작했던 사형을 도운 것은 당시 송광사 주지를 살던 법흥 스님이었다.

“1980년 10 · 27 법난 이후 이를 수습하려고 꾸려진 비상중앙총회에 법정 스님과 함께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 하지만 법정 스님은 그것도 2~3달하고 그만뒀을 만큼 얽매이는 것을 싫어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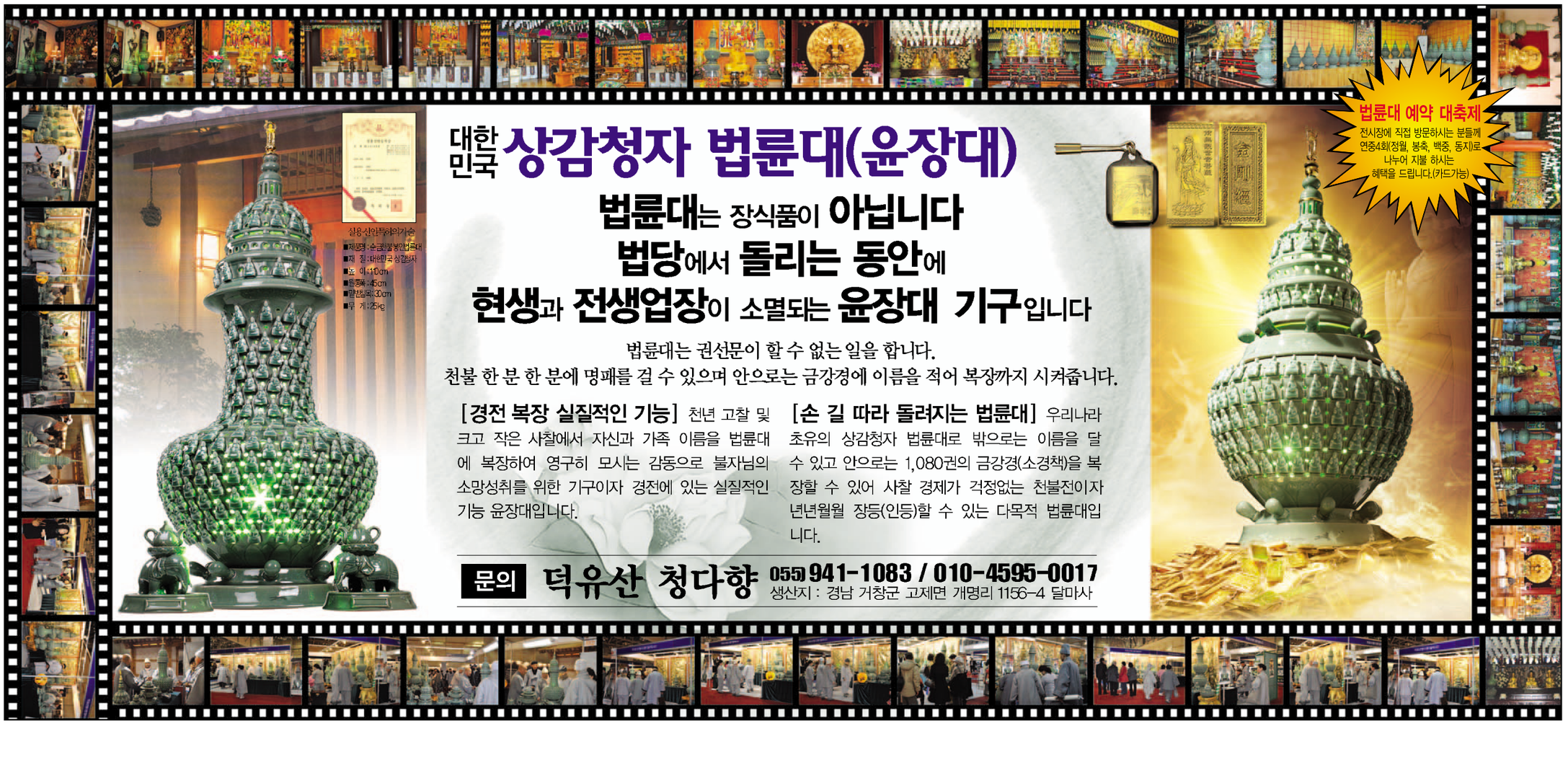
스님은 나그네에게 “요즘 법정 스님 책이 15만원이나 한다며?”라고 물었다. 나그네도 우스개로 “스님, 사형스님 책이니 많이 갖고 계시겠네요?”라고 반문했다.

“아니, 하나도 없어. 몇 권 있던 것도 얼마 전에 청와대(박재완 수석비서관)에서 찾길래 다 보내줬어.”

법흥 스님 방에는 책이 가득하다. 무엇이든 주기 좋아하는 스님이 건네는 선물 가운데 책은 빠지지 않는 ‘필수품’이다. 2009년 스님은 소장해 온 350여 권의 도서를 고려대에 기증해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법흥 스님은 …

1931년 충북 괴산에서 출생했다. 1958년 고려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이듬해인 1959년 대구 동화사에서 효봉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이후 통도사 해인사 상원사 대승사 미래사 망월사 등 제방 선원에서 안거를 성만한 법흥 스님은 1974~1977년 송광사 주지를 지냈다. 1980년 불교정화중흥회의 사무총장, 제4 · 5 · 8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조계종 원로의원이며, 2008년 대종사에 추대됐다. 저서로 <선의 세계> <계율강요>가 있다.



내 마음이 극락도 지옥도 만들어

나그네가 스님을 만나는 동안 문안 인사를 여쭈러 온 한 스님에게도 스님은 책을 건넸다. 나그네도 책을 받았다.

"책에 길이 있어. 난 그 길을 주고 싶은 거야. 내가 선물한 책을 보면서 발심하면 그보다 더한 선물이 어디 있겠어. 자네도 받아서 읽고 발심하는 사람이 되게나."

법흥 스님은 어려서부터 불심 깊은 집안에서 자랐다.

"속명이 윤주흥인데 식구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 '중(주흥)아~ 중(주흥)아~' 로 들리잖아? 절이라면 그저 좋았어."

스님은 대학 졸업 후 출가 원력을 세웠다. 고려대 재학 당시 등하교길마다 고려대 뒤 개운사에서 부처님께 절 올리고, 처소 인근의 신설동 청룡사 새벽예불을 빼먹지 않았을 만큼 스님의 불심은 남달랐다. 스님은 출가를 위해 대승사 묘적암을 찾았고, 그 곳에서 스님은 일타 스님을 만났다.

"'출가하려 왔다' 하니 일타 스님이 '한 아들이 출가하면 구족이 생천한다'며 그 자리서 삭발해주셨어.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이라 속가집에서 대승사까지 40리 길을 지게로 쌀을 지어 나르며 공양주 노릇을 했지. <초발심자경문>도 배우고 3일 동안 1만 배 정진도 했고. 일타 스님이 수행처를 옮기면서 효봉 · 인곡 스님이 있는 동화사로 가서 혜암 스님을 만나라고 일러주셨어."

혜암 스님은 법흥 스님의 범상치 않음을 간파하고 효봉 스님에게 인도했다. 효봉 스님은 법흥 스님에게 "얼굴이 스님상인데 어찌 속가에 있었느냐"며 반겼다.

"효봉 스님은 '스님이 됐으면 참선밖에 더 있느냐? 강사가 죽을 때 후회하며 죽는다. 팔만대장경을 거꾸로 외운다 해서 생사를 해탈하느냐? 기도와 주력은 제 욕심 때문에 한다'며 참선하라고 강조하셨지."

3년만 밑에서 참선 공부하라는 효봉 스님의 당부가 있었지만, 법흥 스님은 큰 절이 보고 싶어 미래사를 떠났다. 은사 효봉 스님만큼은 아니지만 늦깎이 출가를 했던 법흥 스님은 이를 만회하려고 쉼 없이 정진했다. 통도사 보광전, 해인사 선원, 송광사 선원, 동화사 금당선원, 월내 묘관음사 등에 방부를 들이고 정진했다.

"'무(無)'자 화두를 들고 정진했지만 건강이 허락하질 않았어. 그래서 기도를 했지. 오대산 · 정암사 · 법흥사 적멸보궁을 비롯해 남해 보리암, 부석사 무량수전, 강화 전등사 등 기도하러 안다닌 곳이 없어."

법흥 스님은 해인사에서는 성철 스님 권유로 340일 동안 17만 배 기도를 했다. 그리고 또 다시 340일 동안을 하루 네 번 1시간 씩 마지를 올리며 기도 정진했다.

스님의 하루는 새벽 3시 '대불정능엄신주'과 '법화경요품' 독송 등으로 시작된다. 대웅전과 각 전각을 돌며 절을 올리는 스님의 순례(?)는 송광사 주지를 할 때부터 30여 년 넘게 하루도 거른 적이 없다.

스님에게 기도법을 물었다.

법흥 스님은 "구산 스님은 '목탁 치며 자기가 부르는 소리를 스스로 들으며 기도해야 한다'고 했고, 일타 스님은 '구하는 마음 없이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마음 씀씀이에 따라 정토에 나기도 하고, 고해에 빠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마음은 상이 없으니 무상이야. 그런데 이 마음이 모든 것을 지배해. 내가 짓는 마음이 극락도 만들고 지옥도 만드는데,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가?"

육조 혜능 스님이 의발을 빼앗으러 온 혜명 스님에게, 오도 후 입을 연 제일성이 "선도 생각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이러한 때 혜명스님의 본래면목은 어떠한가?(不思善 不思惡 正與時 那箇是明上座 本來面目)"였다. 그 말 끝에 혜명 스님은 크게 깨달았다.

법흥 스님은 "이것이 중도실상의 법문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체 선법을 닦아야 하는데, 바로 마음을 닦는 것이다. 불교공부는 결국 마음공부"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마음을 닦는 것이 수심(修心)이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양심(養心)이며, 마음을 쓰는 것이 용심(用心)"이라면서 "어느 하나 먼저라 할 것도 없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 자신이 무엇인가 반성해 봅시다. 사람은 과연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어야 하는가. 나는 왜 존재하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법흥 스님은 "불교의 가르침은 자신에의 근원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불교의 사상은 불이 자재 평등 해탈 중도"라고 말했다.

특히, 스님은 맑은 마음, 감사하는 마음, 용맹스런 마음을 강조했다.

"맑은 마음(淸淨心)을 갖는 공부에 제일 힘써야 해. 임제 스님은 '청정심이 곧 부처'라 했어. 내 마음이 맑으면 부처의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더러우면 축생의 마음이 되는 게야. 사심 없고, 탐진치 없는 마음, 광명정대한 마음을 가져야 해."

바다 밑 진흙소가 달을 머금고 달아나니(海底泥牛月走)
바위 앞에 돌호랑이가 아이를 안고 졸고 있다(巖前石虎抱兒眠)
철뱀이 금강신장의 눈에 끼어드니(鐵蛇鑽入金剛眼)
곤륜산이 코끼리를 타고 백로가 이끈다(崑崙騎象白鷺牽)

나그네는 방우산방을 나오는 길에 들어갈 때는 보이지 않던 산방의 편액을 보았다. 고봉 화상의 <선요>에서 옮겨진 저 말을 알게 되는 때, 나그네도 청정심을 얻어 부처가 될 수 있을까?

송광사를 나서는 길, 법흥 스님의 가르침이 '물소리 바람소리'처럼 나그네를 적신다.

글=조동섭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87. 인도불교의 개척자 암베드카르

1956년 10월 14일과 15일, 인도 나그푸르의 딕샤 부미에서 50만명이 일시에 불교로 개종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일찍이 세계에 유래가 없었던 대규모 개종으로 기억된다.

이러한 불교 집단 개종식을 주도한 인물은 암베드카르(Ambedka, 1891~1956)다.

암베드카르는 인도 빈민출신으로 유럽에서 법률과 경제를 공부하고 귀국 후 봄베이주정부 요직에 근무했다. 그러다가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자 중앙정부 법무부장관이 됐다. 또 이후 인도의 헌법기초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불교의 평등정신에 의해 새 인도 헌법을 제정했다. 이후 암베드카르는 인도불교협회를 만들고 봄베이와 오랑가바드에 불교대학을 설립했다.

암베드카르가 처음부터 불교를 주장했다. 그래서 귀천을 따지고 빈부격차를 당연시하는 동안 불교는 쇠퇴했고 천민은 더욱 가난해졌다. 다행이도 민족해방운동가 가운데 비베카난다(1863~1902), 타고르(1862~1941), 간디(1869~1948), 네루(1889~1964) 등에 의해서 불교의 재건운동이 전개됐다. 그 흐름을 타고 다르마팔라의 대각회 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돼 불교 유적지에 새로운 사원을 짓고, 불교유적지의 관리와 불탑의 보호도 시작됐다.

또 세계 각국에 불교성지순례를 호소해 도서관 · 박물관 · 의료시설 등이 새롭게 탄생하고, 나란다 팔리 연구소, 파트나의 자야스와르 연구소, 델리대학에 불교학강좌가 개설됐다.

인도의 여러 민족독립운동가 가운데서도 네루와 간디는 "힌두교를 개혁해 민족운동을 실천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타도는 아니었다. 그는 스리랑카에서 불교를 체험한 뒤 불법에 대한 확신에서 개종했다. 그의 개종에 이어 인도의 천민 50여 만명이 함께 불교에 귀의했다. 그래서 현재는 전 인도에 1억에 가까운 불교신도가 생기게 됐다.



"인도 민주화 되는 날 불교는 민중의 별이 되리라"

그의 개종식은 불기(佛紀) 2500년을 기념한 1956년 10월 14일 나그푸르에서 거행됐다. 이 역사적인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암베드카르는 지지자들 앞에서 '불교입문맹세 22개항'을 발표했다.

맹세문의 주요 내용은 △붓다의 법을 택한다 △붓다가 가르친 10계를 지킨다 △모든 생물을 자비롭게 보호한다 △불교야말로 유일한 참된 종교라고 확신한다 △힌두 신전의 어느 신도 인정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는다 △조령제(祖靈祭)를 지내지 않고 제사떡을 드리지 않는다 △붓다의 법에 거슬리는 어떠한 관행에도 따르지 않는다 △어떠한 의식이나 제식도 브라흐만의 손에 의해서 집행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믿는다 △평등권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음을 하지 않는다 △팔정도를 따른다 △선행 · 자비행을 인생지침으로 삼는다 △사람됨에 해롭고 진보를 방해하고 불평등주의적인 힌두교를 고발한다 △붓다가 가르친 그밖의 다른 계율과 교리에 따라 살아갈 것을 맹세한다 등이다.

인도불교가 멸망한 것은 불교 교단의 자체분열과 인도 후기 대승불교의 밀교화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당시 이슬람 세력의 인도 침입은 나라 전체를 어렵게 했다.

1000년간 황무지를 헤맨 인도에 다시 희망의 봄바람이 일기 시작한 것은 다르마팔라의 대각회운동과 암베드카르의 신불교운동 덕분이다.

다르마팔라의 대각회운동은 스리랑카 스님들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반면 암베드카르의 신불교운동은 인도재가불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나 이전과는 다른 운동이었다는데 그의의가 있다.

인도는 사상적으로 힌두교를 믿는 계급과 인종들이 4성 계급고르과 암베드카르는 "사성평등을 먼저 선포하고 해방운동을 실천해야 인도가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견해의 차이를 보이다 결국 힌두교의 개혁운동이 먼저 실천됐다.

이에 대해 암베르카르는 항상 자신 있게 예언했다.

"걱정하지 말라. 인도가 민주화되는 날에는 불교는 저절로 민중의 별이 되리라."

그는 생의 마지막까지 위와 같이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지금도 인도 곳곳에는 부처님과 그의 동상이 1만 여개 이상 건립됐으며 그를 추종하는 백성들은 날로 늘고 있다.

나는 지난 여름 인도를 찾았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암베드카르가 죽은 지 반백년이 됐음에도 인도 전역에서는 암베드카르의 정신이 새롭게 불타고 있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

영봉스님과 함께 나를 찾아가는 '히말라야 행선 트레킹'

세계 최고봉 16좌 가운데 10좌를 한 눈에 볼 있는 곳 히말라야 트레킹의 베스트 코스 피케이봉(4200m)을 오르는 동안 누구나 수행자가 되고 누구나 깨달음의 순간을 체험하게 됩니다.

네팔 카트만두에 영봉스님이 개설하여 운영 중인 **'세종 한국문화 언어교육원'**과 한국내 영봉스님 후원회 **'히말라야의 꿈'**이 공동 진행하는 **제2차** 영봉스님과 함께 나를 찾아가는 히말라야 행성 트레킹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참 안내

▲일 시 : **2010년 4월 9일 (금) ~ 23일 (15일)**
▲코 스 : 인천공항 대한항공 직항 → 카트만두 → 지리 → 시발라야 → 반달 → 마일리 → 불불레 → 베이스캠프 → 피케이봉 정상 → 준베시 → 반달 → 시발라야(의료봉사) → 지리 → 카트만두(시내관광 등) → 인천공항
▲인 원 : **30명 선착순.**
▲참 가 비 : 287만원 (비자비 5만원 별도)
▲입금계좌 : 국민은행 718202-01-142493 (예금주 : 임연태)
▲접수마감 : **4월 2일 (금)**
▲사전설명회 : **4월 3일 (토) 오후 4시** (장소-개별공지)
▲문 의 : 임연태 (히말라야의 꿈 사무총장) **017-236-5769**

공동 주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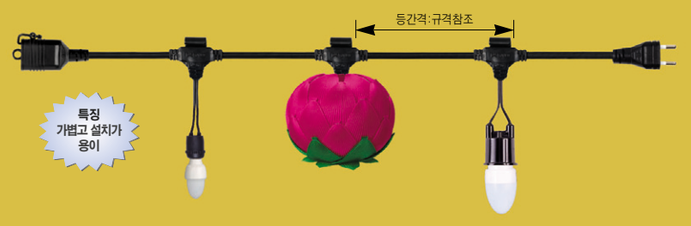
▲세종 한국문화 언어교육원 / 히말라야의 꿈



영봉 (해종) 스님은
1990년 부처님오신날 세계최초 성직자 신분으로 히말라야 메라픽(6750m)을 등정해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이후 20여 년째 안나푸르나, 킬리만자로 등 세계 고산등정을 계속 하고 있다. 현재는 네팔 카트만두에서 '세종한국문화언어교육원'을 설립 현지 가이드 셀파 포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원터치 연등 회전걸이

SMD LED전구(국산정품)

불제새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 (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 (정품)
▶법당용, 외곽용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 (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 (정품)
▶종류: 3W, 5W, 10W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 (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참다운 신앙자들은 모두 양문회에게 귀의해 따랐다

<54> '근대불교의 아버지' 양문회(楊文會)거사

당 · 송대에 전성기를 구가하던 중국불교는 명대로부터 쇠퇴하기 시작했다. 청대에 이르러서는 명맥만이 겨우 남아있을 정도로 쇠락했던 불교는 청말에 발생한 태평천국(太平天國)의 난(1851~1864)으로 인해 다시 존폐의 위기에 이르렀다. 증국번(曾國藩)의 <토월비격(討粵匪檄)>(1854년 2월)에서 태평천국교도들이 "군현(郡縣)을 지나치면서 먼저 묘우(廟宇)를 불사르고…, 불교의 사찰, 도관(道觀), 성황당, 사단(社壇) 등의 모든 묘사(廟舍)가 불타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각 상(像)들이 부서지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고 서술했듯이 태평천국교도들이 점령했던 지역의 불교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더욱이 태평천국교도들이 점령했던 곳이 안휘(安徽), 강소(江蘇), 절강(折江), 호북(湖北), 강서(江西), 복건(福建) 등 중국역사에서 불교가 가장 화려하게 꽃피웠던 지역이었던 까닭으로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이러한 시절에 중국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운 이가 있었으니, 바로 양문회(1837~1911) 거사이다.

양문회 거사는 안휘성(安徽省) 석태(石埭)에서 태어났다. 자(字)는 인산(仁山). 그의 부친은 증국번(曾國藩), 리훙장(李鴻章)과 같은 해에 진사(進士)에 합격했던 경력으로 당시 최고위층과 밀접한 친분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면 충분히 높은 관직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거사는 어려서부터 명리를 싫어해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거사의 손녀가 찬술한 <선조 인산공의 생애(先祖仁山公之生平)>에 따르면, 거사가 불교에 귀의한 계기는 다음과 같다. 나이 3세에 부모가 정해준 약혼녀가 결혼하기 전에 천연두에 걸려 얼굴이 흉하게 됐지만, 거사는 아무 반대 없이 일찍 결혼했다. 그러나 태평천국의 난으로 항주(杭州)에 피난했던 거사는 그곳에서 마음이 통하는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졌다. 양거사는 그녀를 둘째 부인으로 맞으려 했지만 완강한 집안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거사는 모든 일에 회의를 느끼고 매일 서호(西湖)를 산책하며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항주의 어느 서점에서 우연히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을 사서 읽고는 크게 감탄해 불교에 전념했다고 한다.

1865년, 거사는 부친과의 인연이 깊던 증국번 · 이훙장이 금릉(현 南京)에 금릉기기국(金陵機器局)을 건설하자 그 공사의 책임을 맡았다. 양문회 거사는 남경에 도착해 왕매숙(王梅叔), 정학천(鄭學川), 위강기(魏剛己), 조경초(曹鏡初) 등과 함께 불교를 연구하다가 "말법세계를 위해 온전한 경전을 유통시켜 널리 중생을 제도한다"는 의견을 모아 수십 명을 결집해 각경(刻經)의 사업을 구상했다. 이듬해인 1866년 양 거사는 왕매숙, 정학천, 위강기, 조경초 등 10 여 인을 규합해 '금릉각경처(金陵刻經處)'를 설립했다. 이후 '금릉각경처'는 태평천국의 난으로 사라진 불전 보급 등 중국의 근대불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현재에도 여전히 전통적인 방법으로 경전을 판각 · 출판하고 있다.

양문회 거사는 1878년부터 청조(淸朝)의 외교관으로 유럽을 순방했다. 그 과정에서 영국 옥스포드대에 유학하고 있던 난조분유[南條文雄]와 만나게 된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이후 30여 년 동안 지속됐다. 이로부터 거사는 근대적 불교학 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됐고, 또한 이들의 교류로부터 중국에서 이미 산실된 여러 문헌들, 예를 들어 담란(曇鸞), 도작(道綽), 선도(善導) 등의 저술과 규기(窺基)의 <성유식론술기(成唯識論述記)>, 법장(法藏)의 <대승기신론의기(大乘起信論義記)> 등 '500년 이상' 중국인들이 볼 수 없었던 중요한 전적들을 역수입하는 계기가 됐다.

1889년, 거사는 외교관 생활을 그만두고, 금릉각경처에서 오직 불교경전 간행과 후학의 지도에 몰두했다. 1911년 음력 8월 17일 신해혁명(辛亥革命)이 일어나기 며칠 전 양문회 거사는 75세로 입적했다.

중국불교의 특색을 부각시키려 노력
민족정신 담긴 불교사상으로 중국불교 부흥

거사의 업적은 간략하게 불교전적의 각인(刻印)과 보급을 담당하는 '금릉각경처'의 설립과 운영, 불교교의에 대한 체계적인 강론을 위해 각경처 내부에 개설했던 '기원정사(祇洹精舍)', 불교의 심화연구를 담당했던 '불학연구회(佛學研究會)', 다양한 국제교류의 실행 등이다. 이 네 가지 가운데 무엇보다도 가장 토대가 됐던 것은 바로 금릉각경처 설립과 운영이었다.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 보급 없이는 교육이나 학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사의 저술을 모은 <양인산거사유저(楊仁山居士遺著)>(전10책)에 따르면, "낮에는 각경 과정을 감독하고 밤에는 불교를 공부함에 몰두했으며, 교감과 각인(刻印) 이외에 혹은 경전을 읽거나 염불을 하고, 혹은 정좌해 작관(作觀)하기를 자주 밤을 새웠다"라고 적었다. 거사는 만년에 오로지 각경처 일에 전념해 100여 만 권의 경전을 유통시켰고, 10여 만 장의 불상을 인쇄했다.

양계초(梁啟超)가 찬술한 <청대학술개론(淸代學術槪論)>에서 "만청(晩淸)시기에 이른바 신학가(新學家)라는 사람들은 거의 불교학과 관계가 있었고 불교의 참다운 신앙자들은 양문회에게 귀의해 따랐다"라고 평하듯이, 거사가 단순히 불전의 각경과 보급에만 힘을 기울인 것은 아니었다. 특히 '3000년 이래 없었던 격변의 시국'으로 표현되는 서구 열강의 침탈과 서학(西學)의 전래는 당시 지식인들에게 '민족의 최대 위기'로 인식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상을 모두 불교로부터 찾게 된 것은 전적으로 양문회 거사의 영향이었다.

거사의 불교사상은 초발심의 계기였던 <대승기신론>(이하 <기신론>)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거사는 "<기신론>은 으뜸 되는 가르침을 원융해 불교를 배우는 요전(要典)이고 불교를 배우는 강종(綱宗)이다. 그러므로 항상 <기신론>을 스승으로 삼는다"고 말해 <기신론>을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모두 파악케 하는 가장 핵심적인 논서로 보고 있음을 보였다. 주지하다시피 <기신론>은 '일심이문(一心二門)'의 원융으로 모든 대승의 교의를 회통하고 있는 논서이다. 양문회 거사 역시 <기신론>을 근간으로 중국불교에 출현한 거의 모든 종파를 통섭했다.

양 거사는 난조분유에게 <기신론> 범본(梵本)의 존재를 물었다.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식에 큰 실망을 했다. 양문회 거사는 "만약 <기신론> 범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필시 위서(僞書)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각경(刻經) 원칙으로 세운 '삼불각(三不刻)' 가운데 '의서(疑書)나 위서(僞書)는 판각하지 않음(有疑僞者不刻)'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거사는 지속적으로 <기신론>과 그와 관련된 전적을 출판했다. 더욱이 1894년, 상해에서 영국인 선교사 티모시 리차드(Timothy Richard)와 함께 <기신론>을 영역해 중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고자 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거사가 품은 민족불교의 사상적 경향을 추론할 수 있는 단서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거사는 결국 <기신론>의 범본이 없음을 인정했고, 그것이 중국찬술이라는 가능성을 도리어 중국불교의 특색을 대표하는 것으로 파악했기에 그를 더욱 부각시키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거사의 민족정신이 가득 담긴 불교사상은 당시의 지식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양계초를 비롯해 장태염(章太炎), 담사동(譚嗣同), 강유위(康有爲), 양수명(梁漱溟) 등 근대의 개혁사상가들은 거의 모두 거사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채원배(蔡元培)는 1900년에 <불교호국론(佛教護國論)>을 발표했다. 그가 전개한, 불교만이 질곡에 빠진 중국을 구제할 수 있다는 논리는 양문회 거사의 민족주의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거사가 설립한 '기원정사'에서 수학한 이들은 태허(太虛), 인산(仁山), 개오(開悟), 지광(智光), 관둥(觀同) 등 스님을 비롯해 거사로는 구허명(邱虛明), 사무량(謝無量) , 구양점(歐陽漸; 歐陽竟無), 매광희(梅光羲) 등이 있다. 기원정사 출신인 이들은 모두 근대중국불교의 중심인물들이다.



거사의 <탑명(塔銘)>에는 "말법(末法)이 창망(滄茫)하고 종풍(宗風)이 마르고 끊어진 시대를 맞이해 떨치고 일어나 몸은 도에 맡기고, 논사(論師) · 법장(法將) · 장주(藏主) · 경방(經坊)의 네 가지 일을 과감하게 겸하고, 삶을 마칠 때까지 게으르지 않고 정성을 다했다"라고 쓰여 있다. 이로부터 거사의 일생을 충분히 엿볼 수 있으며, 또한 그의 업적을 가장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음이 짐작된다. 즉, 양 거사는 '논사'로서 끊임없이 불교를 연구하고 찬술했으며, '법장'으로서 당시의 추락한 불교계를 개혁했다. 또한 '기원정사'와 '불학연구회'를 개설해 친히 강의를 담당했다. 또, '장주(藏主) · 경방(經坊)'으로서 '금릉각경처'를 세워 수많은 불전을 편집해 각경 · 출판 · 유포시켰다. 이러한 거사의 노력은 쇠퇴한 중국불교를 다시 부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근대에 위기에 처한 중국의 상황을 불교의 사상과 원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조를 나타나게 했다.

바로 '민족불교'이다. 그에 따라서 후인들은 거사에게 '근대불교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부여했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귀신뽑는 신통술!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과 모습의 점쾌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상대방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
귀신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제 권하기가 쉽습니다.!
* 귀장술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매매 • 이동운 보는 법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귀장술12신궁의 금전재물운 보는 법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부부인연因緣에 낀 액운厄運암시록
* 집안 동토귀신 알아내는 법
* 자녀액운 착귀탈 정단법
* 취직시험 • 승진시험의 합격 판단법
* 선거 후보당선 벼슬하는 여부 판단법
* 관청 • 공무원 빈자리 입관가능여부
* 소송 • 관재사의 승패 판단법
* 보고싶은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식가능일
* 가출자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 잃어버린 분실물 위치 추정법
* 도주 • 도망간 사람이 어느쪽으로 갔을까?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원귀법
* 12신궁에 암장된 악령귀신
* 귀장술歸藏術로 보는 前生투시법
* 前生의 夫婦인연 원침살이 現生에 미치는 현상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빙의착귀신론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사후死後환생 귀신작해론
* 산소 • 무덤에 관해서 [음택법]
* 무덤안 유골의 현재상태 알아내는 법
글 • 백초스님
상 • 하권 / 720면 / 정가 각 120,000


百超律歷學堂
입금 계좌 |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비법전수중
(02) 3667-4446
010-3813-4443

요절복통 여래네 집

#5. 불꽃놀이



스튜디오 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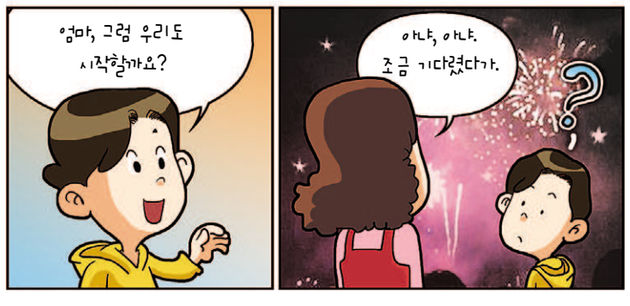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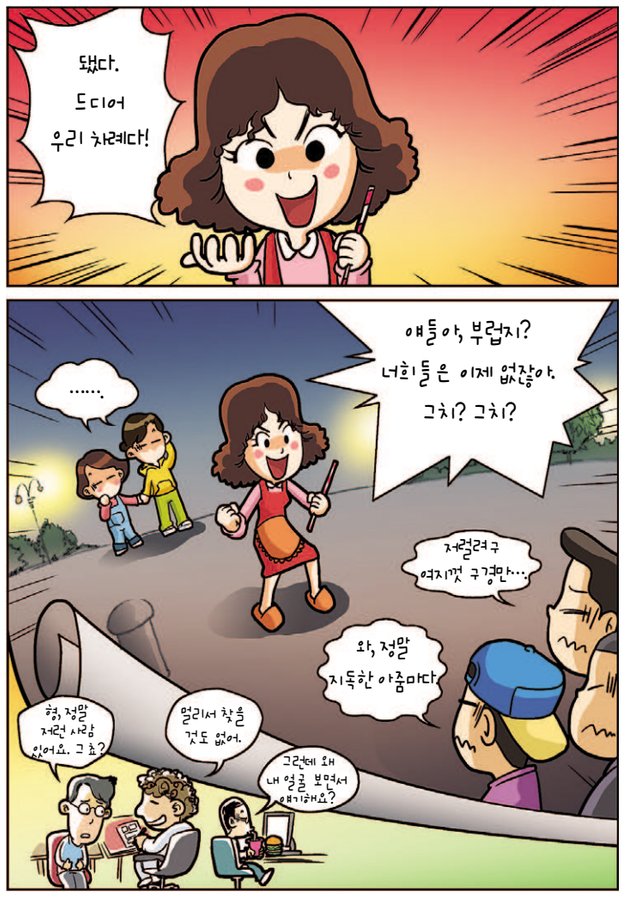












이주일의 화두

억울함을 당했다고 해서 굳이 밝히려 하지 말라.
억울함을 밝히고 나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닦는 문을 삼아라 보왕삼매론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www.yangjikukak.com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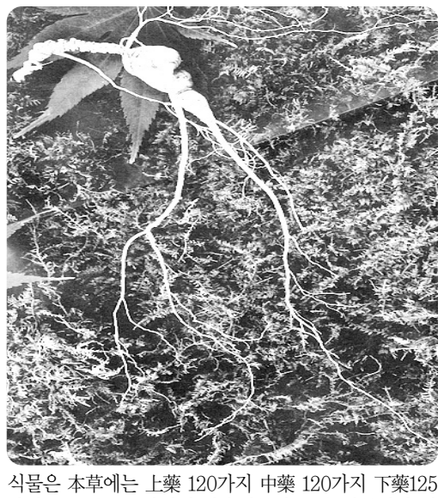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自然 품격높은 최고의 선물!!!

100% 순수 국내산! 국내산이 아닐경우 1억원 배상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께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0년,120년 외 자연 산삼 보유. (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문의상담**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30년 전통의 산삼취급전문업체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심 마 당 국립농산물 품질관리 검정필 (분석 51160-150)

주문처 | 서울 (02)713-7798 / 010-5250-7798

현대불교 독자가 읽은 이 책

14살 인생 멘토



'아름다운 가치를 지켜 낸 사람들의 인생 보고서'라는 책의 부제는 조금 묵직한 첫 인상을 준다. 그나마 노란색의 화사한 책 표지가 그 묵직함을 좀 덜어주었다고나 할까. 하지만 책을 펼친 순간, 인물들의 사진과 그림, 그리고 마치 시집처럼 여유로운 글자들이 내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렇게 부담 없이 읽기 시작한 책인데, 페이지를 넘기면 넘길수록 생각이 자꾸만 많아진다.

부제가 말해주는 것처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면서 자기보다는 남을, 안락함보다는 불편함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묶은 책이다. 기존의 위인전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있지만 대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이다.

청소년들이 이 책을 통해 자기만의 멘토를 만나는 것이 이 책을 쓴 저자의 바람이다. 사람의 외면적 가치보다는 내면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 자기 인생의 멘토를 정할 수 있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아이들을 키우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나 자신도 잘 모른다. 그저 가족 모두 건강하고 아이들이 공부 잘 하기를 바라는 평범한 엄마가 되어있다고나 할까?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살아가는 나를 되돌아보면 문득 우울한 자화상에 멈칫하는 순간이 있다. 14세 청소년만 멘토를 찾을 일이 아니라 이 책을 읽는 그 누구라도 멘토를 찾았으면 좋겠다. 나와 같은 보통의 엄마들도 말이다.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면 나이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꿈 꿀 수 있다면 나이가 대수랴

어니스트 새클턴, 에릭 호퍼, 이찬형(효봉 스님), 레이첼 카슨, 장준하, 유일한, 무하마드 알리, 유영모, 존 로빈스, 공병우, 권정생, 노먼 베쑨, 채규철 등이 그들이다.

일제강점기 때 판사 이찬형은 독립만세를 외친 독립투사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려야만 했다. 그 후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3년을 떠돌았다. 그리고 서른여덟, 늦은 나이에 머리를 깎고 정진을 거듭해 조계종의 초대 종정 효봉 스님으로 거듭나게 됐다. '항상 변화할 수 있는 존재가 곧 인간이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인생에 대해 생각이 커지는 14세

14살 인생 멘토 | 김보일 지음 · 박윤환 그림 | 북멘토 펴냄 | 1만2000원

강지숙 / 서울 상계동에 산다. 초등학교 4학년, 1학년 남자아이를 키우며, 세상 일에도 관심이 많은 주부다.

행복하고 싶다면 부처께 물어라

법륜 스님 '인간 붓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 … 용맹정진 이어 순회강연

한국 사회는 매우 불안정하다. 도무지 평화의 길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 남북 관계를 비롯해 정부는 시민 · 종교단체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4대강 사업을 강행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여성 · 교육 · 노사 · 빈곤 · 지역갈등문제 등 무수한 사회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모든 것이 발전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지만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 변화는 전 지구적인 재앙이 돼 세계 곳곳에서 홍수, 가뭄, 폭설, 혹한 등이 삶을 덮치고 있다.

법륜 스님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을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주장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청하고 배려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따끔하게 충고한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쓰는 것을 행복으로 삼는 현대인들이 오히려 행복과 점점 멀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법륜 스님은 그 해답을 부처님으로부터 찾고자 했다. 2010년 지금, 부처님이 다시 오신다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에 대한 해답이 <인간 붓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에 담겨있다.

책은 2600여 년 전 부처님의 삶을 다시 조명하고 그의 삶을 통해 지금 여기 우리 삶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나침반과도 같은 책이다.

불자들에게 부처님은 숭배의 대상이다. 그러나 이 책은 부처님을 신성의 영역에만 가두어두지 않고, 학문적 탐구의 대상으로도 보지 않았다. 이 책을 통해 신화와 역사의 세계를 넘어 현대 사회의 수많은 모순과 문제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살아 있는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저자 법륜 스님은 "인도에서 살다 가신 한 성인의 일대기를 학문적으로 정리하기 위함도, 부처님의 위대함을 찬탄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그 분의 삶을 통해 우리 삶의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 책은 불교에 문외한인 초보자들에게도 유익하다.

부처님이 태어난 인도의 자연환경과 시대적 배경에서부터 부처님의 전생담,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난 부처님이 최초로 인간의 삶이 고통이라는 현실을 인식하고 출가해 6년의 고행 끝에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일대기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법륜 스님



책은 △부처님이 오신 나라, 인도의 사상과 역사 △신화의 세계에서 인간의 역사로 △위대한 인간의 탄생과 성장 △위대한 출가, 왕궁을 떠나 중생 속으로 △고행과 성도의 4개 장으로 구성됐다.

각 장은 <방광대장엄경> <불본행집경> 등 부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부분을 발췌해 스님이 해설하고 부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 것인지 화두를 던져주는 형식으로 시작한다.

스님은 "경전에 나타난 부처님의 삶은 사실적이고 역동적이었다. 이 책에서 2600여 년 전 역사속의 부처님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모순과 문제점들에 대해 지혜의 눈을 열어 보여주는 살아있는 부처님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토회를 설립한 저자 법륜 스님은 제3세계를 지원하는 활동가이자 평화운동가다. 스님은 2000년 만해대상 포교상, 2002년 아시아의 노벨평화상이라 불리는 라몬 막사이사이상(평화와 국제이해부문)을 받았다. 스님의 저서로는 <행복한 출근길> <날마다 웃는 집>과 즉문즉설 시리즈 <답답하면 물어라>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등 다수가 있다.

한편 스님은 출간을 기념해 3월 22~31일 부처님의 출가일에서 열반일까지 '출가용맹정진'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인간 붓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이라는 내용으로 4월 3일~5월 9일 전국 20여 곳에서 순회강연을 가질 계획이다. (02)587-8994

인간 붓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 | 법륜 지음 | 정토출판 펴냄 | 1만4500원

이나은 기자

천년고찰, 그 안의 역사를 읽다

한국에서 불교는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 숭유억불정책을 썼던 조선시대까지 그 명맥이 이어졌다. 사찰은 역사적 유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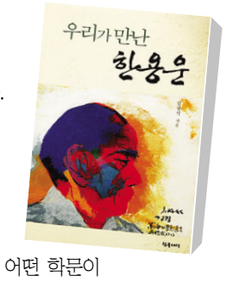
<우리 절에서 역사적으로 쉬고 오다>는 우리 국토의 명산 승지마다 반드시 만나는 천년고찰 27곳을 순례하고 사찰의 유래부터 역사적 사실, 가람배치, 각 건물의 의미 등 사찰과 관련한 모든 것을 엮은 책이다.

저자 이호일씨는 △삼보사찰(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5대 적멸보궁(통도사, 상원사, 봉정암, 정암사, 법흥사) △3대 관음성지(낙산사, 보문사, 보리암)를 비롯한 명찰기행을 통해 각 사찰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배경을 자신만의 감성으로 풀어냈다. 또한 명승지마다 자리한 고찰이 불교문화의 보고가 되기까지 그 의미를 되새겼다.

우리 절에서 역사적으로 쉬고 오다 | 이호일 지음 | 가람기획 펴냄 | 1만5000원

늙어 후회 말고 당장 용단을 내라

김광식 교수, 이 시대 다시 만난 한용운 스님 조명해



만해는 왜 스님이 됐을까? 만해는 어릴 적부터 나라에 대한 소명의식이 남달랐지만 인생의 근원에 대한 갈증이 늘 따랐던 것 같다.

만해는 소년 시절부터 역사에 빛나는 위인들의 기개와 사상을 흠모했다. 만해가 18세에 청운의 꿈을 안고 서울을 가던 길이었다. 문득 유년시절 고전에서 봤던 "인간의 삶이란 덧없는 것"이라는 내용이 떠올랐다. 덧없는 인생을 바로 알고자 했던 불같은 마음은 그를 백담사로 이끌었다. 만해의 40년 출가생활이 강원도 백담사에서 시작된 것이다.

책은 3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는 만해의 사진으로 구성됐다. 제2부에서는 만해와 박한영, 김경봉, 이춘성, 효당, 강석주, 조지훈 등과의 인연을 그려냈다. 제3부는 만해의 올곧은 성품이 드러나는 일화를 소개했다.

책을 통해 만난 만해는 그야말로 대장부다. 그는 독립 운동가들에게 "우리가 가는 길이 가시밭이라도 하늘과 땅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용감하게 행하자"고 말했다. 만해의 남다른 나라 · 민족 사랑의 노고에 고개가 숙여지는 대목이다.

만해는 의지를 실천해 온 열정적 인물이었지만 '가지 않은 길'에 아쉬움이 남아 있었나보다. 1929년 6월 <별건곤> 잡지에서 '나에게 만약 청춘이 다시 온다면'의 기고문을 통해 자신이 청춘이라면 전문분야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피력한 것이 그 예이다.

"내가 오늘날 과거를 회고하니 어떤 학문이든지 한 골수로 돌진해 그곳에서 진리를 깨닫고 사회발전에 일조했기를 절실히 감득한다. 그러한즉 금일 청년들은 나처럼 나이 들고 기력이 쇠진한 뒤에 후회하지 말고 당장 일대 각오와 용단을 내리라 충고하고 싶다."

만해의 시대에서 강산이 바뀌어도 여러 번 바뀌었다. 세상은 시끄럽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정 필요한 것만 취할 수 있는 지혜가 절실한 때다. 자신이 가고 있는 길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지금이야말로 나태한 정신을 다잡을 때라고 느끼고 있다면, 만해 스님의 애정 담긴 호통 한마디 들어 보는 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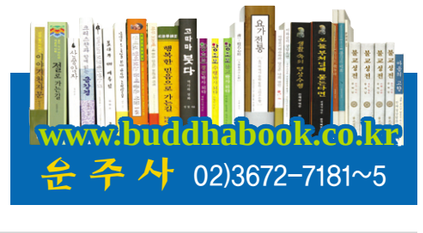
우리가 만난 한용운 | 김광식 지음 | 참글세상 펴냄 | 1만5000원

박선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2	법정스님 숨결	변택주	큰나무
3	날마다 웃는 집	법륜	김영사
4	선객	법광	한걸음 더
5	건널 강이 어디 있으랴	대행	한마음선원
6	나는 걷는다 붓다와 함께	청전	휴
7	사는 즐거움	보경	뜰
8	부처님의 생애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9	이 세상에 당신과 함께 있어 기쁩니다	성전	마음의 숲
10	누구 없는가	법전	김영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보경스님의 『화엄경』 「약찬게」 강설

"소원을 말해봐!"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야."

간절한 소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차례로 만나 깨달아 가듯이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기도 정진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허공은 헤아려도 마음의 체는 다 헤아릴 수 없으므로 크다.
바닷물은 다 마실지라도 법문은 다함이 없으므로 바르다.
이 세계를 가루로 부순 숫자는 헤아려도 묘한 작용은 헤아릴 수 없다.
깨달음도 떠난 깨달음으로 만법의 그윽한 곳까지 다 비치고,
만행의 향기를 펴고 모든 덕이 영화롭게 빛나고,
원만한 행과 덕으로 십신을 장식하고,
현묘한 곳까지 꿰어 빛나는 진리의 묘체를 형성한다.



보경스님 지음 | 296면 | 값 13,000원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1020호 ☎730-2500 불교시대사

마음을 깨울 소중한 부처님 말씀
한권으로 읽는
아함경

아함부 경전에서 가려뽑은
소중한 부처님 말씀 300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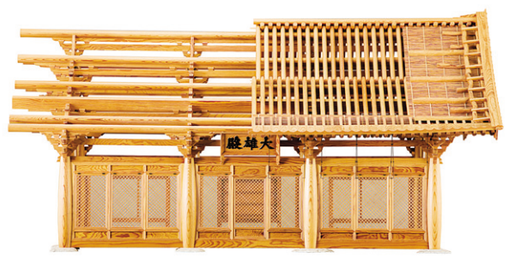
시공을 뛰어넘어 가장 원형적이고 생생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아함부 경전을 통해서
우리는 2,600년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홍사성 엮음 | 560면 | 값 25,000원

배흘림기둥에 빠져볼까?

국립중앙博 우리 목조건축展 6월 27일까지


고려시대 대표적 목조건축물인 수덕사 대웅전.


수덕사 대웅전의 측면 모습.


부석사 무량수전의 주심포 기둥과 배흘림 기둥.


2년 전 화재로 소실된 숭례문을 재현했다.

우리나라 목조건축물의 변천사를 한 눈에 파악하고,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은 상설전시실 1층에서 '우리 목조건축, 어떻게 변해왔나' 전을 6월 27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에는 신석기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목조건축물 모형 44점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목조건축의 특징을 짚어볼 수 있는 자리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불교의 발전에 따른 목조건축의 변화도 파악해 볼 수 있어 의미가 더 깊다.

목조건축전은 서울 암사동과 파주 교하리 움집 발굴조사 성과를 토대로 신석기 · 청동기시대 움집의 모습을 보여준다. 삼국시대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집모양 토기 등 관련 자료와 고려 · 조선시대의 주요 목조건축물을 실제와 똑같이 재현해 냈다.

목조건축의 역사는 신석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굴이나 바위그늘에서 생활하던 인간은 신석기시대에 건축이라 부를 수 있는 움집을 만들게 된다. 움집은 땅을 파내 나무와 풀을 이용해 만든 간단한 구조의 움집이다. 움집은 청동기시대에 본격적으로 농사가 시작되고, 마을이 생기면서 다양하게 발전해 갔다.

삼국시대에는 왕권을 상징하는 궁궐과 불교의 전래로 인한 사원건축이 성행하면서 기와집이 발달했고 이전에 비해 웅장하고 다양한 건축물이 만들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황룡사 9층 목탑이다. 재료나 형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진 고구려의 무덤벽화, 백제 · 신라의 석탑, 집모양토기 등을 통해 당시 조상들의 지혜와 뛰어난 건축기술을 살펴볼 수 있다.

고려와 조선시대는 목조건축의 전성기였다. 고려 말에 나타난 다포계 형식은 이전의 주심포계 형식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고유의 건축형식으로 발전하게 된다. 조선시대는 궁궐, 관아, 서원, 사찰, 일반주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축물이 만들어졌다.

현존하는 목조건축 중 수덕사 대웅전, 부석사 무량수전, 강릉 객사문을 비롯한 광화문과 근정전 등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조건축물이다. 각 시대를 대표하는 목조건축물들은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신응수 대목장에 의해 다시 제작돼 고건축의 아름다운 미를 다시 한 번 발산한다. 특히 2년 전 화재로 소실됐던 숭례문이 모형으로 제작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최광식 관장은 "우리 목조건축의 역사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대표 목조건축들을 한자리에서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리"라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상설전시인 고려실과 조선실 등을 연계해 관람하면, 건축의 변화뿐만 아니라 각 시대의 문화를 총체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시대를 아우르는 대표 목조건축모형과 함께 건축물 사진이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함께 전시된다.

또한 건축기술이 발달하면서 함께 변화된 건축 도구도 관람할 수 있다. 처음에 돌로 만들어진 도구가 청동이나 철로 바뀌는 과정까지, 시대에 따른 건축도구의 종류와 변화도 엿볼 수 있다. 한편, 영상실에서는 '만월대의 고려왕궁'과 '80년 전 사진으로 보는 우리 목조건축' 영상물도 상영된다. (02)2077-9000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깨달음 향한 항해는 끝나지 않았어

수덕사 선미술관서 東大 김대열 교수 선화전

계절의 깨달음을 알려주는 꽃망울이 터지는 봄날, 또 다른 깨달음을 알려주는 선화(禪畵)전이 열린다.

동국대 김대열 교수는 최근 개관한 수덕사 선미술관에서 '선(禪)'을 주제로 전시를 개최한다.

김 교수는 오랫동안 '시심마(是甚麽)'를 화두로 작품에 매진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화두를 통해 얻어진 자신의 선적(禪的) 깨달음을 그림과 글로 함께 표현하고자 시도했다.

김대열 교수는 "선적(禪的) 깨달음이란,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신비한 체험"이라면서 "그 내용을 언어나 문자로 설명해 전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행위가 없고 형상이 없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 해도 말을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의 선화는 은은하고 담백하면서도 강렬함을 동시에 보여주며, 묵의 향과 그가 써내려간 글귀들은 어딘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느낌이 든다. 작품은 작가 개인에 대한 화두이지만, 선은 삶에 대한 화두다. 많은 사람이 김 교수의 작품에서 조형언어로 표현된 메시지에서 선 이야기를 듣는 까닭이다.

김대열 교수가 이 시대에 들려주기 위한 이 시각언어는, 단순한 작품을 넘어 한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던진 화두의 해답들이다.

김대열 교수는 "자신의 작품이 배라면, 아직 항해는 끝나지 않았다"며 "아직도 노를 저어가고 있는 중"이라


'선(禪)'을 주제로 한 동국대 김대열 교수의 수묵화 작품.

말했다. 4월 1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봄날 꽃향기를 맡으며, 그가 젓는 배에 올라 禪에 대한 물음을 던져보자. (041)337-6565 이은정 기자

트라팔가에 새겨진 우리 나무 부처님

런던서 '부처가 입을 열다' 展

한국의 불교문화가 영국 런던 한복판인 트라팔가 광장에서 선보인다.

주영한국문화원(원장 원용기)과 목아불교박물관(관장 박찬수)은 불교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부처가 입을 열다' 전을 4월 10일~5월 29일 런던 주영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한다.

주영한국문화원 초청으로 열리는 전시회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박찬수 목조각장의 작품 60여 점을 비롯해 목아불교박물관이 소장한 불교예술품 73점이 소개된다.

박찬수 목조각장은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부처의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며 "이번 전시는 그런 고민에 대한 대답을 얻고자 마련된 전시로 한국 전통불교미술품들을 통해 한국 전통불교미술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에는 불교에 생소한 영국인들에게 한국 문화와 불교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전통다례, 템플스테이, 불교영상 상영, 불교워크숍 등 불교관련 행사와 전시장 방문객들에게 한국불교문화를 간직할 수 있도록, 연등을 만들어 가져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한다.

추규호 주영대사는 "이번 전시는 한국의 불교미술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양국의 수준 높은 문화를 다각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영국 런던 트라팔가에 소재해 있는 주영한국문화원에서 전시될 박찬수 목조각장의 '나는 누구인가'.

기회이며, 영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자긍심을 높여주는 기회"라면서 "한영 양국간의 우호도 한층 깊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031)885-9952, www.moka.or.kr 이은정 기자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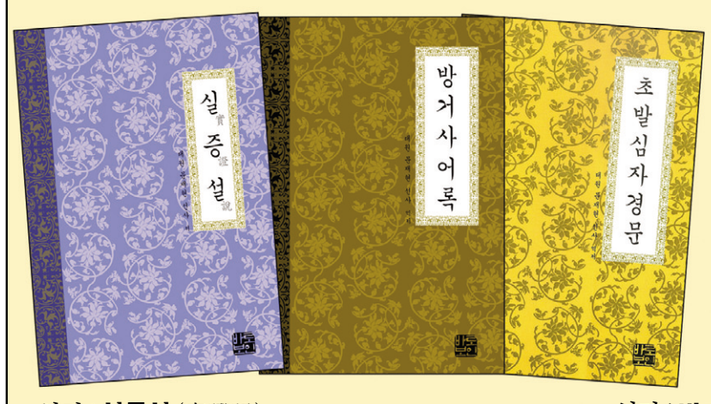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30권 중 15권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신간! 실증설(實證說) 2010년 2월 14일 구정을 맞이하여 불자들에게 불법의 참뜻을 보이기 위해, 홀연히 붼을 들어 일시에 써내려간 실증설. 실증한 이가 아니고는 설파할 수 없는 일구의 도리로 보인 1부와, 태초로부터 영겁에 이르는 성품의 이치를 낱낱이 법문으로 설한 2, 3부를 보아 실증하기를...

신간! 방거사어록 말 밖의 말을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의 말로 잘할 수 있었을까.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여기 방 거사의 말은 본연의 바탕에서 꽃피우는 일상의 함이라 하리라.

대원 선사 서문 중에서...

정맥선원 대원 문재현 선사님 법회 문의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최연의 산 이야기 <5> 북한산 4

북한산 물줄기가 도성을 풍요롭게 적셔주는구나

북한산성은 백운대에서 남쪽으로 보현봉, 문수봉까지 뻗은 주능선과 서쪽으로 뻗쳐 있는 원효능선과 의상능선 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을 벗어난 두 곳에도 산성의 흔적이 있다.

그 하나는 원효능선 상에 있는 영취봉(염초봉)과 의상능선 상에 있는 증취봉(증봉)을 잇는 즉, 북한산성의 허리 부분을 가로질러 축성된 성곽인 중성(重城)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북한산성의 외성으로 향로봉에서 남쪽으로 세검정 계곡의 홍지문(弘智門)까지 이른 산줄기에 쌓은 미완의 성인 탕춘대성(蕩春臺城)이다.

북한산성은 북, 동, 남쪽은 산줄기로 둘러쳐져 방어에 용이한데 서쪽으로는 대서문(大西門)에서 중성문(中城門)까지 계곡길을 따라 지형이 평탄하고 지대가 낮아 적에게 쉽게 뚫릴 수 있다.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병목과 같은 지형을 이루고 있는 곳에 계곡을 가로질러 구축한 2차 방어선으로서 중성(重城)을 쌓았다. 중성의 축성은 수구(水口)와 홍예(紅霓)의 축조와 함께 숙종38년(1712년)에 시작하여 숙종40년(1714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탕춘대성은 북한산성의 외성(外城)으로 북한산성의 향로봉에서 도성(都城)의 인왕산을 잇는 성곽으로 조선후기의 기록에 의하면, 그 위치가 향림봉(향로봉)에서 불암(佛巖: 옥천암 보도각 백불)까지 이어지고 홍제천을 건너 인왕산의 도성까지 연결하려 했던 것 같으나 미완의 상태로 중단되어 인왕산 지역에는 현재 성곽이 남아 있지 않다.

탕춘대성이 위치한 세검정 계곡 일대는 도성과 북한산성의 중간지대로 전략적 요충지로서 서해(西海)를 통해 한강에 진입한 적들이 지금은 월드컵 경기장이 들어선 불광천과 홍제천의 합류지점에 상륙하여 홍제천 계곡을 따라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도성(都城)과 산성(山城)의 코밑인 세검정 계곡까지 들이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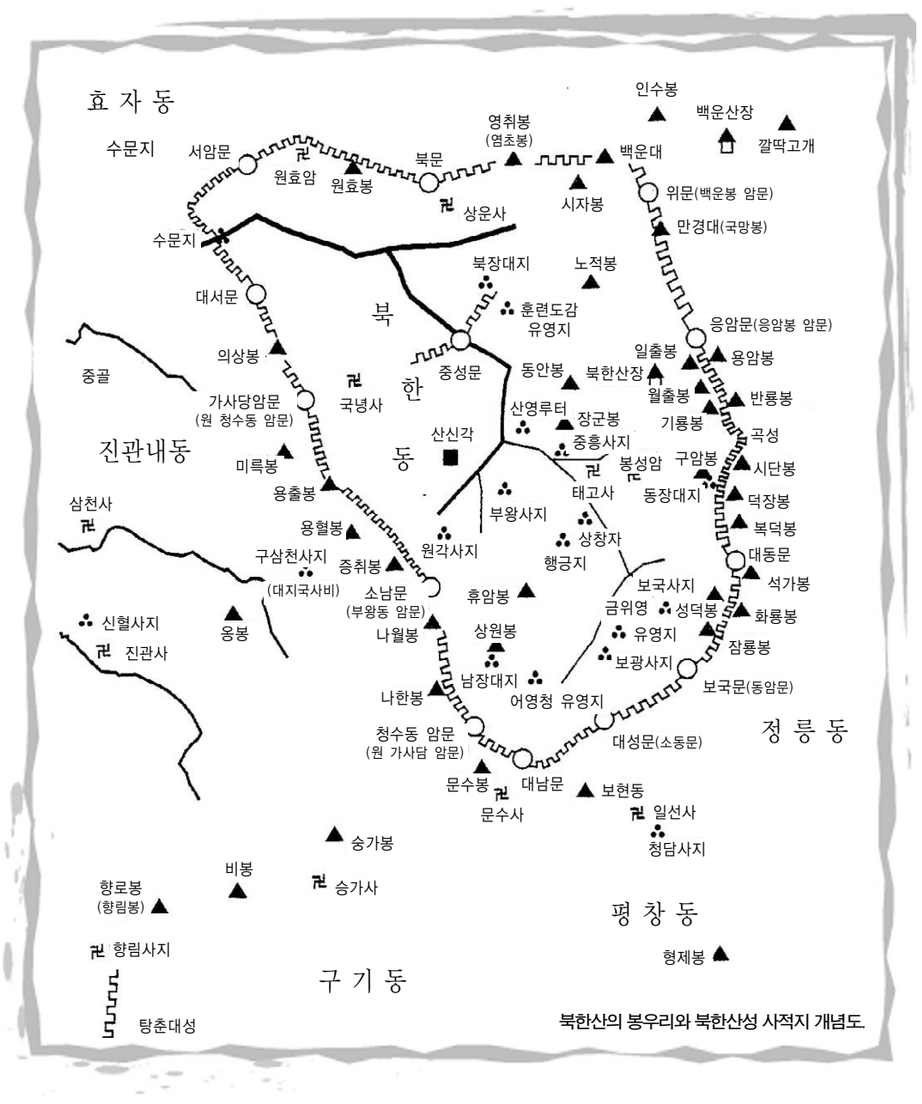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탕춘대성을 축성하기에 이르는데 숙종39년(1713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신하들의 찬반양론으로 중단과 재개를 거듭했다. 숙종45년(1719년)에 신하들의 강력한 반대가 대세를 이루어 결국 공사를 중단하고 미완의 성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므로 현재 남아 있는 탕춘대성은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쌓다가 그만둔 것이다.

탕춘대(蕩春臺)라는 이름은 신라 태종무열왕 6년(659년)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두 화랑인 장춘랑(長春郞)과 파랑(罷郞)의 의로움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장의사(藏義寺)를 연산군이 헐어버리고 경치 좋은 이곳에 연회장을 짓고 미인들과 질펀하게 놀아났는데, 부근의 큰 바위를 탕춘대라고 한데서 유래되었다.

연산군에 의해 폐사된 장의사는 고려 태조의 국사(國師)였던 원종대사 찬유(贊幽)와 법인국사 탄문(坦文), 자정국존 미수(彌授) 등 고승을 배출하였고 고려의 국왕들도 자주 다녀갔다.

조선 초까지 1,100 여명의 승려가 살았고 지붕을 청기와로 덮은 대가람이었다. 그 위치는 세검정초등학교 부근으로 운동장 남쪽에 보물로 지정된 당간지주가 남아 있다.

탕춘대성이 위치한 세검정 계곡 일대는 역사 지리적으로도 매우 주목 되는 곳이다. 신라 진흥왕이 북한산 비봉(碑峰)에 순수비(巡狩碑)를 건립할 때 지나간 곳도 이곳이고, 신라 무열왕이 두 화랑의 의로운 죽음을 기리기 위해 세운 장의사도 이곳이고, 고려 선종(宣宗)이 삼각산의 장의사 · 신혈사 · 인수사를 참배한 일이 있었고, 고려 의종(毅宗)이 승가사 · 문수사 · 장의사를 참배한 일이 기록으로 전하는 것을 보면, 이곳은 북한산에 오르는 주요한 길목으로 이미 잘 알려진 지역이었을 것이다.



북한산의 봉우리와 북한산성 사적지 개념도.

북한산을 타고 내린 물줄기는 모두 한강(漢江)으로 유입되는데, 북한산의 동쪽 사면으로 흘러내린 물은 우이천(牛耳川)이 되어 도봉산에서 흘러내린 도봉천(道峰川)과 묵동쯤에서 만나 수락산의 서쪽 사면으로 흘러내린 물과 하나 되어 도성의 외수(外水)인 중랑천(中浪川)을 이룬다. 상계, 중계, 하계의 마들 평야를 풍요롭게 적셔주고 한양대 앞 살곶이 다리에서 청계천과 합류하여 한강으로 흘러든다. 보현봉과 문수봉에서 발원하여 서남쪽으로 흐르는 홍제천(弘濟川)은 녹번천을 받아 안은 불광천(佛光川)과 난지도쯤에서 합류하여 한강의 품에 안긴다.

형제봉 능선 동쪽 사면으로 흘러내린 물길이 한줄기는 성북천(城北川)이 되어 창신동쯤에서 또 다른 한줄기는 정릉천(貞陵川)이 되어 용두동쯤에서 인왕산과 북악 사이에서 발원하여 도성 안을 서에서 동으로 관통하는 청계천(淸溪川)과 만나 살곶이 다리에서 중랑천과 만나 한강을 이룬다.

■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새의 집

'파다다닥.'

새의 화급한 날갯짓 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려온다. 멈칫, 소나무 아래로 들어가던 발을 멈춘다. 푸르름이 가득한 소나무 잎 아래, 잔가지들이 빽빽하게 얽힌 곳에서 들려온 소리였다. 하루 일을 마치며 밤을 보낼 자리를 잡고 휴식에 들어간 (어둠 속에서 해야 할 일을 시작한 것인 지도 모른다.) 새가 날개를 접을 때의 마음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울림이었다.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높이의 가지였지만 신변의 위험을 느낀 새의 본능이 날개를 펴덕여 더 높은 곳으로 자리를 옮기게 만들었을 것이다. 의식하고 판단하여 행동에 옮긴다면 늦다. 목숨은 본능적 감각이 의식 이전에 개입하여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지켜낸다. 목숨은 본능의 영역이다. 그렇기에 목숨 앞에서 몸을 사리고, 두려움에 떨며, 살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는 사람의 모습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새가 겁도 많다' 고 얘기하려니 나 또한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으며 발을 멈추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본능이 의식보다 먼저 나를 제어했다. 새가 겁쟁이라면 나도 겁쟁이다.

내 발자국 소리에 놀란 새가 위로 오르는 것을 보니 새는 역시 하늘과 가까운 모양이다. 나는 날개가 없어 하늘로 올라갈 길이 없으니 일단 멈추어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산그늘이 길게 드리운 저녁. 밤은 발 앞까지 다가왔다. 오늘의 집으로 새가 선택한 소나무는 잔가지들이 촘촘하게 엮여져 작은 새들이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곧잘 찾아드는 곳이다.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화들짝 도망가는 새의 소리를 접할 때마다 나는 덩달아 놀라곤 한다.

> 오늘처럼 눈이
> 소나무를 뒤덮은 날엔
> 지붕이 온전하게
> 만들어진 하얀 집이
> 새들의 집이다

땅보다 하늘이 가까운 새들은 고정된 집이 없다.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 집을 가지려는 마음조차 없앤 듯하다.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는 번식기에 둥지를 만들긴 하지만 시기가 지나면 미련 없이 집을 떠난다. 고정된 집을 버렸다하여 세상 전체가 그들의 집인 것은 아니다. 잠자리가 될 만한 장소는 새들에게도 널려있는 것이 아니어서 매일 매일 안전하게 밤을 보낼만한 공간, 하룻밤 동안의 집을 찾아 밤을 보낸다.

새에겐 새의 집이 있고 사람에겐 사람의 집이 있다. 서로 다른 대상을 비교하여 좋고 나쁨을 얘기할 순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집들이 가면 갈수록 크고 복잡하고 단단해져, 하늘을 찌르고 땅을 찌르고 사람 자신의 마음도 찌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까지 떨쳐내긴 어렵다.

사람은 대개 평생 동안 집 한 채를 짓거나 돈을 주고 산다. 이곳 사람들도 자신이 마련한 돈으로 느지막이 집 한 채 새로 짓고 남은 인생을 살다가 죽는다. 아이들 다 키워서 시집 장가까지 보낸 뒤 모은 돈으로 집을 한 채 짓고 나면 환갑을 훌쩍 넘겨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 자신이 지은 집에서 사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다.

오늘처럼 눈이 소나무를 뒤덮은 날엔 지붕이 온전하게 만들어진 하얀 집이 새들의 집이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을 짓는 품도 들이지 않고, 하얀 지붕을 얹은 나무집을 갖게 된다.

산 아래 마을의 등불이 점점 환하게 빛을 발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문득 집의 따사로운 기운이 번져온다. 집을 밝히는 빛이 따사롭게 다가온다는 것은 내 스스로 그런 집을 원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 내 속마음이 내게 본 모습을 들켰다.

밀려드는 어둠과 추위에 맞설 준비를 마치고 나뭇잎과 가지로 만들어진 집에 몸을 맡긴 채, 밤을 맞이하는 새와 같은 자세를 갖추지 못한다면, 따스한 사람의 집은 영영 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내보이지 않을 것이다.

산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꺾일 줄 모르고 다가오는 길 위에 서서, 나는 집을 향해 발걸음을 쉽게 옮기지 못하며, 빠르게 내려앉는 어둠을 바라보았다.

■ 유승도 (시인)

新제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증인 모든 양초 제조. 판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수공예양초
한봉밀납양초의 특징
1. 그을음이 없습니다.
2.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항균효과는 물론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을 줍니다.(아토피등 피부질환 및 호흡기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3. 한봉 벌집에서 추출한 우리의 밀납이 자연환경과 건강을 생각합니다.
※고 · 목조건물, 목조각품(사찰의)탱화 등에 침법을 막아주어 문화재 보존에 다소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봉밀납양초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8㎝]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6㎝]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서울 총무원 02)579-3690
연락처 010-2606-5121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 학 · 빙의 · 퇴마
스님이 쓰는 역학과 최면 영가와 명리를 실전위주로 확실한 비법을 개인 지도함.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역학 : 귀신 빼는 명리(우주물상을 연상법으로 사주, 궁합, 택일,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귀신든 병
스님 : 염불, 사물, 사찰 운영법 지도
부산 051)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역학 동영상 CD 판매
역학! 집에서 혼자 학습 할 수 있습니다
www.saju.or.kr
010-4800-2378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대한불교도서관건립 불사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불자님들의 가내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佛書의 典當 대한불교도서관 건립에 뜻있는 불자님들의 선근인연을 기다립니다
현책도 대 환영합니다
대한불교도서관추진위원회
010-2002-6332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악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군불교전통의식군
불공, 49재(입제,회향)
범음범패
천도재, 산신기도, 방생기도,
점안식, 이운식, 작법, 바라
* 성심 성의껏 모시겠습니다.
금해 스님
010-4720-6522

전 통 범 음 범 패
실전위주 교육
천도재, 49재, 점안식, 수륙재, 영산재, 화청, 바라나비무, 각종불공
천도전문도량
학인모집, 신행상담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동양불교범음대학)

염 불 역 학
1달속성완성
- 조용한 신축사찰에서 승려가 개인지도,
- 1인1실욕실완비, 숙식제공,
- 경기양평 부근.
- 스님, 예비스님, 법사, 보살, 행자
- 사찰운영자 및 역학관심인

011-716-3811

기초 (명리학) 작명학 수강생 모집
- 기초에서 응용까지
- 3개월 완성
- 개인 및 단체강의
- 저렴한 비용

문의 전화 : 011-711-5072

역학 개인지도
(명리학, 신점)
- 조용한 도심사찰에서 기도하면서 공부하실 분
- 철저한 개인지도
- 숙식제공, 30일 완성

032)584-4684

복두산에 자리하고 있는 아담하고 조용한 곳, 자연과 더불어 기도성취하며 공부하고 싶은 스님이나 형제처럼 의지할 인연 찾습니다
관 음 사
010-9092-9972

인연을 기다립니다
50세 비구스님입니다.
무주상 불사를 하실 분,
절 운영을 맡기실 분,
함께 절을 운영하실 보살님.
연락주시면 신심을 다하여 불사하겠습니다.
010-2500-1514

불사 함께하실
참신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북 제천 서원사
043)644-4580
010-4543-4580

신심으로
절에서 일하실
처사님 모십니다
011-9707-3490

기도스님이나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61)332-7588
011-9604-473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보시금은 상담 후 결정
010-3188-5103

공양주 구함
연령 : 60세 미만
반찬,음식 경력있는분.
▷북한산 노적사
02)353-4924
010-9262-5714

비구스님 모십니다
(각종 의식에 능숙하신 분).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8819-8988

기도와 공부를 함께 할
태고종 부전스님 모십니다.
- 열반처를 구하는 스님을 특히 환영합니다.
- 신심이 돈독한 공양주님을 모십니다.

010-2069-0135

조계종 노비구승이 건강상 쉬고자 본종의 비구니 50~60대 스님으로 고찰 조용한 곳에서 정진하며 사찰을 돌보며 평생 사실 비구니 스님 찾고 있음. 조계종 스님만 전화바람.
지장보궁 내원암
경북 054)653-1180
010-6353-1180

대방등 대집경 대승기도
-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 위치 : 백선사 절 (전철1호선 부천역 소명사거리 3층)

☎ 032)664-0048 / 011-741-086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울산, 월 보시금 100만원
052)275-082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011-9854-9810

경북 경남
산속 토굴 구함.
세도 가능함.
018-525-5289

법당 보살, 종무소
직원(운전가능),
공양주보살 구합니다.
▷숙식가능
032)522-8131
016-302-7711

금강송 분양 안내
9년산 금강송 판매
- 그루당 4만-6만원 (1.5m ~ 2.5m 크기)
- 15그루 이상 주문 접수
- 소나무 이동작업 후 인도

016-573-2032

여 사무장 구합니다
(PC 가능자)
40-50세, 출퇴근 가능
▷서울 강북소재 사찰
011-9087-6287



하루밤에 깨우치는
나경(패철)사용법
문학박사 전용원 저 2만 5천원 전국 대형서점
전화주문: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2만 5천원 입금, 전화주시면 저자가 직접 서명하고 낙관찍어 월간역학 1권 (8,800원) 무료기증 함께 보내드립니다.
전화 1688-1137 역학 동영상강의 www.kbs.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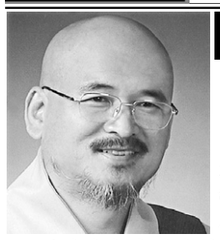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문의 ☎ 02)374-9886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한옥 사찰건축 전문
- 완벽한 사찰건축 기획, 설계, 시공 및 사찰불사 자문일체 (토목, 건축공사 일체)
- 먼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안목
- 건축 전(全)공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사찰불사(佛事)로서는 귀중한 돈만 낭비되고 결코, "절 다운 절이 되지 못하며 그러한 사찰은 도량의 기운이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껏 보고 지적해왔습니다

고건축 전문 기능인 그룹 (人安)
031)581-2120 / 061-741-1624

최면 · 전생 · 역학전수
- 빙의 퇴마 심리치료 (강의 5회 완성)
- 속성반 운영 (출장가)
- 명리학 완성, 작명
- 개인 속성반, 그룹반 (출장지도 가능)

무애선원 051)611-0927
석산스님 010-9984-9794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분야이름
문의 051)867-8438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국가공인한자1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명리학 개인지도 속성*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탕 옆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이름 · 상호 팔자에 맞게끔 찾아드립니다. (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경산,칠곡,구미,포항,서울,뉴욕,감포 4월 동시모집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목 · 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주1회 공부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문의: ☎ 053)474-8228
- 다음카페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모집: ☎ 010-2488-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행자(예비스님) 및 기도스님모집
백고좌 대법회 봉행도량에서 행자(예비스님) 및 기도스님을 함께 모십니다.
- 누구나 수행하는 열린도량!
- 개성존중 및 자율적인 분위기로서 수행공부와 수계이후의 모든 지원
- 성 별 : 남자 (행자) ● 학 력 : 고졸이상
- 비구,비구니 : 각각 1명(기도&법사) ● 공양주 : 2명 (숙식제공)

※매년 1회이상 백고좌 대법회를 봉행하며 법납 30년 이상 비구,비구니 법사스님의 추천을 원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잠1길 2-9
대한불교조계종 법왕사 · 법왕불교대학
www.bubwangsa.or.kr 053)766-3742

성명을 통변 위주로 공부한다!!
10기생 모집을 위한
무료 공개 강의
이름에 관한 모든 것
4월 1일(목) 오전 11시
구궁성명학 • 사주명리

■ 이런분은 꼭 들으세요
· 여기저기 다니다가 지친분 :
성명학 5개월 후 부터는 수입이 생기는 방법이 있다.
· 역학관 개업을 앞두고 계신분 :
사주보다 쉽고 확실한 통변술이 여기 있다.
· 돈을 벌면서 역학공부를 하실분
· 출가를 앞두고 계신 모든분들
· 역학을 5~10년을 해도 통변이 않되는 분

※수료와 동시에 성명학 감정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개업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한국 최초의 구궁성명학으로써 사주보다 정확한 통변으로 고객층을 두텁게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사주명리, 기문둔갑, 육임육효, 관상, 내정법 등에 정통하신 이광재 교수님이 사주명리 · 관상 · 육호 강의를 하십니다.

좋은이름연구원 원장 송학 남상규
(3,6호선 연신내역 7번출구 도보 1분거리)
02)383-8860 / 010-7701-2248

특강 영가 찾는 법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비법과 사주, 육효로 찾는 법, 역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간단한 원리로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무료공개강좌 - ① 3. 27(토) 14:00 ② 4.1(목) 14:00

○ 본 강의 : 개강 4월 2일(금) 14:00시

1. 조상(귀신)이 발동한 것을 아는 법 : 어느 조상에게 빌어야 되나? - 대.세운에서도 발동한 것을 찾는 법
2. 기도를 하더라도 묶여있거나 장애가 있는 곳에 가서 풀어야 된다.
3. 본 법을 알면 무속인의 주장신도 알 수가 있다.
4. 무속인 보다도 더 정확하게 뽑아낸다.
5. 결혼하면 양가집 조상이 부딪치는 가정

◆ 3개월과정(기초 없으신 분은 보강해 드림)
○ 1월차 : 기초이론, 사주로 찾는법과 활용법
○ 2월차 : 대.세운활용법, 치방법, 실전응용
○ 3월차 : 생년월일로 찾는법, 육효 등으로 찾는법, 실전응용

※ 명리,육효학 기초반 (주 · 야) 모집

백 암 역 리 연 구 원
02)597-1101. 011-9150-2284
2호선 선릉역 1번 출구 200m

스님...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1 사찰매매시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2 이사장(前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하우로 가람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직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불교은행 보현사 신협 확장 이전기념 (2008. 01. 28) 이사장 지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1-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대불교 조계종 입종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본 종단에 제방 스님 법사님들께서
대불교 조계종 입종에 관한
문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입종 절차를 안내합니다.

■ 입종자격 : 사찰을 운영하시는 주지스님 사찰에서 수행 정진하시는 스님 , 포교당을 개설하실 분 , 부처님을 뫼시고 수행하시는 법사님, 보살님
■ 입종서류 : 주민등본 1통, 사진(여권용) 3매, 이력서 1통, 종단서식 (총무원, 각 지역종무원비치)
■ 입 종 비 : 20만원 (사찰등록증, 도첩, 임명장, 승려증을 보내드립니다.)
■ 각 종무원 : 경기남부 종무원장 청허 (010-3438-1280)
충남서부 종무원장 혜안 (010-5342-1376)
경북 종무원장 해능 (054-781-4054)
전북 종무원장 진성 (063-546-0048)
충북 종무원장 오봉 (043-297-0394)
광주전남 종무원장 성산 (062-261-1515)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여권용사진 3매 (입종원서 등은 본종단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본 종단은 사유재산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불교 조계종 총무원
주 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학생회관 1길 29호
전 화 : 041) 551-5537 FAX : 041) 621-5537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02)2004-8215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마감. 다음주 수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위치 : 경북	●위치 : 경북	●위치 : 대구
●법당 : 50외 44	●법당 : 40평	●법당 : 24평
●요사 : 117평	●요사 : 100평	●요사 : 84평
●부지 : 3,000평	●부지 : 230평	●부지 : 700평
●가액 : 13억	●가액 : 23억	●가액 : 17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서울뉴타운	● 위치 : 서울산사	● 위치 : 강원
● 부지 : 100평	● 부지 : 1700평	● 부지 : 5000평
● 종교용지	● 법당 : 100평	● 법당 : 30평
● 용적율350%	● 요사 : 60평	● 요사 : 60평
● 가액 : 10억	● 가액 : 29억	● 가액 : 8억 5천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구하는 사찰 알습니다.
※구입자금 융자 알선해 드립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알선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 및 토굴안내

시내 아담한 법당
- ●대지 평수 : 108평
- ●법당(전통와가) 30평, 주지실 15평
- ●1층: 요사, 방 6칸
- ●부산 앞 바다, 남향, 뒷산 공원
- ●가액 : 3억 8천

부산 근교 아름다운 대사찰ㅈ
- ●총 대지 : 약 5600평
- ●법당 32평, 목조(5포7포)
  요사채 외 건물 8동(시민선방)
- ●텃밭 1200평, 주차장 300평(버스)
- ●총금액: 15억(청룡백호 확실)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괴정 2동
- ●평수 : 3층, 4층, 5층(135평)
- ●3층 : 방 4개(처소, 친견실, 종부소, 부전실 外)
- ●4층 : 공양실 및 큰방 3개 ●5층 : 대법당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 월 80만원
  시설비 2,800만원
- ●도심 포교당 최적지, 좋은 조건임

010-2599-6020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자연관광지
- ●계곡물 철철,경관 수려함
- ●법당, 요사채 산신각, 각 1동
- ●부지 임야 10,000평
- ●가액 : 4억

011-877-7677
010-4876-5535

포교원(급)안내

- ●위치: 마산 운동장 옆 산호시장 부근
- ●평수: 30평(3층 중 2층 전체)
- ●삼존불, 신중탱화 ●즉시법회 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천만원
- ●스님 부재 중으로 급 안내

055)232-7151
019-550-9725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팔달동 마을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차고, 창고, 법당 뒤 대나무,
- ●옆 계곡, 깨끗한 우물
- ●계절마다 꽃이 피고 산세수려
- ●즉시 법회 가능, 몸만 오시면 됨
- ●평수 대략 250평
- ●문중땅. 건물 시설비 6,900만원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4504-7809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시내
- ●재래시장안에 있는 포교당
- ●보살, 법사님, 스님에게 적합함
- ●법당 45평
- ●보증금 4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9367-2618

포교원 안내

- ● 위치: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역 2분)
- ●평수 약 42평 (3층중 2층)
- ●법당 약 20평
- ●방 2개 주방겸 거실
- ●포교활동 최적지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별도

010-4626-2258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에서 1시간 30분거리 원주 세밀 IC에서 5분거리
- ●대지 : 400평 ●건평 : 90평
  (대웅전 3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55평)
- ●계곡산세수려한기도도량, 최고의명당
- ●가액: 3억 5천만원

033)345-5597
011-771-5597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감만시장 앞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 ●3층법당, 4층 요사채
- ●동불 삼불
- ●즉시법회 가능
- ●시설비 1,500만원 절충가능

051)638-1134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롯데마트 옆
- ●평수 : 140평
- ●가액 : 전세 1억 월 170만원
  시설비 있음
- ●모든 시설 완벽하며,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8766-03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 ●대지 87평, 2층건물
- ●1층 요사채 34평
- ●2층 법당 24평
- ●특징: 안강읍 시장, 대형마트 각각 5분거리
- ●1,2층 모두 도시가스 설치
- ●가액 2억 3천만원

016-9290-4656
032)347-4656

조용한 토굴(급)안내

- ●위치 : 공주시 정안면
- ●평수 : 25평, 20평(등기필)
- ●황금벽돌
- ●시설 완벽하게 갖추어져있음
- ●가액 : 3천 5백만원정
- ●중국 청도 이주로 급 양도

011-9405-8186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시 서구 비산 4동
- ●법당 약 30평
- ●삼존불
- ●보증금 3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300만원

010-5340-6357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광안 3동 망미역 1번출구 근처 2층
- ●법당 : 50평
- ●관음보살,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방 2칸, 주방, 화장실 2칸, 다용도실, 창고, 다락
- ●전세 1500만원, 월세 45만원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8740-375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양
- ●평수 : 280평
- ●법당 : 22평 (불사중 90% 완공)
- ●요사채 : 33평(완공)
- ●산신각, 창고, 화장실
- ●50년이 넘는 오래된 사찰
- ●원하는 금액에 양도 하고자함

010-3877-2579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459번지
- ●대지 약 900평,
- ●법당, 요사채 합 60평
  산신각 6평
- ●주차장 약 500평
- ●전세 4500만원
  시설비 1,000만원(시설비 조절가능)

010-2747-979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율동리
- ●대지 및 건물 : 800평
- ●건물 : 법당, 요사책 약 50평
- ●산신당 약 5평, 용왕당 약 2평
- ●가액 : 평당 40만원

016-9711-8309
011-9570-830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도천면
- ●총 1309평 중 종교용지 220여평
- ●법당 15평, 산신각 5평 요사채 42평
- ●부곡온천 차로 7분거리 논리보건소 인근
- ●가액 : 1억 5천만원

010-8675-4088

포교원안내

- ●위치 : 인천 강화읍 관청리 마을 뒷산
- ● 인법당 10평
- ●(동부처님 삼존불) 산신각, 요사채(방4개)
- ●대지 140평
- ●보증금 300만원, 월20만원
  시설비 1700만원

010-5713-5678
032-932-3678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사하구 괴정동 역세권
- ●대지 230평
- ●건물: 법당, 요사채 각 40평
- ●은행융자 3억원, 노인요양병원 적합
- ●가액: 7억 9천만원(절충가능)

011-584-1291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신정3동 487-3
- ●50평, 반지하
- ●삼존불, 탱화, 산신님, 덕성님 원만히 다 갖추어져 있음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천만원
- ●완벽한 포교원

010-4040-3588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에서 1시간 30분거리 원주 세밀 IC에서 5분거리
- ●대지 400평 ●건평 : 90평
  (대웅전 3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55평)
- ●계곡 산세 수려한 기도도량 최고의명당
- ●가액: 3억 5천만원

033)345-5597
011-771-559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대지 총 800평, 법당 20평
- ●요사채 2채, 방 4
- ●큰 창고, 주차시설완비, 관상용 양어장
- ●깨끗한 약수가 있는 곳, 현재 관광지 목적으로, 림도(林道)산림욕을 공사하고 있는 곳
- ●비구니 스님 기도처로서는 최고 명당
- ●가액 : 2억 3천

010-3138-4897

사 찰 안 내

- ●위치 : 고흥근 도화면
- ●법당 35평, 요사채 2동
- ●산신각 1동, 종각
- ●평수 1,000평
- ●가액 : 1억 5천만원

061)832-3136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호계동 280-3번지 3층 건물에 2층
- ●평수 60평, 법당 25평
- ●종무실 1칸, 방 3개
- ●공양간, 주방, 화장실 각 1개
- ●보증금 3,000만원 / 월 55만원
- ●시설일체 완비

010-6553-2828

포교원 안내

- ●위치 : 청주시 흥덕구 은천동
- ●평수 70평, 2층, 큰방3, 작은방3
- ●공양간, 세면실 별도
- ●현재 법회중,
- ●주차시설 양호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절충

043)222-9686
010-9199-7897

사 찰 안 내

- ●250년의 도심지 최고의 포교지 고찰
- ●위치 : 부산시 중심가
- ●평수 : 200평,법당, 목조30평,
- ●산신각, 목조 단청 완료
- ●요사채: 공양간, 종무소,
- ●방사 7개, 창고 2개
- ●250년된 소나무 두주
- ●가액 : 답사 후 조절가능

051)291-1162
011-590-2878

암자터안내

- ●위치 : 충북 영동군 영동역 3분거리
- ●도로인접
- ●뒷산 독바위, 정남향
- ●전체 : 467평
- ●가액 : 평당 5만원

010-5048-994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
- ●약 900평
- ●법당, 요사채
- ●산세 수려하고 물도 좋음
- ●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1억 8천만원

055)672-0340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공덕 1동 531-1번지
- ●2층, 3층 각 70평, 합 140평
- ●2층 공양시, 회의실, 찜질방
- ●3층 법당, 종무실, 스님방, 부전방, 객실
- ●삼존동불, 소불168불
- ●2층, 3층 단청 내부시설 완벽,
- ●주차 편리
- ●보증금 1,500만원에 월 10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2878-3380

사찰터 및 공장안내

- ●된장공장 인수하실 분
- ●위치: 강원도 영월 근교 동강 앞
- ●산좋고 물좋고, 경치 좋은곳
- ●땅 2,200평, 고급주택 1동
- ●공장 1동, 시설완벽함
- ●가액 : 5억 5천만원
  (절충 가능함 _주인직접)

011-792-8969

포교원 안내

- ●위치 : 안성시 보개면 구봉산자락의 명당터
- ●대웅전 및 요사채 포함
- ●건물 5동,
- ●용궁 수질 1급수
- ●연못에는 비단잉어약1천마리
- ●100m전방에 골프장
- ●대지 1100평, 용도는 근린시설
- ●가액: 16억
  물물교환도 가능

011-249-675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장호원 버스 정류장앞
- ●법당과 방 2개
- ●삼존불, 산신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칠성탱화, 지장탱화, 산신탱화
- ●약사여래불 108불
- ●가액: 3500만원(시설비포함)

031)642-8345
010-7711-7926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5000평부지 (2000,3000평 분할가능)
- ●사찰부지 허가 필
- ●전기, 지하수 개발 완료
- ●팔공산 불사 인연 희망자께 파격가로 양도
- ●주인직통

010-4512-0813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 휴식공간 30평
  사무실1, 방 6개.
- ●시설 최상급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상담 후 절충가능

010-4199-0047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안락2동
- ●면적: 2층 30평 (별도 출입문)
- ●법당 25평 (탱화 10점)
- ●소불 100분, 인등 270등
- ●보증금 5백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2천만원
  (법요 및 집기 비품 일체 포함)

010-2446-2626

포교원(급)안내

- ●위치: 강남대로, 논현역 7호선 신논현역 9호선 중간 영동시장 대로변
- ●위치 A급
- ●법당시설완비
- ●사무실, 방 1
- ●시설비 포함 7,000만원

010-4031-6643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동구 좌천동 가구거리
- ●대지 35평 , 건물 30평
- ●법당, 요사채(방2), 욕실, 주방, 심야보일러
- ●몸만 들어오시면 기도 가능
- ●보증금 2백만원, 월16만원
  시설비 2천만원
- ●스님 건강상(급)안내

010-2660-4090

포교원 안내

- ●위치 : 청주시 흥덕구 동명1동
- ●건물 : 3층 건물에 2층 ●건평 : 33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700만원
- ●법당 및 시설 일체 완비

010-6315-1158

포교원(급)안내

- ●서울 화곡역1분거리 번화가
- ●버스정류장앞 시장입구
- ●3층건물 중 3층 옥상사용 ●법당 20평
- ●후불탱화, 백의관음불, 후불,산신탱화
- ●현 성업중, 시설완비,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2300만원 . 확장불사관계로 급 임대함

010-3552-3351

사찰 연수원 터 안내

- ●충남 홍성군 은하면 대율리 355번지
  홍성 IC에서 약 10분거리
  홍성읍에서 시내버스 다님, 도로 옆
- ●대지 약 400평 , 임야 약 9천 9백평
- ●답 약 2천 2백평, 지목은 관리지역
- ●공장부지로 최적지이지만, 수련원, 연수원 실버타운, 사찰터 최적지임
- ●현재도 스님께서 수행중이심
- ●약 개간 5,000평 가량 되어 있음
- ●조경수 심어져있음 ●가액: 평당 20만원 선

02)555-7718
011-237-7718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 도심속 전통사찰양식,아담한 사찰
- ●법당 30평(단청) ●요사채3, 방 3 ●2층 공양간
- ●산신각, 독성(용왕단) , 소불 1500불, 용왕당, 문수동자200불
- ●대지 50평에 약 100평사용
- ●주차장 확보 (주인직)
- ●가액: 4억(절충가능), 교환도 가능

017-516-0773 (주지스님)
010-3550-6771(보살)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에서 10분거리(8km)
- ●부지 : 총 5200여평(종교1000여평)[전체 관리지역]
- ●건물 : 법당 외5포내9포25평,지장전목조17평, 삼성각목조8평, 요사채54평, 45평, 황토목조18평, 5층사리탑, 등
- ●주변 : 아름다운조경, 대형주차장, 텃밭천평 (건물가능), 별장터.
- ●가액 : 15억 상담후 절충가능

055)356-6083
sambon4@naver.com

명 당 터 안 내

- ●위치: 경남 창영 ●평수 : 임야 약 1만평(약 80% 사용가)
- ●특징 : 사찰 암자 및 선산 등 . 모혈명당, 고암면 감리 (밀양 넘어가는 국도 첫째 산, 정봉 아래 정혈, 도로에서 약 120M)
- ●가액 : 28억 5천만원. 평당 30만원(전체가 한송이 명당) 인연자에게 가격 떠나 양도.

043)744-2951

포교원 안내

- ●최고의 명당사찰 터 ●총 대지 : 5,000평
- ●경북 청송 주왕산 사계절이 펼쳐지는 곳
- ●대웅전 30평, 관음전, 지장전, 삼성각 단청완료
- ●석등 大 4개, 中 4개, 석탑 3개
- ●요사채 : 공양간, 방사 4개, 창고, 목욕탕
- ●일급수 약수물 자연식수, 도로 사정 아주 좋음
- ●종단 본산 수련장, 교육도량으로 적합
- ●복지시설, 약초재배도 가능

051)291-1162
011-590-2878

포교원(급)안내

- ●수원시 세류동 주택가 지하 45평
  수원 시외 버스터미널, 밀레오레 300m
- ●법당1, 방사2, 샤워실1, 세탁실, 창고1
- ●칸막이 시설 되어 있음 (시설비 의논 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바람

011-279-3538
010-3381-3538



Dr.황의 바른 자세 바른 생활 ⑫ 허리디스크

갑자기 찾아오는 병은 없다

허리디스크(이하 디스크) 하면 흔히 몸을 많이 쓰는 노동자에게 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디스크는 나이와 직종에 관계가 없이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힘든 노동자라 할지라도 자세가 바르면 디스크에 걸리지 않고, 쉬운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자세가 나쁘면 디스크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디스크의 또 다른 이름 입니다. 척추 마디마디 사이의 척추관이 좁아지거나 디스크(추간판)의 탈출로 인해 척추신경 · 혈관이 눌려 발이 차가워지고 둔부와 종아리를 거쳐 발까지 저릿저릿한 감각 이상 증상이 생깁니다. 이 압박이 계속되면 다리 마비, 배변 장애, 성기능 장애를 일으킵니다.

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럼 왜 척추의 추간판이 탈출되는 것인가요?" 필자의 경험으로는 물건을 들다 삐끗하여 디스크 판정을 받으신 분보다, 어느 날 갑자기 뚜렷한 이유 없이 허리를 움직이지 못해서 검사를 받아보니 디스크 판정을 받는 분이 더 많습니다.

우리 몸은 갑작스런 외상과 충격으로 인한 '추간판 수핵(척추 사이의 원판이 유연한 핵심적인 부분) 탈출'보다는, 척추 마디와 골반의 정상 범위에서 벗어난 비틀림과 휘어짐으로 인한 '디스크 수핵 탈출'의 증상이 보다 보편적 원인입니다. 또, 성장기의 아이가 특별한 외상이 없는데, 디스크 판정을 받았다면 원인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디스크의 원인은 척추의 뒤틀림과 휘어짐으로 인한 체중 불균형 하중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시간 책상에 앉아 있는 학생과 사무직 종사자들의 척추와 골반이 휘어지고 비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스크 환자는 대부분 측만증, 골반불균형 증상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우리 인체는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 2~3배 무거운 하중이 척추에 가해지게 됩니다. 장시간 앉아 있게 되면 척추를 감싸는 허리 근육과 인대의 균형이 깨져서, 작은 충격이나 움직임에도 쉽게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육 염증이나 긴장 · 경직 · 퇴화 등이 요통을 더욱 악화시키고 척추뼈 사이 쿠션역할을 하는 추간판에 무리가 오면서 디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택시 운전 기사 한 분이 극심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을 하셨습니다. 운전 경력이 20년이 다 돼간다는 이 분은 오랫동안 가벼운 허리 통증과 학창시절부터 이어져 온 가벼운 측만증 증상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걸을 수 없을 정도의 다리 저림 통증이 심해져 병원 물리치료와 견인치료를 받았지만 다시 재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은 자신의 측만증이 디스크의 원인이 아닌지 의심되어 필자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검사결과 운전이라는 직업적 특성상 장시간 좌상생활과 가벼운 허리통증을 방치한 탓에 이미 측만증 증상은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환자에게 평소 올바른 생활습관과 함께 체형교정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허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분은 처방받은 체형교정법을 8개월간 열심히 실천했습니다. 환자는 운전을 포기할 정도로 힘든 상태였지만 현재는 척추와 골반교정을 통해 불편한 상태가 거의 완치되어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디스크 환자들 중에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수술을 받거나, 반대로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자신만의 치료법을 고집하여 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 뻔한 이치를 제대로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척추측만증과 그로 인한 허리 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예방법이 많지만 허리 통증을 겪기 전에는 예방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드뭅니다. 추운 날씨와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디스크가 생기거나 허리 통증이 악화돼 고생하지만 그냥 버티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일상이 바쁘고, 또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치료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불필요한 시간 ·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포스츄어앤파트너스 교정센터
황상보 원장 T : 1544-9697



허리 MRI 사진. 수핵이 탈출하여 신경을 압박하고 있다.



황현수의 불교와 무술이야기 ⑫

호흡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다

이번 호에는 무술이 어떻게 호흡과 몸을 다스려 기운을 얻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권법은 내공을 목적으로 하는 내가 권법과, 외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외가 권법으로 나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공'이라고 하면 로망을 갖습니다. 뭔가 특별할 것 같고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따라 하면 왠지 내공이 쌓일 것만 같은…. 그래서 사람들은 태극권의 간단한 동작에도 그 무언가를 기대하며 배우려 합니다.

내공법은 보통 호흡 수련으로 단련하는 것인데 이는 건강에 좋습니다. 무술을 배우지 않은 일반인들도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일이 있다면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또, 사람의 무의식 적인 행동 중에도 호흡의 중요함은 강조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로 겁을 먹었을 때 숨이 가빠지거나 손발이 떨리게 됩니다.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불안감은 외압적인 요인으로 인한 마음 작용입니다. 몸 밖에서 마음을 찾을 수 없듯이,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마음에 겁을 먹어도 몸에 그 상태가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술 고수라고 해서 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실력이 웬만한 이들보다는 뛰어나기에 위협 요소가 남들보다 적다는 것이지, 동급의 실력자들을 만났을 때 이들 역시 긴장에 빠져듭니다.



영화 '태극권'의 한 장면.

최배달(극진가라데 창시자)씨는 세계로 무술여행을 다니며 각국의 강자들과 겨뤄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나 이 분 역시 경기 전날은 두려움에 잠을 못 이루었다고 합니다.

무술 고수는 상대로 인한 마음의 동요가 별로 없이 자신이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외공을 단련하여 자신감을 충만하게 쌓을 수도 있고, 내공을 먼저 단련하여 심신의 안정을 기반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공의 기초인 호흡법이 무술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인도의 요가 수행법 중에도 호흡으로 하는 수행법이 존재하며, 불교의 사마타 수행 중에도 '아나빠나사띠'라는 명칭 하에 호흡 수행이 있습니다. 현재 도교에서도 단전호흡을 중시하며, 호흡을 기반으로 한 각각의 수행법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씩 하는 호흡 수련법으로 중국 영화에서나 보는 굉장한 내력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내공의 초보 단계에 올라가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세월을 요구했으며, 엄청난 인내 속에서 단련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원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차차 밝히겠지만 모든 것을 여기에 바쳐야 할 만큼 힘든 수행인 것만은 확실하였습니다.

보통 기공에는 좌선, 입선, 행동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행동선은 좌선과 입선으로 굳어진 몸을 푸는 체조로써 보통 간단하게 행하는 태극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극권은 순환 호흡기 계통에 효과가 있다하여 중국에서는 보건체육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태극권은 호흡과 움직임이 일치하기 때문에 전신 운동을 동반한 복식호흡으로 혈액에 포함되어 있는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시킵니다. 그 때문에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노화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일컬어집니다.

이러한 호흡법이나 체조 이전에 간과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른 자세입니다. 바른 자세는 모든 호흡과 기 수련의 기본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릇 모든 것이 그러하듯 기본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날 때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태어나지만 잘못된 습관으로 스스로가 몸을 망치고 그런 후에야 병원을 찾아 원상태로 가려하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본불교학자/ 다음카페 : 37수도장



국순려의 괄사이야기 ⑫ 불임 <끝>

저출산 · 불임 국가장래의 문제

불임이란 피임을 시행하지 않은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임신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로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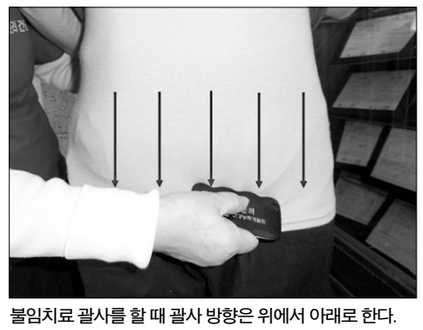
불임의 원인은 남편 쪽 원인에 의한 경우와 아내 쪽 원인의 경우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양자 종합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남편쪽 불임의 원인은
①성기의 기형 ②발기 불능 ③정자 수송로의 장애 ④정자의 형성 장애 ⑤질환 등이 있다.

아내 불임의 원인은
①성기의 이상 ②배란, 생리의 장애 ③자궁관(나팔관)의 장애 ④수정관의 착상 장애 ⑤성기의 종양, 염증 ⑥전신의 질환 장애 등이 있다.

종합 원인 : 난자와 정자의 크기가 안 맞는 경우

배우자 중 어느 한 쪽에서 정상적으로 수정 가능한 생식세포(gamete)를 만들어 낼 수 없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 결함이 있을 수 있다.



불임치료 괄사를 할 때 괄사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한다.

식이요법 방법으로는 특별히 삼가거나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것은 없다. 다만 배란 장애가 있으면서 비만인 경우 임신 시도와 동시에 서서히 체중 감량을 해나가는 것이 배란 회복에 도움이 된다. 임신을 시도한 시점부터 임신 초기까지 엽산을 적당량 복용하면 태아 기형 중 신경관 결손증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에서 저출산율 1위라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불임은 국가 장래의 국력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⑴괄사법
<전신 괄사>
부부가 매주 요일을 정해 놓고 각자 전신 괄사를 3회씩 실시함.(시간은 90~120분)
<부분 괄사>
매일 20분 정도
1. 배꼽 아래 부위 긁기 괄사 하기
2. 서혜부(아랫배와 허벅다리의 사이) 괄사하기
3. 요추(허리)와 엉덩이 전체 괄사하고 툭겨주기
4. 다리 안쪽 전체와 오금(무릎의 구부러지는 오목한 안쪽 부분) 괄사하기
5. 발의 복사뼈 안쪽 전체 괄사하고 툭겨주기
6.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사이 툭겨주기
7. 얼굴 괄사, 두피 괄사는 매일 한다.

⑵괄사판
1. 학여울 2. 달오름 3. 보라매소 4. 보라매대 5. 보라매특대 6. 미모사 7. 해오름

⑶유의사항
1. 유기농 식품으로 식단을 짜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
2. 심신을 편안히 가지면서 초조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⑵557-1628 ~9

국순려건강능력개발원장

불자정보 777호 |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포교원 안내
●위치: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빌라 주택 밀집 지역,시장입구
● 법당 40평, 방2, 공양간, 화장실
● 삼불, 후불탱화는 인등으로 설치되어 있음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011-544-9777

포교원안내
●위치 : 전남 구례군 용방면
●평수 : 400여평(논과 밭 포함)
●요사채 20평(방3개, 화장실)
●가액 : 5000만원
●비구니스님에게만 판매함
010-5462-3358

포교원안내
●위치: 부산 수영구 막리동
●평수 31평, 4층건물 중 3층
●시설: 원목단, 동불, 삼존불, 방2 공양간1, 시설완벽, 에어컨2
●위치 최고 요지, 몸만 오시면 됨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5백만원
010-9733-9030

포교원(급)안내
●위치: 부천시 중동대로 현대백화점 4거리 (AA급)
●중동 신도시 대로변 하나은행 건물 5층
●법당 50평, 요사채13평, 화장실
●특징: 1년사용. 방음,냉난방 등 완벽 설비 (최소 1억 2천이상 투자)
●현대식 깔끔한 인테리어
●보증금 3천만원 월105만원 권리금 5천만원
032)207-8012
010-6662-8012

포교원안내
●위치: 경북 경산시 옥산동 (상가3층 건물 3층)
●건평 30평(방1, 법당)
●관세음보살,칠성산신탱화
●가액: 보증금 300만,월25만원
●시설비 일절 800만원
관심있는 스님, 법사, 보살님, 불자가족 환영합니다
010-3780-6183

암자안내
●위치: 부산 연제구
●대지: 약 120평
●건물 3동, 차고 有
●용왕당에서 물 나옴
●100년 역사
●가액 2억 9천만원
017-560-1035

사찰터안내
●위치: 울산 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대지: 526평 . 바로 뒤 산
●1급 주거지역
●가액: 평당 90만원 (절충가능)
017-855-6717
017-856-2344
052)247-7344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방학동 대로변
● 실평수 25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약간
● 즉시법회 가능
● 인연있는 분께 싸게 드리려 합니다
010-5123-1001

전원주택 토담집 토굴
●위치 : 강원도 원주
●시내 차로 5분거리 시내버스 종점
●위치 좋고 경치 전망 좋은 아담한 집
●조용하게 공부하실 분 건강이 안좋아
●수양 또는 요양하실 분
●조용하게 전원 하실분
●작은법당, 요사채, 방2
●거실 주방, 욕실 , 심야보일러
●가액: 4천(건물만)
011-9079-6832

사찰안내
사찰은 사람과 인연의 조화가 참 중요합니다. 그 모든것 (법당, 주변환경 등)이 완비된 김해 도심 근접 관음기도도량
●참선 수행처
●대지(종교) 300여평(불사완벽)
●가액: 스님 13억 (바로집회)
010-4578-4119 법천

포교원안내
●위치 :울산 시내
●평수 : 약 55평, 3층,
●삼존불 외 시설일체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약간
●꼭 하실분만 전화 요망
010-7770-276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 6,000평 (실등기 5,000평)
● 법당 (목조) : 약 20평, 산신각,요사채,2동중황토방1개, 실내외 화장실 3개
● 가액 : 4억
011-816-9104
011-815-9104

주택토굴안내
●위치 :밀양시 부북면 덕곡리
●밀양 자동차학원 북측 500m거리
●대지 200평
●건물 3동(총평수 109평)
●3동 중 2층 건물 1동
●심야보일러, 지하수 시설완벽
●가액: 2억 3천만원
011-836-1829
010-3351-1829

단독건물 포교원 안내
●위치 :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
●평수 : 약 100평
●법당, 방2, 화장실, 거실, 부엌
●시설 일체 완비
●가액 : 보증금 4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약 1,100만원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마당 텃밭 주차장 완비
010-4450-2858

사찰대출안내

사찰대출 전문 30년 전통의 형산새마을금고 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서민 금융기관으로 회원 복지에 목적을 두는 비영리 금융기관이라 부처님의 중생구제에 가장 부합하는 금융기관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거나 현재 높은 이자로 대출을 쓰시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와 의논해 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것입니다.

1 1억원 대출시 월이자 62만원입니다!
2 출장비,대출수수료,꺽기등이 일체없습니다!
3 위약금없이 마음대로 갚고 다시 빌릴수 있습니다!



형산(구.죽도2동)새마을금고 본점

■ 대출안내
지 역 ☞ 전 국
형 식 ☞ 담보대출
금 액 ☞ 3천만 이상
금 리 ☞ 연7.2%~7.6%
기 간 ☞ 5년 (연장가능)

☎ 상무 이강욱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016-9314-2522

죽도2동의 새이름-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다구를 찾아서

7 천목산

가마 속 불길이 찻잔 속에 담겨지다

송나라의 음다법과 다구는 주변국인 고려와 일본에 전해져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일본에는 현재까지도 송대의 음다풍속이 거의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천목잔(天目盞)은 일본인의 독특한 미감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다구이다.

천목이라는 이름은 천목산(天目山)이라는 지명에서 유래한다는 설과 송나라에 유학한 선승이 천목산에서 가지고온 검은색 유약이 칠해진 다완에서 유래됐다는 설이 있다. 천목잔은 처음에는 송대 건요(建窯)에서 만들어진 건잔(建盞)을 의미했지만 후에 길주요(吉州窯)의 찻잔도 천목이라 부르면서 흑색계통의 자기는 모두 천목이라 불렸다. 특히 에도(江戶)시대에는 다완이나 도자기의 대명사로서 사용되기도 했다. '천목잔'이라는 명칭은 1335년에 출간된 <대일본사료(大日本史料)>에서 처음 보인다. 중국 저장성(浙江省)에 위치한 천목산은 임제종 승려 고봉원묘(高峰圓妙, 1238~1295)가 15년간 머물렀다가 입적한 곳으로 송대에는 일본 유학승이 많았다.


측면


윗면

대피천목(玳皮天目) 남송 길주요(吉州窯) 경도국립박물관(京都國立博物館) 소장. 높이 5.1㎝ 지름 15.3㎝.

가마쿠라시대(鎌倉時代, 1192~1333) 에이사이 선사(榮西禪師, 1141~1215)는 일본 임제종의 시조이자 차의 원조로 불린다. 그를 차의 원조라고 하는 이유는 두 번째 송나라 유학에서 귀국한 후 전한 점다법(點茶法)이 오늘날까지 일본 다도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에이사이 선사는 <끽다양생기(喫茶養生記)>에 당시 찻잔의 유형을 알 수 있는 구절을 기록하고 있다.

"구(甌)란 찻잔의 아름다운 이름이다. 구연부는 넓고 바닥은 좁다. 다탕(茶湯)이 오래도록 차갑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릇의 바닥이 좁고 깊은 것이다. 작은 그릇의 이름이다. 얕은 잔은 차 마시기에 나쁘다."

이 글에서 선사는 직접적으로 건잔이라는 명칭은 쓰지 않았어도 건잔의 주요 특징을 설명했다. 특히 바닥이 좁고 깊은 찻잔이 차가 오랫동안 식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차를 마시는 사람의 오랜 경험과 관찰이 필요한 대목이다. 송의 선종사찰에서 수학한 선사는 직접 건잔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잔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을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찻잔은 현재 말차(末茶)를 할 때 사용하는 다완과 다를 것이 없다. 가마쿠라시대의 건잔은 선종과 관련된 사원에서 주로 사용됐다. 뒤이은 무로마치시대(室町時代, 1338~1573)에 이르러 최고의 찻그릇으로 칭송을 받았으나 모모야마시대(桃山時代, 1574~1600) 센노리큐의 와비차가 등장으로 천목잔에 비해 소박한 조선 다완이 애호돼 오고 있다.

일본에서는 천목다완의 종류를 요변(曜變, 또는 窯變), 유적(油滴), 화목(禾目), 대피(玳皮), 목엽(木葉) 등으로 나눈다. 특히 푸젠성(福建省) 건요와 장시성(江西省) 길주요에서 생산된 흑유완이 주종을 이룬다. 요변천목은 검은색 유약이 다완의 안과 바깥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결정이 떠오른 것을 말한다. 이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예상치 못한 가마 속 불길의 변화로 생긴다. 그래서 상등품의 요변천목은 극히 드물어 일본에서 문화재로 등록된 6점 외에는 아직 발견된 것이 없다. 유적천목은 유면에 있는 반점이 마치 물에 떠있는 기름얼룩처럼 보인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중국에서는 적주(適珠), 은성반(銀星斑)으로 부른다. 화목천목은 중국에서는 토호잔(兎毫盞)으로 부르는데 토끼 털 무늬가 있는 건요의 대표적인 찻잔을 가리킨다. 대피천목은 찻잔의 문양이 거북의 등껍데기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부분은 길주요에서 생산된 것으로 여러 가지 길상 문자와 문양을 도자기에 입사해 만든 것이다. 목엽천목은 대피천목의 한 종류로 도자기에 나뭇잎이 내려앉은 채 소성돼 유약의 농담과 색상의 차이로 나뭇잎이 자연스럽게 새겨진 다완이다.

백기란 · bdaol@hanmail.net ·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28 대흥사 부도밭



길었던 세월 한 순간에 접고 앉은 이름 두 글자. 서로의 몸으로 빚은 돌덩이에 그 이름을 다시 얹고 다시 긴 세월을 살아가고 있다. 겹쳐진 시간 속에서 만났던 스승과 제자는 이제야 시간의 순서를 버리고 앉았고, 말 없는 순간순간은 그 때를 기억해내고 있었다.

대흥사 부도밭에는 서산대사를 비롯해서 초의 · 호암 · 상월 등 13분의 대종사와 만화 · 원오 · 광렬 등 13 분의 대강사 그리고 그 외 여러 스님들의 부도가 있었다. 부도의 수도 많았지만 그 이름의 무게들도 만만치 않았다. 억불(抑佛)의 시대에서 불교를 지켜낸 보우 스님에서 비롯된 계보가 한 자리에 있었다. 잊을 수 없는 이름들이다.

묵은 낙엽이 부도 언저리를 맴돌고, 불어온 봄바람이 그 잊을 수 없는 이름들을 다시 한 번 읽어내고 있었다.

옛 판화의 세계

구양수가 잘못을 깨닫다 (警歐陽脩)

이 삽화는 송나라 때 간의대부 구양수가 여릉으로 돌아가는 길에 뱃길이 구강을 거쳐 가게 되자, 여산을 유람하면서 거눌 선사를 찾아가는 장면이다.

구양수는 사천성 출신으로 북송 때의 시인이자 사학자요, 정치인이었다. 구양수는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통해 정계를 개혁하고자 했던 인물이었다. 배불의 중심인물이었던 구양수는 거눌 스님과의 만남으로 인해 불교 비방을 멈추게 됐다. 뿐만 아니라 조정에 나아가서는 거눌 스님의 법을 칭송했다. 또한 세시에 따라 편지로 문안하는 일을 한 번도 끊은 적이 없었다.

거눌 스님은 북송 때의 승려로 성은 건씨이며, 이름은 정고(淨固)이다. 11세에 출가해 17세에 득도했고, 시방정고선원의 개산조가 됐다. 거눌 스님은 황제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고 수행에만 정진했던 수행자로 유명하다.

중국의 인조(仁祖) 황우(皇祐) 초년(1049年)에 조정에서 환관을 파견했다. 황제는 비단에 조서를 적어서 거눌 스님을 큰 절인 효자사(孝慈寺)에 머물도록 청했으나, 거눌 스님은 병을 핑계로 일어나지 않고 대신 소문(疏文)을 올려 대각 스님을 추천하는 것으로 조정의 부름에 답했다. 이 같은 거눌 스님의 일화는 수행자의 사표가 되고 있다.

거눌 스님은 구양수와의 만남에서 이 같이 말했다. "속담에 이르기를 '사람을 잘 매도하면 다른 사람도 역시 그를 매도한다'는 말이 있는데 귀하는 예전에 본론(本論)이란 글을 저술해 쉬지 않고 불교를 허무는데 힘써왔으니 대중들이 황제가 듣는 앞에서 공을 헐뜯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구양수는 스님의 이 같은 말에 자신의 정치개혁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다. 실제로 구양수는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개혁하려고 자신의 뜻을 펼쳤으나, 오히려 자신을 헐뜯는 모함에 걸려 자주 곤경에 처한 일들이 역사에 기록돼 있다. 이와 같은 거눌 스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도 자신의 일을 관철하고자 할 때 남을 매도하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점검해볼 일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경구양수(警歐陽脩). 불암사판 1673년간행, 반곽(半郭) 27.2×18.0㎝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2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수제화 고무신코 만 행 화

최고의 선 물

특무명 3목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20-280mm (5mm단위)
• 색상 : 진회색,검정

특 무 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진회색

조각무명 3목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20-280mm (5mm단위)
• 색상 : 회색

조각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자연색

지압 · 동 깔창
조극세사
실 리 콘
동 99%
가격 20,000원
• 사이즈 : 230-280

3-1 밴드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85mm
• 색상 : 검정,회색

지압동 깔창

사계절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망사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3-1 끈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85mm
• 색상 : 검정,회색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 (구자민) 합장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를 검색해 보세요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길을 묻는 이에게

제777호 현대불교
2010년 3월 31일(음 2월 16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법공양 페이지

진짜 믿는다는 것은 탁 팽개쳐서 놓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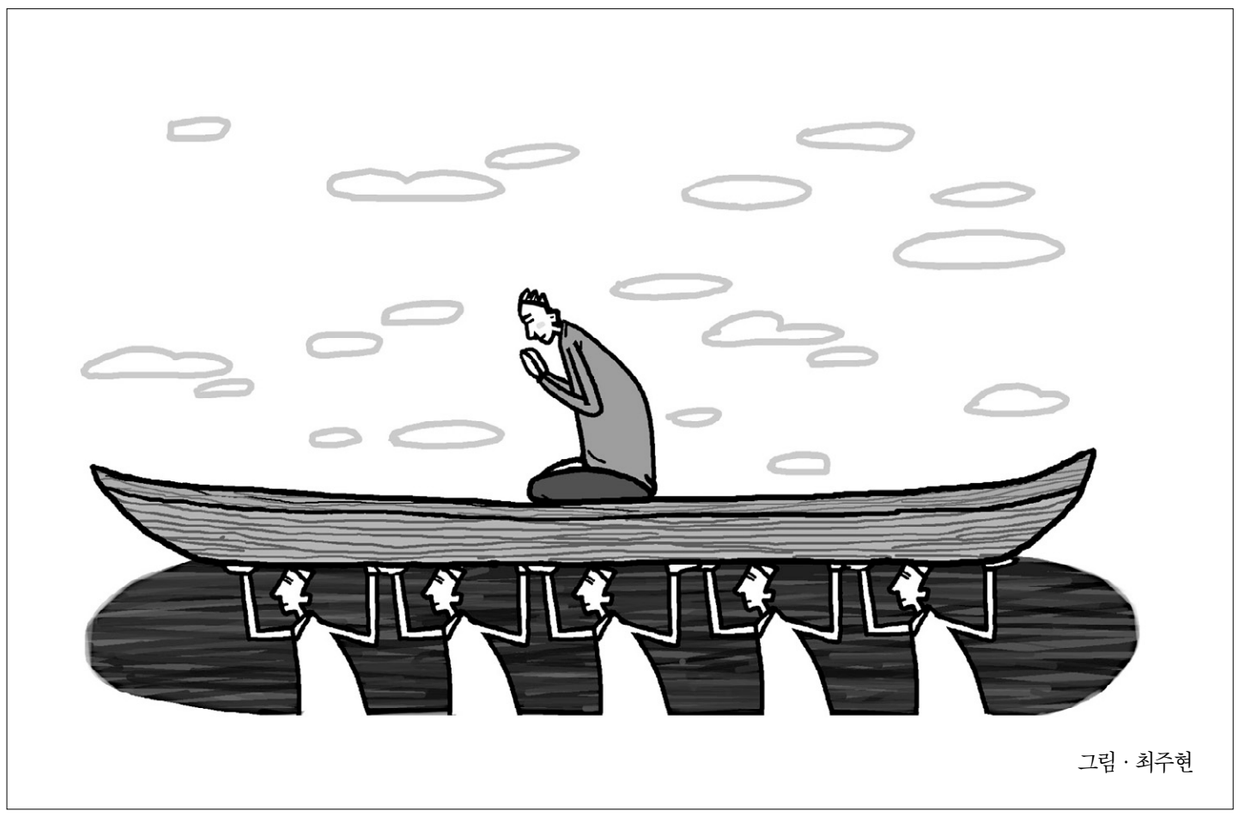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또 한자리를 하게 됐군요, 본래 한자리를 하고 있는 거지만 말입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데 어디 들어설 자리도 변변치 않고 해서, 항상 마음은 죄송하지만 어쩝니까? 예전에 부처님께서는 나무 밑에서도 하시고 그러셨다는데, 어쩝니까!

우리 생명들이 사는 것을 보면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물만생 중에 하(下)의 생명들은 모두 육을 잡아먹고 잡아먹히면서, 순간순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거듭거듭 죽으면서 거듭거듭 또 살고, 또 살면서 거듭거듭 먹히고 이렇게 삽니다. 사람 역시 한 철 살면서 아주 어린 시절을 빼놓고는 한동안은 젊게 사는가 해도 곧 늙고 병들게 되죠. 이렇게 허덕지덕하고 살다가 늙어서 가만히 돌이켜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제 회향을 할 때가 되니까 산게 너무도 허무하고….

사람의 마음들이라는 게 다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군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회향하는 게 다르죠. 늙어서 회향을 할 때 아주 마음이 가볍게 해야지 무겁게 짊어진 채 회향을 한다면, 또 짊어지고 와서 이 세상을 한동안 또 살아야 하죠. 하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중(中)으로 떨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살듯이 중세계에서 살아야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것은 육(肉)을 뺏기는 게 아니라 정신을 뺏기고, 정신을 뺏어 먹고 삽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봐서 그렇지, 이 몸속에 주인이 없으면 반드시 집을 그냥 뺏깁니다. 주인이 있으면 내 집을 그렇게 뺏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집을 지키는 내 주인이 없다면 어떤 지경에 이르러서는 꼭 뺏기고야 맙니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인 없는 집과 주인 있는 집은 어떻게 다를까 하고 말입니다. 주인 없는 집은 어디 한쪽이 기울어지든 폐가가 되든, 자기 집을 고칠 수도 없고 잘 다듬어 놓을 수도 없고 잘 이끌어 갈 수가 없죠, 주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들르고 누구나가 자고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빈집이라면, 주장자가 없는 빈집이라면 거미도 치고, 온갖 무리들, 잡 생명들이 다 그 집을 헐어 나가느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주인을 발견해서 세워라, 이런 뜻이죠. 가끔 이렇게 보면 주인을 지니지 않고 사는 사람 다르고 주인을 지니고 사는 사람 다른데, 주인 없는 사람은 죄 여여하질 못해요. 그러나 자기 집에 주인이 있는 사람은 고생을 하든 안 하든 첫째, 마음이 편안하고 풍족하지요. 그래서 얘긴데, 항상 여러분한테 말을 해 드리지만 그걸 말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보이는 육체를 돌아가는 바퀴라고 생각을 한다면, 심봉이 꽂히지 않았으면 그 바퀴가 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심봉이 있으니까 돌아가죠. 본래 심봉은 있다. 그런데 바퀴가 어디로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주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심봉이라는 그 자체는 바로 자불(自佛)이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본래 여러분한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 움죽거린단 얘기죠.

하루 동안 흘러가는 생활도 찰나찰나 화(化)해서 나투면서 함이 없이 여여하게 이렇게 돌아가건만, 여러분의 생각이 미진해서 여여하다는 생각을 안 하세요. 그리고 또 찰나찰나 화한다는 생각도 안 하시고요. 찰나찰나 화한다는 건 변한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해서 변하느냐. 항상 얘기하지만, 보는 것도 저것 보면 이것 보게 되고, 이것 보면 저것 보게 되고 하는 게, 그게 화하는 도리입니다. 그게 변화가 있는 도리입니다. 이걸 들으면 저걸 들어야 하고, 여길 가면 저길 가야 하고,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만나야 하고…, 이 대중의 살림살이라는 것이 모두가 그러합니다.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고, 이렇게 말입니다. 먹고 지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먹는다 하더라도 먹었으면 벌써 그건 과거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아침 공양 먹었느냐?" 하면 "식기 닦았습니다." 이래야 말대답이 되죠. 벌써 먹은 거는 과거로 돌아갔으니까 말입니다. "밥 먹었습니다." 이러면 벌써 되풀이하는 얘기가 되고요.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데 즐거운 게 몇 알갱이나 되겠습니까? 즐거운 거는 쥐뿔만하고 괴로운 거는 태산 같은데 뭘 그렇게 즐겁게 산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러셨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즐겁게 살려고 해도 태산 같은 짐을 짊어졌으니 어찌 편안하게 살 수 있겠느냐. 그 짐을 내려놔라, 내려놔라." 하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짐을 내려놓느냐는 거를 항상 얘기해 드리죠. 찰나찰나, 이것 보면 다른 거 봐야 하듯이 과거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걸 집착하지 말라고요. 돌아간 건 이미 돌아갔으니 집착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꿈을 꾸거나 형제들 또는 친척간에 문제들이 생기면 항상 집착을 하게 되죠. '잘 살아야 할 텐데….' 그러면서 관(觀)해 주고 하는 것도 집착입니다. 그렇게 식구들한테 집착을 하면 외려 진짜 받아먹을 거를 제대로 받아먹지 못합니다.

'보이는 자기'가 있으면 거기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자기'가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기'가 '보이는 자기'를 형성시켜서 이끌어 가는 거니까요. 불성이다, 주인공이다 하면 못 알아듣는 이치가 있을까 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자기 속에 보이지 않는 자기가 있어서 보이지 않는 자기는 바로, 보이는 자기가 엎드러져도 짚고 일어날 수 있는 지팡이와 같다 이겁니다. 그 지팡이는 요술 지팡이와 같습니다. 찰나찰나 함이 없고, 함이 없으면서도 현실에 넉넉하게 살아 나갈 수 있는 광대하고도 묘한 마음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 연결되는 마음이라는 건 요소요소에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바로 마음이 보살들의 이름을 다 지어 놓은 겁니다. 부처님이 저렇게 앉아 계시는데, 우리는 움죽거리는 몸뚱이지마는 저 부처님은 움죽거리지 않는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움죽거리지 않는 것이 외려 더 크죠. 부처님 몸은 우리 눈에는 저렇게 작아 보이지만 '부처님이다' 한다면 크고 커서 이루 말로 할 수 없으니 크다고 합니다. 그렇게 커서 이 우주를 두루 한다 이겁니다.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모두를 말입니다.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왜 그런가. 체가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한 발로 한 군데를 뛰어도 넉넉하게, 적다 많다 길다 짧다 하는 게 없이 한 걸음에 뛰시니까 말입니다.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일체제불의 마음' 노래에도 있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부처님과 같이 체가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같은 데서나 중국 같은 데서 어떤 소식이 왔다 할 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착이 없이,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무조건 "알았어."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벌써 여기서 한 찰나에 한 걸음을 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한 걸음이라고 합니다. 요 대문 바깥도 한 걸음이요, 우주를 벗어나도 한 걸음입니다. 미국을 뛰어도 한 걸음이요, 모두가 한 발로 한 걸음을 뛰는 겁니다.

우리 살기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그 몸속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유전성이나 영계성, 세균성, 업보성, 인과성 이런 것들이 모두 주둔해 있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그런 게 나올 때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 내 어찌 한탄을 안 하겠습니까? 그 모든 거를 대치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주장자가 정신계를 다스리고, 정신계를 다스리니까 이 물질계도 다스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저승과 이승을 정신계다 물질계다 한다면 한 발로 정신계를 밟고 한 발로 물질계를 밟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생각으로는 한 찰나입니

☞26면으로 계속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454-1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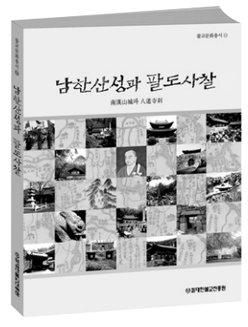
【 호국불교의 역사적 현장 】
남한산성과 팔도사찰

한반도의 중요 요충지이자 외세에 맞서 치열하게 항전했던 민족자존의 현장 남한산성!
그 안에 부처님의 원력으로 조선의 8도를 하나로 모으고자 세웠던 팔도사찰을 아십니까?


배불정책의 암울한 상황에도 오직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앞세웠던 호국불교의 역사적 현장, 남한산성!


조선의 8도를 부처님의 원력으로 민족의 힘을 총집결하고자 했던 승군장인 벽암 각성선사의 충절과 외적의 침입을 방어함과 동시에 왕권강화의 중요한 국가시설이었던 남한산성!


우리 민족의 강인한 정신력과 한이 서린 남한산성과 그 안의 팔도사찰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한 권의 책으로 만나보자.



| 전보삼 지음, 대한불교진흥원 刊, 232쪽, 올컬러, 값 20,000원 |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www.kbpf.org 구입 문의 : 02-3672-7181, 02-719-2606

buddhanews.com

태산 같은 짐을 짊어지고 어찌 편안히 살 수 있겠는가

☞25면에서 계속

다.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점에서 더 노력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는 더, 이 몸이라는 집 속에 내 주인을 세우지 않고는 살기가 참 힘이 들 것입니다. 시대가 벌써 그렇게 됐어요.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정신을 뺏기고 정신을 뺏어 먹는 시대가 돼 버렸어요. 지금 내 집에 내 정신을 세우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나갈 길이 없는 거죠. 팩팩 나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 가서는 허무한 생각에 말할 수 없이 남 모르는 눈물을 흘려야만 하죠. 내놓고 눈물을 흘릴 수도 없죠, 또.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를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공부라고 할 것도 없죠. 나무들이 본래 뿌리가 있는 거를 보시죠? 우리도 본래 뿌리가 있단 말입니다. 본래 자기 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뿌리가 없는 양 그저 먼 산 바라보고 기도나 하고, '잘되게 해 주시오.' 하고 빌죠. 안되는 거 되는 거를 다 몰아다 놓고는 기도하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가 뿌린 거는 자기가 거둬야 하는 건데. 이게 정신계로부터 물질계로 자꾸자꾸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가닥가닥을 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간곡하게 말을 하는 것은 내 육신이 이렇게 허덕허덕하고 살아나가더라도, 내 주장자에서 둘 아니게 이끌어 가도록 맡겨 놓고 자기네 몸을 저 물이 흘러가듯이 보라 이겁니다. 자기네 몸이 지금 쉴 새 없이 물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고정됨이 없이 돌아간다고요. 자고 깨고 살고 하는 게 그냥 물같이 그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그 물이 온전합니까? 거기에는 흙물도 들어갈 수 있고, 파도도 칠 수 있고 별의별 문제가 다 생기죠. 욕심이 너무 많으면 물이 너무 많아서 넘치고 그래서 물벼락을 맞고, 이렇게 야단들 하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장마도 무서운 장마가 오죠.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을 잘해서 넘치지도 않고 줄지도 않게 그냥 평등공법으로, 자기 몸뚱이가 어떻게 고생을 하든, 잘하든 못하든 다 놓고 지켜보면서 그냥 유유히 여여하게 가시란 말이죠. 내 몸뚱이를 불들고 아무리 아웅다웅해도 집이 망그러질 뿐이지 지켜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 친척이 그렇다 하더라도 관해서 그냥 팽개쳐 버리고 놔야, 그쪽도 둘이 아닌 까닭에 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구, 죽게 됐다는데, 이거 살아야 할 텐데….' 하고 아등바등한단 말입니다. 가깝게 있든 멀게 있든 마찬가지죠. 진짜 믿는 것은 탁 팽개쳐서 놓는 거죠. 아등바등하면 믿는 게 아니죠. 오히려 '죽이든지 살리든지 너 알아서 해라.' 하고 맡겨 놓아야 일이 풀리죠. 이게 죽고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살아나가는 생활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어떠한 거든지, 작든지 크든지 '너 알아서 해!' 하고 딱 맡겨 놓으면 알아서 하지만, 딱 맡겨 놓질 않고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하면 그건 영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스님네들 세계도 그렇고 여러분의 세계도 그래요. 누구 하나에게 딱 책임지워서 맡겼으면 그냥 탁 맡겨야 할 텐데, 이거는 의심을 하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잘못하는 게 많죠. 그리고 의욕도 생기지 않고요. 책임감이 확고하게 들지도 않고요. 그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내가 예전에 한번 했죠. 회사를 하는데 회사에서 도둑을 자꾸 맞아요. 이건 실제로 있던 얘기예요. 도둑을 자꾸 맞으니까 낌새는 알고 있는데 물증이 있어야 어떻게 하죠. 물증은 못 잡았어도 두 사람이 그런다는 거를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래 그 두 사람을 불러다가 관리인으로 책임을 지웠어요. "너희밖에는 믿을 사람이 없다." 하하하…, "너희밖에는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예 도둑맞지 않게끔 해라." 했거든요. 그날부터 도둑이 없더랍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거를 막으려고 사람을 시켜서 물증을 좀 잡아라, 이렇게 했으면 그 회사가 점점 무슨 꼴이 됩니까. 앙심도 생기고 뭐 별것 다…. 그래서 인과응보가 생기고 원수가 되고, 원수가 졌다고 또 보복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점점점점 그냥 끝간 데 없이 따라다니는 거죠, 복수가. 그렇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렇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나쁘다고 '저놈 참 나빠. 아주 일도 잘 못하는 데다 마음에 안 드니까 그만두게 해야겠어.' 이런다면은 그거는 자기가 너그럽지 못해 가지고 자기의 업보가 생기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둑질을 해 가도 겁 안 난다, 사람을 죽였다 해도 겁 안 난다 하는 건 뭔 뜻이냐? 한 손바닥 안에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해 가도 도둑질한 것뿐만 아니라 그 몇 배를 불려 내놔야 하는 뜻이 서려 있기 때문에 그건 겁나지 않는 거죠. 가져갔어도 스스로 몇 배의 해가 자기한테 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의 양심이 언제나 자기를 살리고 도와주고 이끌어 주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우면 살고 지혜롭지 못하면은 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얘기하는데, 자꾸 적자가 나는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흑자가 나도록 해 놨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욕심이 많아서 자꾸 욕심대로 하기 때문에, 욕심이 너무 많으면 해가 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더랍니다. 그런 거와 같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욕심이 많아지죠.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팔자 운명이 따로 있습니까, 어디? 안되고 잘되고, 못살고 잘살고 이런 것도 따로 있지 않아요. 모든 건, 자기가 얼마나 너그럽게 태어났느냐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그럽지 못하게 태어났어도 너그럽게 할 수 있게끔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내 집이 아무리 못났든 잘났든 내 집은 내 집이죠. 원두막 같아도 내 집은 내 집이에요. 내 집을 지킬 수 있는 그 주인만 있다면 어떡하든지, 내 집을 또 새로이 짓더라도 크게 잘 짓고 살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내가 말을 자세히는 못해도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들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부처님 몸이라는 수레와, 부처님 수레를 다들 그게 이름이지, 주인공이라는 것도 이름이지, '주인공! 주인공!' 아무리 불러 보세요. 내가 내 뿌리를 믿지 않는데 주인공이 나오나.

그러니 저 나무들을 보세요. 가을이 되면 저절로 잎이 져서 앙상한 가지만 남았어도 그 가지는 내년 봄에 또 잎이 필 것을 알고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쳐도 아무 상관 없이 그냥 살다가 봄이 되면 잎이 나고 꽃이 피어요. 우리 사람도 그렇게 아등바등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저런 나무들은 한 해가 가야 그렇게 되지만 우리는 한 찰나란 말입니다, 고등 동물이기 때문에. 아등바등하면은 오히려 못 믿는 게 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원을 안 해 줘요.

그래서 자(子)와 부(父)가 상봉을 해야만이 그게 견성한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도 이름이지만 말입니다. 견성을 했어도 견성했다고 다냐. 그것도 아닙니다. 둘이 아닌 도리를 알면서 배우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고, 내 부모 내 자식 아님이 없는데 누구를 남이라고 밀어내고 섭섭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같이만 생각해라. 내 모습같이 생각하고 내 마음같이 생각하고, 불쌍함도 나같이만 생각해라. 더 위로 생각하지도 말고 내려서 생각하지도 마라. 부처님도 나와 같이만 생각해라. 그리고 부처님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이행한다면 그대로 부처니라.' 하는 겁니다.

불교라는 자체가 머리 깎은 스님들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일체 만물만생의 생명은 다 불(佛)입니다. 물 안에서 고기들이 사는 것도 교(敎)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것도 교고,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나가는 게 전부 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군데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무(無)의 세계나 유(有)의 세계나 둘 아니게 수레바퀴 돌아가듯 돌아가는 이 진리가 바로 불교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이는 자기를 자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이는 자기는 심부름꾼으로 생각을 해라. 안 보이는 자기가 반드시 누구에게나 다 있으니까.' 하는 거죠. 못났든 잘났든, 거지든 부자든, 지위가 낮든 높든 간에 자기에게는 반드시 안 보이는 자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자기를 형성시키고 진화시켜서 내려온 거죠. 그러니 얼마나 유능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자기가.

그래서 나는요, 이 절을 지으면서도, '허! 네가 있다면….' 말을 하려니까 그렇죠. 말을 안 하더라도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없으면 안 하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기는 뭘 해요? 그러나 계시니까 하죠, 모두. 내가 없으면…, 나라고 할 건 없지만. 그래서 그 나 아닌 나를 부처라고 합니다, 주인공을. 그래서 부처님이 계시면 할 거고…, 부처님이라고 하니까 멀리 있는 걸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안에 부처님이 계시면 할 거고 부처님이 안 계시면 못할 거고 그렇지, 그렇게 안달복달할 게 없습니다. 이건 나 하나가 개별적으로 집을 짓고 살려고 해야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데 다 그렇다는 얘기죠. '뭐가 참 아쉽다.' 이러면, 아쉬운 거를 내가 알았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아쉽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안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더 잘 알겠죠? 그렇게 알더라도 이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를 집어서 그냥 내맡겨 버리는 거예요. '나는 너의 심부름꾼이니까 너 알아서 해!' 하고 말이죠. 이 보이는 육체로서는 도저히 그걸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해결해 나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자기한테 내맡겨서 보이지 않는 데서 다 조절하게끔 만들어 놓고 자기가 뛰는 거예요.

어떤 신도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해요. 기계를 놓고 공장을 하는데 말입니다, 물건을 팔아도 돈도 안 걷히고 외상이 되고, 기계는 자꾸 고장이 나고 말입니다. 이러니까 하루는 그냥 앉아서 울었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 기계도 살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계의 그 몸뚱이나 당신의 몸뚱이나 둘이 아니야. 그것도 다 주인공이 하는 일이고 나는 심부름꾼 노릇을 하는 거니까 주인공에다 다 맡겨서 다스리게 해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부터는 고장이 하나도 안 나더랍니다. 그래서 돈 벌었다잖아요.

그런데 이치가 이상스럽게도, 귀찮고 골치가 아파서 '아유, 죽으나 사나 그냥 너 알아서 해!' 하고 그냥 그렇게 맡기니까 오히려 풀려 나가더래요. 생각해 보세요. 골치가 아프지 않아요, 사는데? 그러니까 골치가 아픈 걸 생각해서라도 다 그냥 맡겨 버리고 사는 거예요, 물 흘러가듯이. 왜 골치 아프게 살아요? 한 생 얼마나 산다고요. 아등바등하고 아무리 그 높은 산을 손톱이 다 까지도록 올라가려고 애를 써도 이 몸뚱이로서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고 은산철벽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은산철벽을 뚫고도 남음이 있죠.

(다음 호에 계속)

내 육신이 이렇게 허덕허덕 살아나가더라도
내 주장자에서 둘 아니게 이끌어 가도록 맡겨놓고
자기네 몸을 저 물 흘러가듯이 보라

※위 법문은 1998년 4월 5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禪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眞面目을 선시로 읽다.



선의 중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선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선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작입니다.

[송준영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경허 용성 학명 만공
한암 만암 만해 효봉
혜암 동산 경봉 고암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5~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 국민 343601-04-046766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불자 세상보기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의 후계구축과 위기심화

2008년 여름에 나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후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불거진 이후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북한급변사태 가능성에 초점이 모아졌다. 지도자 중심의 유일체제를 운영하는 '수령제' 국가에서 지도자의 건강변수는 국내외 정세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로 후계를 지명한 1974년 2월은 북한의 경제사정이 좋은 편이었고 김일성이 건재했다. 하지만 지금은 김정일의 건강이 좋지 않고 '선군정치'에 따른 군부의 영향력이 매우 커졌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좋았을 때는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후계세대를 준비해왔다고 볼 수 있다. 준비된 후계세대에 후계자를 핵으로 집어넣으면 곧바로 후계체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후계를 준비해오다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하고 후계구축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를 본격화하지 않은 것은 체제위기 심화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가능성, 후계지명 이후 권력의 급격한 이동과 권력투쟁 가능성 등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중을 겪으면서 후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북한지도부가 김정은 후계지명을 가시화한 데는 지도자의 유고를 곧바로 정권과 체제붕괴로 등치시키려는 외부세계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해 1월 북한지도부가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한 것은 김정일 건강악화에 따른 급변사태론의 재부각 등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로 보인다. 북한지도부는 후계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갑작스런 건강악화나 유고에 대비함으로써 김정일 이후 북한이 큰 혼란 없이 유지될 수 있다는 확신을 외부세계에 전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북한이 새로 발행한 화폐의 도안을 보면 만경대, 백두산, 김일성-김정일 가계와 관련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화폐를 통해서 김정은으로의 3대 권력세습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화폐개혁을 단행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 이외에 후계와 연관하여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화폐개혁은 김정은 후계를 위한 '경제적 친위쿠데타'로 볼 수 있다. 신흥상인계급(시장세력 또는 '돈주')이 상층 지배계층과 결탁할 경우 후계구축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화폐개혁을 단행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해 말 단행한 화폐개혁과 외환통제 조치를 주도한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이 철직된 가장 큰 원인은 시장경제가 북한의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국가부문에까지 깊숙이 침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김일성 가계 우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기 때문에 3대 세습을 '관습헌법'처럼 받아들일 것이다. 북한 지도부가 3대 세습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부자승계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된 후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방과의 대타협을 통한 경제재건이 긴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건강악화 이후 김정일 위원장이 조급해진 것도 후계구축을 위한 환경정비차원의 '속도전'이 아닌가 생각된다. 2012년에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고 후계체제를 공식화하기 위해서는 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경제를 재건해야 한다. 김정일 위원장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 북미 적대관계 해소 등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후계체제가 공고화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후계정비차원에서 서방과의 대타협전략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의 건강문제가 불거지고 후계문제가 가시화됨으로써 한반도 문제는 새로운 관점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는 전환기로 접어들었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과 후계변수가 한반도정세에 새로운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후계 변수에 따라 예상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대처가 남북관계 원상회복 못지않은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했다.



사부대중 칼럼

강호진
작가

소유와 무소유 흘려보내기

근래 법정스님의 열반으로 인해 스님의 책이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스님은 유언을 통해 "그동안 풀어놓은 말빚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않으려 하니, 부디 내 이름으로 출판한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주십시오"하는 부탁을 남겼다. 스님의 유언은 출판사뿐 아니라 스님의 글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출판업계는 스님의 뜻을 존중해 책을 절판하기로 했다. 그러나 독자들은 스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란 것을 잘 알면서도 스님의 책이 계속 출간되기를 바라고 있다. 스님의 맑은 향취가 배어있는 글을 읽으며 삶을 돌아보고 무소유의 정신을 배우겠다는 독자들의 선한 의지를 나무라긴 어렵다. 20대 초반 무렵, 법정스님의 글을 통해 출렁거리는 청춘을 찬찬히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나로서도 스님의 책이 계속 출간되기를 원하는 독자들 편에 서고 싶다.

그러나 스님의 책과 관련해 출판계나 독자들 사이에 벌어진 그간의 일들을 살피다 보면 이렇듯 순수한 마음으로만 헤아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듯하다. 절판 합의를 하기 전까지 출판계는 독자들을 위해 스님의 책을 계속 찍어내는 것이 사회적 책무라고 버텼지만, 그 이면에는 불티나게 팔리는 책을 돌연 접어야하는 억울함이 스며있었고, 서점에 들러 스님의 책을 수십 권씩 사가거나 웃돈을 주고서라도 책장에 꽂아두길 원하는 독자들의 행동에선, 스님의 글을 볼 수 없다는 아쉬움보다 절판을 앞두고 희귀해질 물건을 선점하려는 욕망이 더 도드라져 보였다. 어느 경매 사이트에선 <무소유> 한 권을 두고 9억 원에 판매하겠다고 나선 이도 있고, 21억이라는 입찰가를 써낸 사람도 있다고 하니, 비록 치기어린 장난이라 하더라도 스님의 가르침에 비춰보면 쓴웃음밖에 나지 않는다.

이런 과열현상은 '무소유'란 말이 지닌 애매모호함에도 다소나마 원인이 있다. 법정스님은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하고 말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필요'한 것이고 어디까지가 '불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입장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스님의 입적이나 절판 소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스님의 책 한두 권을 지니려는 마음은 아마도 소유가 아니라 무소유의 범주에 속했을 것이다. 그러나 스님의 입적 후에는 마치 책이 스님의 사리라도 되듯 수많은 사람들이 스님의 책을 소유하지 못해 안달이다. 지인에게 빌려주고는 잊고 살았던 책을 부랴부랴 회수하기 위해 전화로 닦달하고, 평상시에는 관심도 없던 법정스님의 책을 자신에게 줄 수 없느냐고 물어오는 사람들과 마주치는 일은 곤혹스럽다. 자발적 가난과 수행승의 꼿꼿함을 담은 스님의 책조차도 세상의 떠도는 무수한 욕망 중에 하나로 편입되어 버린 것일까? 존재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양상이 항시 변하는 법이니 스님의 책이라고 이를 비켜갈 순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붙잡아둘 욕심이 없었기에 향기로웠고 가두지 않았기에 자유롭게 다가왔던 스님의 말과 글이 스님의 육신의 소멸과 더불어 오로지 책이라는 틀 속에 갇혀 거대한 물신(物神)으로 변화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스님이 전하려 했던 청빈의 정신과 탈속의 뜻은 희미해지고 오로지 몇 백 그램의 무게로, 몇 푼의 돈으로 환산된 종이뭉치만 스님의 이름을 달고 세상을 활보할까봐 두려운 것이다.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과 신의 존재를 믿는 유신론은 양 극점에서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신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 유신론으로 귀결된다. 스님이 '무소유'란 말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어디까지가 '소유'이고 어디까지가 '무소유'인지의 경계 긋기가 아니라, 소유라는 욕망의 굴레에서 홀쩍 벗어나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유신론자의 가장 큰 적은 무신론자가 아니라 신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듯, 무소유를 실천하는 방법은 '무소유'의 철학을 담고 있는 스님의 책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담담하게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일인지도 모른다.

사 설

'봉은사 직영' 재논의해야 한다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지정하면서 촉발된 조계종 내 분란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재단이 나선 데 이어 원로회의 의장단이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문제가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음에도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되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다.

이번 사태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압력성 발언, 봉은사 직영 지정의 타당성, 명진스님의 폭로성 발언 등 세 가지가 쟁점이다.

안 원내대표는 문제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원내대표는 명진 스님을 모른다고 했지만, 과천 복지관 개관 행사에 함께 했던 사진이 공개되면서 신뢰를 잃었다. 집권당 원내대표가 용산참사 유가족들에게 1억 원을 건네며 위로한 명진 스님을 모른다고 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문제의 식사 자리에 동석했던 김영국씨가 안 원내대표의 발언은 외압이었다고 증언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도 안 원내대표의 문제의 발언이 없었다고 부정하지 않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직영 지정 과정에서 대화 부족을 인정했다

안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사실을 밝혀야 한다. 12개 불교단체가 그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지정한 것이 타당했느냐는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의 주장에 우리는 공감한다. 직영사찰 지정 목적이 며칠 사이에 총무원 재정 확보에서 수도권 남북포교벨트 구축이라며 왔다갔다 했다. 그러다보니 총무원이 내세우는 목적보다는 다른 데 뜻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설령 목적에 동의하더라도 그 방법이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지정하는 것 말고는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봉은사는 물론 많은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왜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서둘렀는지 의문이다. 애초 함께 직영사찰 지정을 추진했던 도선사는 돌연 제외했는데, 해당 사찰에서 강하게 반대하면 빠지는 것인지 등 직영사찰 지정과 관련한 의문들이 너무 많다.

대의기구인 중앙종회의 동의를 거쳤으므로 합법적종도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는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을 되풀이하면 형식논리에 갇히고 만다.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타당성마저 확보했다고 볼 수 없는 사안이 이번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이다.

명진 스님은 폭로성 행보를 멈춰야 한다. 명진 스님의 주장에 동의하는 부분도 그 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면 외면받는다. 봉은사 직영 사찰 지정의 타당성을 따지는 토론회 개최를 제안하고, 이 마당을 통해 주장을 펼치기를 바란다. 중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마침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 과정에서 대화가 부족했던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봉은사 직영 지정에 대해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총무원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봉은사의 직영사찰 시행을 유보하겠다고 밝혀 격앙된 분위기를 가라앉혀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강원지사 : (033)744-361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향다원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중생구제와 자비실천을 함께하실 스님, 포교사,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정대행 총무원장 혜봉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01-82호 법인 설립
※ 준비서류 및 서류 발급
◆ 종단 입종신청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 입종하시면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
※ 각 지역별 간부직 소임자를 우선 모십니다. 연락바랍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전화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

전통범음범패(바라,나비작법) 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0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1년)
가. 초급과정(2개월) ■ 송 주 : 도량석, 종송등
■ 예 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 공 : 삼보통청, 상단·중단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신중작법39위,104위),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달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김법운 스님, 이현진 스님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 입 학 식 : 2010년 3월 18일(목요일) 오전 11시
■ 개 강 : 2010년 3월 18일(목요일) 오후 1시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강의장소 : 경북교구 종무원 설법전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종무원에서 교부)
7. 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 2리 265)
8. 접수기간 : 상시모집
9. 문 의 처 : 053)857-4339, 팩스 053)857-0206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



KOREA – MYANMAR
FRIENDSHIP INTERCHANGE ASSOCIATION
외교 법인

LEADER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종교 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세계촌 곳곳에서 땀 흘려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땀 흘려 봉사해 온 30년의 세월들...



극빈지역 초등학교 설립, 빈약한 사찰 보수지원, 우물파기 운동, 승려 교육자료 지원, 극빈지역 출가의식 지원, 국제회의 개최 및 지원, 국제붓다사리 박물관 및 미얀마 연방정부 한국주재 문화원 개원(공식승인), 수해지역 복구지원, 학교건립 자선바자회, 이외에도 예술인 상호교류 공연, 교육자재지원, 아웅산묘지 폭파 순국선열 천도재, 비구니 스님 수행처 건립 제공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많은 나눔의 행사를 봉행하여 왔습니다.


극빈지역 초등학교 설립


국제회의 진행


사리박물관 마정수기


극빈 초등학교 지원


국제 붓다사리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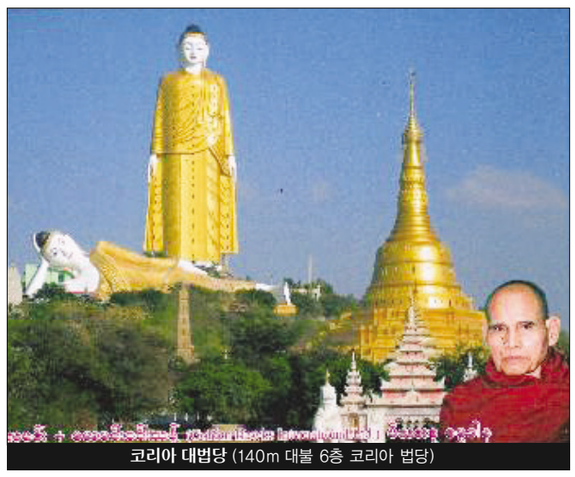


미얀마의 날 행사


미얀마 문화원 개원


우물파기 운동 전개

코리아 기술 종합대학 설립 – 5만평 부지 확보


코리아 대법당 (140m 대불 6층 코리아 법당)

미얀마 정부 역사상 최초로 외국인에게 무료 기증하고 학교부지로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모두가 절대로 불가능하고 거짓이라고 했던 이러한 불사도 부처님의 원력으로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미얀마 수도 양곤 신도시 나인따야에 위치한 5만평의 부지에 기술 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미얀마 극빈 청소년들에게 기술교육을 통해 새로운 인생, 새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그들에게 보내는 진정한 자비행이라 생각합니다. 지원과 후원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도록 지팡이 역할을 하는 것이 진정한 인간방생이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무량심을 몸소 실천하는 길이라 확신하여 전액 무료로 학비 및 숙식을 제공하여 학업 및 기술 연마에 전념하도록 배려할 계획입니다. 한국 불교의 참모습을 보게 될 해외에 설립되는 최초의 기술 학교가 될 것이며 이번 이 신호탄을 계기로 뜻있는 불교인들의 동참으로 후진국들의 동남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많은 교육의 산실이 이루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본 한국 종합 기술 대학 설립은 한국 불교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목탁 역할을 할 것이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표상인가를 보여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종합 기술 대학 조감도

모시는 글

미얀마의 날 선포 10주년 기념식 및 미얀마 전통 의식인 물 축제 행사에 제방의 모든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삼보의 자애로운 미소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삶의 참뜻과 보람과 긍지를 가르쳐 주셨기에 기쁨 안에서 축원 올립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순수함과 자연이 오염되지 않은 불탑의 나라, 미얀마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 미얀마를 바르게 알고 문화를 체험하며, 한국과 미얀마가 가족의 정을 나누며 서로 돕고 서로 머리를 맞대며 대화하려는 아름다운 우정의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와 한국 미얀마 친선교류협회가 한국 땅에서 미얀마의 날을 선포한 지 벌써 10주년이 되었습니다. 미얀마를 사랑하고 깊은 정을 나누고자 이 나라에 귀하고 소중한 지도자 분들과 한국주재 대사님들을 모신 가운데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창단, 창종을 기념하고 미얀마의 날 선포 10주년 기념식 및 미얀마 전통 의식인 물 축제의 행사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이날 미얀마를 위해 애쓰는 분들에게 미얀마에서 친선대사로 추대하고 축하해 주는 자리도 마련하여 마음의 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뜻한 격려의 박수와 축하의 자리에 참석하시어 주역이 되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 **일 시 : 2010년 4월 16일 금요일 오후 4시 30분**
- **장 소 : 소공동 롯데호텔 3층 싸파이어 룸**

미얀마 연방 정부 주한 미얀마 대사 우 묘르윈

한국-미얀마 친선교류협의 &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한국불교종단총연합진흥회
목탁 – 혜은 합장

가진 것 없고 넉넉함이 없는 초라한 대열이지만 보현보살의 행원으로 조금씩 모은 기금으로 우리들은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시련도 많고 힘든 일이었지만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일해 왔습니다. 참기 힘들 정도로 멸시와 시기와 음해에도 귀막고 눈감고 입막으면서 바보가 되어 뛰어왔습니다. 석가세존의 혜명 아래 진리와 대자대비 사상을 바탕으로 세계 인류 평화와 불교 홍법에 기여하고 인간방생을 통해 중생을 제도, 구제하는데 조그마한 밑거름이 되고자 **세계불교지도자들이 모여 선구적 헌신과 희생정신으로 부처님 세상을 열고자 합니다. 같은 도반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기둥이 되어주며 그늘진 곳에 행복을 나누어 주는 대열에 법하를 초대합니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한국 미얀마 친선교류협회.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명예대사 직무실 **대표전화 02)733-5665**

불교국가 및 미얀마 성지순례 안내
마하연 투어 – 문화담당 02)733-5670